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보고회**

일시: 2018. 9. 12.(수) 14:00~16:30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보고회 자료집

일시: 2018. 9. 12.(수)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펴낸 곳 국립국어원(www.korean.go.kr)

주소 07511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방화동 827번지)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154, Geumnanghwa-ro, Gangseo-gu, Seoul, Korea

전화 (02) 2669-9775

전송 (02) 2669-9727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보고회 자료집**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보고회

차례

[인사말] 소강춘 원장(국립국어원)	6
[발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성과	11
발표자: 박정아 학예연구관(국립국어원)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내용	33
발표자: 이정희 교수(경희대학교)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활용	75
발표자: 박진욱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좌담회]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의의와 과제

좌장: 김종섭 교수(경희대학교)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의의와 성과 .. 129

패널: 강현화 교수(연세대학교)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의의와 성과 .. 133

패널: 김선정 교수(계명대학교)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의의와 성과 .. 137

패널: 김재욱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과제 141

패널: 김정숙 교수(고려대학교)

국제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활용 사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중심으로- 144

패널: 안경화 교수(서울대학교)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의의와 과제 .. 147

패널: 이해영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요약본]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154

인사말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보고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앞두고, 풍성한 연구 결과를 나누기 위한 보고회 자리에서 학계와 현장에 계신 한국어교육 관계자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국립국어원은 한국어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상별 맞춤형 교재 개발, 교원 자격 관리, 교원 재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한국어 교원과 학습자를 지원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어교육 기초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한국어교육의 양적·질적 발전을 위한 밑바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회의 주제인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역시 이러한 기초 연구의 일환으로, 4년에 걸친 전문가들의 개발 성과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한국어교육의 외연은 끊임 없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어교육 수요의 증가에 따라 한국어교육 대상이 다변화되고 있으며, 한국어교육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교육 환경도 날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표준적인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간 많은 기관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한국어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이에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국내외에서 두루 사용할 수 있는 한국어교육 범주와 내용을 마련하였고, 교육 현장에서 적절하게 변화시켜 사용할 수 있게 유연성을 부여하였습니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한국어교육에 몸담고 있는 교사와 연구자가 든든히 참고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지역과 기관에서 이 이정표에 따라 한국어교육이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이 한국어교육을 체계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여, 장기적으로 한국어교육 발전에 기여하리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이 빛을 보기까지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김중섭 교수님 외 모든 연구진들과 바쁘신 중에도 흔쾌히 발표와 좌담을 맡아 주신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모든 내용이 한국어교육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9월 12일

국립국어원장

소강춘

발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성과*

발표자: 박정아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학예연구관

1. 머리말

제2언어 혹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현장은 매우 다양하며, 학습자들의 학습 목적과 특성도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성은 한국어교육이 폭넓게 성장하는 주된 동력이 되었으나 양적인 성장 못지않은 질적인 성장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되기도 하였다. 질적인 성장에서 가장 큰 요구를 받는 부분은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개발이었다. 물론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이 개발되기 이전에도 각 기관마다 자체 교육과정에 맞춰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지만, 그 체계가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국가적 차원의 교육과정 개발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립국어원에서는 2010년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연구를 처음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2016년과 2017년에는 수정·보완 연구와 표준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모형 개발 연구가 이루어졌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4단계로 진행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개발은 장기간에 진행된 연구라는 점에서 각 연구를 전체적으로

* 이 글은 이보라미 학예연구관(국립국어원)이 작성한 것으로서, ‘새국어생활 2018년 제28권 제2호·여름(국립국어원, 2018)’에 실린 원고이다.

조망할 필요가 있다. 부족하나마 이 글에서는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개발 배경 및 과정을 소개하여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연구가 걸어온 길을 고찰하고,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의미와 그 개발 성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개발 배경 및 과정

2.1. 개발 배경

이정근(1976:365)에서는 교육과정의 계획은 교육 목표에 영향을 받으므로 외국어 교육으로서의 한국어 학습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것의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학습자들의 특성에 따른 학습 목표가 설정이 되면 그 교육과정 역시 달라져야 한다고 말한다. 초기 한국어교육 연구인이 연구를 통해 크게 두 가지의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한국어교육은 발전 초기 단계부터 학습 대상에 따른 맞춤형 한국어 교육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는 점이다.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데 학습자들의 특성과 학습 목표를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는 점은 현장을 기반으로 한 한국어교육 발전의 뿌리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둘째, 이정근(1976)에서 언급된 교육 대상이 외교관, 정보원, 재외동포 유학생이라는 점, 그중에서도 재외동포 유학생에 대한 대학 부속 언어교육원에서의 체계적인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흥미롭다. 오늘날 쉽게 만날 수 있는 다문화 가족 이주민 학습자, 취미 목적으로 한류에 관심이 있는 학습자 등 다변화된 학습자를 고려한 교육과정은 한국어교육 발전 초기에는 중요한 고민이 아니었을 것이다.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은 대학 부속 언어교육원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관심은 개별 교육 기관의 교육 시스템의 발전에 주목된 것으로 국가적 차원의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관심은 시작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화 시대가 가속되면서 한국어교육 학습자들도 다양화·다변화되었고, 학문적 토대의 성장과 한국어교육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커지면서 교육 현장의 다변화와 양적인 성장만큼 교육의 질적 성장도 크게 요구되었다. 국내와 해외라는 교육 환경이 다른 배경에서 다양한 학습자들이 구성¹⁾되어 있는 점은 한국어교육이 갖는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과정’ 1단계 연구에서 지적된 것처럼, 교육의 형식적·내용적 측면에서 지역이나 기관마다 비체계적이고 상호 독립적인 방식으로 한국어교육이 운영되는 점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한국어교육의 발전에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었고, 이러한 한계에는 표준 교육과정의 부재라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었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이 연구되기 이전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이 국가 차원의 한국어 교육과정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하였다. 현재 국립국제교육원에서 담당하는 한국어능력시험은 1997년에 제1회 시험이 시행²⁾되었다. 이 시험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이 응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한국어 학습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평가 도구이다. 이 시험에서 정한 6등급 체계(1급~6급)와 평가 기준은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이 부재한 상태에서 각 등급의 교육 목표와 수준을 정하는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어능력시험은 한국어 사용 능력을 측정·평가하는 도구이며 그것 자체가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정하는 것에는 부족한 부분이

-
- 1) 2016년 12월 기준, 문헌 조사를 통해 밝혀진 국내 한국어교육 기관은 총 1,302개로 대학 부설 기관(220개), KSL 교육 기관(500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218개), 사회 통합 프로그램 운영 기관(301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63개)의 다양한 기관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해외 한국어교육 기관은 세종학당(144개), 한글학교(1,848개), 초·중등학교(830개), 대학(1,243개)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으며 그 수는 총 4,065개이다(출처: 국립국어원, 2017b).
 - 2) 1997년과 1998년에 시행된 제1회, 제2회 시험은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시행하였으며, 1999년 시행 기관이 변경되어 2010년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행하였다. 그러다가 다시 시행기관이 변경되어 2011년부터 현재까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한국어능력시험을 담당하고 있다.

존재한다. 특히, 한국어능력시험의 주된 응시 대상자가 국내 대학 유학을 희망하는 학습자들이다 보니 그 평가의 수준과 내용에 있어 다양한 학습자의 요구에 적합한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물론 평가와 교육과정의 긴밀도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으나,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평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평가라 할 수 있지 그것 자체가 교육과정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과 같은 양상이다.

한국어교육 학계에서도 한국어능력시험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과 다르게 국가 차원의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었으며, 해외 한국어교육 수요가 증가하면서 각 기관별로 다양하게 설계·운영되는 교육과정에 참고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요구도 높아졌다. 또한, 국내 다문화 가족의 증가, 해외 세종학당이 신설·확대되면서 체계화된 교육에 대한 국가적 관심도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교육 현장의 다변화에 체계적인 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립국어원에서는 2007년에 ‘세종학당 교육과정 개발 연구’, 2008년에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³⁾’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각 연구는 세종학당의 초기 운영 기틀을 마련한 의의를 가지며,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교육과정은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는 기초가 되었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의 발전에도 기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별·기관별로 교육의 내용과 체계가 달랐고, 특히 한국어교육 전문가가 부족한 해외 혹은 신설 기관에서는 교육과정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였다. 한국어교육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이 필요하였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국립국어원에서는 2010년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연구를

3)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은 2008년도에 국립국어원의 국고 보조 지원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결과 보고서는 2009년 1월 20일에 제출되었다. 이 원고에서는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던 2008년도를 연구 시기로 보며, 참고 문헌으로는 국립국어원(2009)으로 표시한다.

발주하게 되었고 학계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연구가 진행되게 되었다.

2.2. 개발 과정

여기에서는 국립국어원에서 진행한 총 4단계의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전체 개발 흐름과 각 단계에서의 연구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표 1 단계별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연구 사업명

구분	개발 연도	연구 사업명
1단계	2010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	2011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
3단계	2016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활용 점검 및 보완 연구
4단계	2017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다소 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과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이라는 용어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교육 모형(education model)과 교육과정(curriculum)은 교육학적 개념에서 분명한 차이를 가진다. 교육 과정은 ‘교육의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게 선택된 교육의 내용으로 방법적 원리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조직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수 방법, 교수 절차, 학습 경험, 교육 평가의 순환적 과정이 포함 (국립국어원, 2009:1)’된 개념이다. 그러나 교육 모형은 좁게는 수업 모형으로 보기도 하나,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의 ‘교육 모형’은 좀 더 일반적 개념으로 절차와 내용을 담는 여러 가지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용어라 할 수 있다.⁴⁾ 이는 다음 장에서 논의할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의미와 연결되기도 한다.

‘교육과정’은 학습 대상자를 고려한 분명한 교육 목적을 설계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한국어교육의 특성상 ‘표준 교육과정’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그래서 초기의 연구에서는 ‘교육 모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비전문가들도 국내외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현실적 상황에서 비롯된 까닭인지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에 관한 연구가 있지만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부재하다는 오해를 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교육 모형’이라는 용어가 일반 국민에게 친숙하지 않고, 교육 과정에 비해 그 구체성이 약하다는 점에서 2016년 수정·보완 연구에서는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을 전면에 부각하게 되었다. 비록 ‘교육 모형’과 ‘교육과정’이 교육학적 차원에서 분명한 차이를 가지지만,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전체 연구에서는 이 둘의 용어를 구분하지 않았다.

이제 본격적으로 총 4단계에 걸쳐 진행된 연구의 개발 흐름과 개발 내용을 살펴보겠다. 2010년에 발주된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연구의 제안 요청서에서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과업으로는 (1) 독일,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국내·외 자국어 교육 기관에서의 자국어 교육 표준 모형 조사 및 분석, (2) 국내·외 한국어교육 기관에서의 한국어교육 과정, 내용, 수준 등에 관한 조사 및 문제점 분석, (3)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을 위한 국내·외 한국어교육 기관(세종학당)에서의 한국어 교육과정 요강(교육 수준, 교육 항목, 교육 내용 등), 평가 등 위한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연구·개발

4) 예를 들어, 교육과정의 개발 모형에 ‘타일러(Tyler)의 합리적 모형’, ‘슈와브(Schwab)의 실제적 개발 모형’, ‘아이스너(Eisner)의 예술적 접근 모형’ 등이 있다고 하면, 이때의 모형은 각 학자들이 교육과정 개발 시 고려할 절차와 내용을 담고 있는 이론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은 한국어교육의 다양한 교육 유형에서 표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한 모형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등이 있었다.

그러나 한국어교육 기관의 특성상 통일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으며, 교육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수 방법, 교수 절차, 교육 평가’ 모두를 연구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무엇보다 각 기관마다 가르치는 교육 내용에 큰 차이가 있어, 결국 참조 기준으로서 적용 가능하고, 한국어교육 체계화에 무엇보다 시급한 표준 교육과정의 등급 체계, 등급 범주, 교육 목표 등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1단계 연구에서는 유럽공동참조기준, 미국외국어교육평가전문위원회(ACTFL, 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 국제한어교학통용과정대강 등 교육과정 개발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국내외 문헌을 검토하였으며, 한국어교육 기관의 운영 실태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교육에서 필요한 교육 내용을 선정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지식을 수집하고 의견과 판단을 추출하는 델파이 기법(Delphi technique)을 적용하였다.⁵⁾ 이러한 과정을 거쳐 등급별 목표와 내용 기술을 위한 영역으로 ‘주제, 언어 기술, 언어 지식, 문화’ 영역을 설정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방대한 연구 분야와 선행 연구의 부족, 짧은 연구 기간(약 7개월) 등의 여러 한계점으로 인해 한 차례의 연구만으로는 충분한 성과를 도출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후속으로 2단계 연구가 진행되었다.

2단계 연구에서는 2010년에 진행된 1단계 연구를 구체화하고 표준 교

5) 델파이 조사의 전문가 집단으로 총 26명이 참여하였고,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국립국어원, 2010:28).

- 현장 경험 10년 이상
- 교육과정 및 교수요목 설계와 관련한 연구 경험자
- 한국어 교재 개발자
- 교육과정 관련 연구 및 실제 평가 참여 경력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全) 분야 강의 경험자

육과정의 변이형을 개발함으로써 표준 교육과정의 범용화, 범세계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단계 연구에서는 앞선 연구에서 등급화한 체계에 맞춰 각 등급의 목표 및 내용 기술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에서 가장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주제, 어휘, 문법, 발음, 텍스트, 기능/과제, 문화’의 교육 내용을 해당 등급의 목표에 맞춰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연구가 진행된 2011년 당시에는 세종학당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면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맞는 세종학당 표준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도 높아져, 변인별 표준 교육과정의 설계로서 ‘세종학당 모형’ 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 단계에서 연구된 세종학당 교육과정 변인과 교수요목은 세종학당의 표준 교재인 《세종한국어》 교수요목 설계의 기본 바탕이 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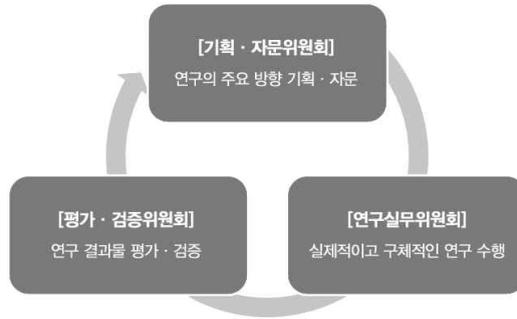
1단계와 2단계 연구가 발표된 후, 교육과정 개발 및 평가, 한국어교육 내용과 관련한 여러 연구에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연구 결과가 적용되었다. 한국어교육 내용 선정 및 교육과정 설계에 필요한 참조 기준으로서 활용이 되었지만, 교육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와 개발 내용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무엇보다 1단계와 2단계 연구가 진행된 이후 시간이 지나 한국어교육의 다변화된 상황을 반영한 국가 수준의 표준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해졌다. 또한 기존 연구가 한국어교육 현장에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요구되었고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부족한 부분 등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2016년과 2017년에 3-4단계 연구가 추진되었다⁶⁾.

6) 3-4단계 연구는 기존 1-2단계 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연구 절차에 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연구의 과업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 연구는 상세화된 내용 개발 및 현장 적용성 점검 등의 과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총 2년 차에 걸친 연구로 추진 예정. 단, 각 연차별 사업 내용을 구분하여 연구 용역 수행자는 매년 공모·선정함.

3단계에 설정된 연구의 기본 방향은 첫째,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획일화된 교육과정 개발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다양한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각 기관의 사정에 맞는 교육과정 및 교육 자료 개발에 참조가 되는 기준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한국어능력시험(TOPIK) 등 국가 수준의 평가와 연계성을 고려하고, 유럽공통참조기준 등 여타 외국어 교육과정과 비교 가능한 기준이 제공되는 수준으로 연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방향을 전제로 하여, 기존에 개발된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1·2단계)’의 장점과 연계성을 최대한 고려하되 현장 적합성 검토 및 전문가·한국어 교원 등의 다양한 의견 등을 수렴해 수정·보완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질차적인 측면에서는 학계와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개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이 모색되었다.

그림 1 위원회 구성·운영(안)(3단계 연구 제안요청서, 2016:3)



- (1차년도 주요 연구 내용) 기 개발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1·2단계)’의 등급 체계·교육 시간·등급 범위 재점검, 등급별 목표 및 내용 상세화, 주제·어휘·문법 등 등급화된 교육 내용 간의 동일 속달도 내에서의 연계성 점검, 교육과정 차원에서 평가의 방법 및 내용 연구 등
 - (2차년도 주요 연구 내용) 1차년도 수정·보완 사항 재점검, 교육 현장별 유형화(모듈화)된 적용 내용 개발, 한국어교육 현장의 비전문가를 위한 구체화·상세화된 자료 개발 등
- * 출처: 3단계 연구 제안요청서 2쪽

위원회는 총 3개의 분과로 구성⁷⁾되었으며, 기획·자문위원회는 한국어 교육 학계의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하였고,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연구 방향과 설계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실무위원회에서 수행한 연구의 내용을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실무위원회는 한국어교육 현장 전문가와 신진 연구자를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1단계와 2단계 연구를 재검토하면서 수정·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지역적 배분을 고려하여 선정된 검증위원회는 한국어교육 기관의 대표자, 중진 연구자, 한국어교육 관련 기관 관계자로 구성되었으며, 연구의 내용을 각 기관에 시험 적용해 보고 그에 대해 검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와 같은 위원회 구성은 기존 연구에서 찾아보기 힘든 절차인데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중요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시도되었으며, 무엇보다 학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의가 중요하여 최대한 많은 연구자들의 참여를 이끌고자 하였다.

3단계 연구에서는 1-2단계 연구에서 정립한 7등급 체계가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재검토하여 등급 체계를 6+등급으로 수정하였으며, 이에 맞춰 등급별 총괄 목표, 등급별 기술 내용을 전면 수정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에서 각 범주별로의 체계성이 확보된 것에 비해, 동일 등급에서 정하는 범주별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해당 등급별 연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문화 영역을 등급에 맞춰 구분한 것이 교육 현장으로의 적용성이 약하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숙달도를 등급별로 제시하지 않고 ‘초·중·고’ 3단계로 제시하였고, ‘문화 지식, 문화 실행, 문화 관점’의 구분에서 ‘문화 실행’은 주로 교육과정 외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여 ‘문화 지식’과 ‘문화 관점’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그리고 기존에 다루지 못한 ‘평가’ 영

7) 각 위원회 구성 현황은 3단계 연구 보고서(《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활용 점검 및 보완 연구》)를 참조하기 바란다.

역을 설정하여, 한국어 평가의 목표 및 범주 설정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4단계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등급별 기술의 세부 사항을 최종적으로 수정·보완하였다. 그리고 국내외 한국어 교육 현장이 다양한 현실에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이 참조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연구 인력이 국내에 비해 다소 부족한 해외 중등학교와 해외 대학을 대상으로 하여 적용 모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연구의 결과가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으로 쉽게 살펴볼 수 있는 《한눈에 보는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소개 자료도 개발하였다. 그리고 4단계 연구에서는 앞선 연구인 ‘한국어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1-4단계)’와 ‘한국어교육 어휘 내용 연구(1-4단계)’를 적극 검토하여 언어 지식인 ‘문법’과 ‘어휘’를 6등급 체계에 맞춰 등급화한 결과도 수록하고 있다. 이는 기존 2단계 연구와 앞선 두 연구를 종합한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3.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의미와 개발 원리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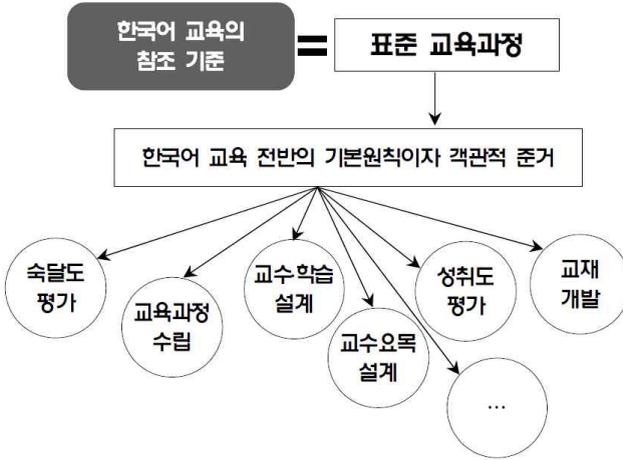
3.1.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의미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의미는 연구 초기부터 중요한 대상으로 다루어졌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한국어교육 현장의 특성상 ‘초·중등 교육과정’과 달리 하나의 획일화된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칫 하나의 교육과정을 표방한다면, 어느 집단의 요구도 충족시키지 못할 문제만 생길 수 있다. 따라서 1단계 연구에서부터 ‘표준’을 ‘참조 기준’으로 정의내리고 ‘표준 교육과정’을 수립하거나 교수-학습을 설계할 때, 교수요

8)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1-4단계)’ 연구에서 기술된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특히 2단계 연구인 국립국어원(2011:7-9)을 적극 참조하였음을 밝힌다.

목과 교재를 개발하는 등 한국어교육 전반에 적용·참고할 수 있는 ‘기본 원칙이나 객관적인 기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림 2 표준 교육과정의 의미(국립국어원, 2011:7)



2단계 연구에서 지적한 것처럼 ‘표준 교육과정’은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한국어교육 현장을 하나의 통일된 교육 모형으로 재편성하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설계하는 데 있어 객관적인 준거가 필요하며, 한국어교육이 양적 혹은 질적으로 방대해지는 만큼 교육의 형식적-내용적 측면도 서로 상이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표준 교육과정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한국어교육은 일반적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외국어 교육과정 포함)과 같이 동일한 학습 목표를 가진 교수-학습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변형이 불가능한 교육 모형의 설정은 오히려 한국어교육의 다양성을 담보하고, 서로 상이한 교수-학습 대상과 상황에서 적절하게 변형-적용될 수 있도록 융통성과 탄력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표준 교육과정’은 다양한 층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 교수-학습이 적절한 수준에서, 적절한 내용

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준거로서 각기 다른 등급 체계, 학습 목표, 그리고 교육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한국어교육 현장의 유기적인 연관성 확보와 기관별 상호 교환(학습자, 교수자, 교육 과정 설계자, 교재 개발자 등)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본 원칙으로서의 ‘한국어교육의 참조 기준’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3.2.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개발 원리

‘한국어교육의 참조 기준’으로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특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1단계 연구에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개발 원리로 ‘내용의 포괄성’, ‘사용의 편리성’, ‘자료의 유용성’, ‘적용의 융통성’이라는 4가지 개발 원리를 설정한 바 있다. 각 원리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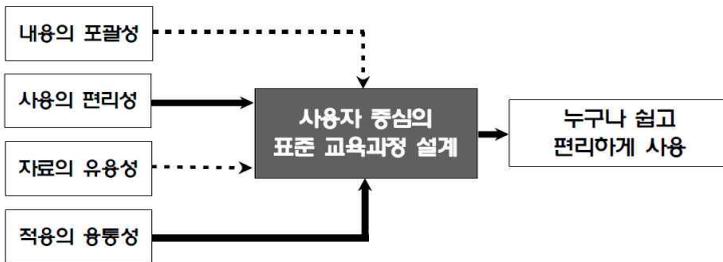
표 2 표준 교육과정 개발의 원리(국립국어원, 2010:135-136)

원리	내용
내용의 포괄성	개인, 공공, 직업 영역에서의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학습자가 배워야 하는 언어 행위와 그 행위를 위해 개발해야 하는 지식, 기능 및 문화적 능력을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각 학습 단계별 능력 수준을 규정해야 한다. 개개의 등급 범주와 목표 및 내용은 한국어 학습자에게 능력(지식, 기능, 태도)에 대한 분명한 표상을 보여 주어야 하며, 이를 통해 학습자가 목표에 도달하였을 때 자신의 학습 진척을 기술 체계의 범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의 편리성	표준 교육과정은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 내용은 뚜렷한 목표와 명확한 주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각기 다른 환경에 있는 사용자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전달 내용이 분명해야 하고, 의도하고자 하는 바가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문장으로 기술해야 한다. 사용자가 각자의 환경과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입장을 고려한 내용을 구체적이면서 간결하게 적도록 한다.

원리	내용
자료의 유용성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표준 교육과정은 다양한 교육 환경에 실제 적용 가능한 유용하고 현실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즉, 학습자의 요구, 학습 동기, 개별 성향에 따른 다양한 목적과 목표 설정에 유용해야 하며 학습 목표의 설정이나 학습 내용 선정, 교육 자료의 선택 및 제작, 평가 등에 실제 적용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표준 교육과정은 다양한 교육 기관 및 교육 집단을 대상으로 한 요구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어 교수 학습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의 역할이 전제되어야 한다. 학습자의 일상생활 속의 요구와 관련된 언어 지식과 기술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교육 기관, 교육 설계자 등의 교육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 요구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적용의 융통성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교육과정은 표준적이고 범용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범용의 한 축은 다양한 변인에 맞게 개작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이한 조건과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작이 가능해야 한다. 포괄적이고 명확한 공동의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지만, 유일한 통일 체계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융통성 있는 체계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들 원리 중에서 ‘사용의 편리성’과 ‘적용의 융통성’은 표준 교육과정을 구체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된다. 1단계 연구에서는 등급 체계를 세우고 등급별 하위 범주를 설정하여 목표와 그 내용을 추상적으로 기술하는 데에 있었지만, 2단계 연구부터는 기존에 설계·구축된 등급별 목표와 내용 기술을 범주별로 구체화·등급화하여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에 적용하는 데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림 3 표준 교육과정 설계의 원리(국립국어원, 2011:8)



표준 교육과정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주로 교육과정 설계자, 교재 개발자가 된다. 이들이 교육과정을 설계하거나 교재 개발을 위해 교수요목을 마련하고자 할 때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이 ‘한국어교육의 참조 기준’으로서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이 편리해야 할 것이다. ‘사용의 편리성’을 실현하기 위해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자 하였다. 유럽공동참조기준, 미국의 국어교육평가전문위원회(ACTFL) 등 해외의 교육과정 등과 비교하여도 등급별·범주별 내용이 상세하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주제, 기능 및 과제, 언어 지식(어휘, 문법, 발음), 텍스트 등의 등급별 기술 내용이 매우 상세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4단계 연구에서는 ‘사용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언어 지식의 ‘발음 영역’에서 한국어 발음 교육의 내용을 대분류, 중분류, 내용을 소개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예시를 제공하여 사용자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⁹⁾

9) 2단계 연구에서는 발음 목록을 <표 3>과 같이 제시하고 있는데, 4단계 최종 보고서에서는 <표 4>와 같이 내용을 상세화하고, 구체적인 예시 제시하여 사용자의 편리성을 높이고 있다.

표 3 2단계 발음 목록의 등급화 예

대분류	중분류	항목	등급					
개별음소	모음	모국어에도 있는 모음의 경우, 듣고 무슨 음인지 구별한다.	●					
개별음소	모음	모국어에도 있는 모음의 경우, 정확하게 발음한다.	●					
개별음소	자음 (초성)	모국어에도 있는 자음의 경우, 듣고 무슨 음인지 구별한다.	●					
개별음소	자음 (중성)	모국어에도 있는 중성을 듣고 무슨 음인지 구별한다.	●					
개별음소	자음 (중성)	모국어에도 있는 중성의 경우, 발음 원리를 알고 정확하게 발음한다.	●					
개별음소	모음	모국어에도 있는 자음의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을 알고 정확하게 발음한다.	●	●				

다음으로 ‘적용의 융통성’은 표준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사용자가 교육 과정을 개발하거나 교재 개발을 위한 교수요목을 마련하고자 할 때, 교수-학습의 목표와 대상의 특징, 환경 등을 고려하여 내용을 축소하거나 확장해 나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적용의 융통성’은 ‘선택의 다양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최대한 자세하고 다양한 내용을 제공하며 사용자는 그중에서 필요한 내용을 취사선택하는 것이다. 선택의 폭이 넓어짐으로써 물론 사용자 측면에서는 한국어교육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부담을 갖는 점을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문성은 교육과정 설계자나 교재 개발자에게는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교육적 전문성이라는 점에서 큰 결점이 될 수는 없다.

한 예로, 교육과정이나 교재를 개발할 때에는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교육 시간을 다르게 설정한다.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여 표준 교육과정의 교육 시간은 72시간(12주*6시간)을 최소치로 잡고, 국내 정규 기관 및 한국어능력시험이 채택하고 있는 200시간(10주*20시

표 4 4단계 발음 목록의 등급화 예

대분류	중분류	예시	내용	등급						
				1	2	3	4	5	6	
음소 (분절음)	모음	단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단모음을 듣고 구별한다.	●						
			단모음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발음한다.	●						
		이중모음: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ㅛ, ㅠ, ㅜ, ㅠ, ㅡ, ㅣ	이중모음을 듣고 구별한다.	●						
			이중모음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발음한다.	●						
		자음 다음의 ‘ㄱ’은 ‘ㅣ’로 발음하며 그 외에는 ‘ㅣ’와 ‘ㅓ’로 발음할 수 있음. 예) 무늬[무니], 회의[회의/회이], 우리의[우리의/우리애]	‘ㄱ’이 달리 발음되는 환경을 알고 구별하여 발음한다.							

간)을 최대치로 설정하고 있다. 최소 필요 교육 시간인 72시간과 최대 200시간은 교육 현장을 분석하여 귀납적 방식으로 도출된 시간이지만, 실질적으로 72시간과 200시간의 교육내용을 설정할 때에는 분명한 현실적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때 72시간용 교재를 개발하거나 200시간용 교재를 개발하는 것은 교수요목 설계자와 교재 개발자의 몫이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4단계 최종 보고서에서 제시한 아래와 같은 표준 교육과정의 등급 범주의 교육 내용을 교육 시간에 맞게 선정한다고 가정해 보자.

- 주제: 17개 범주 85개 항목 제시
- 기능 및 과제 5개 범주 52개 항목 제시
- 언어 지식
 - 어휘: 10,635개 제시
(1급: 735개, 2급 1,100개, 3급 1,655개, 4급 2,200개, 5급 2,365개, 6급 2,580개)
 - 문법: 336개 제시
(1급: 45개, 2급 45개, 3급 67개, 4급 67개, 5급 56개, 6급 56개)
 - 발음: 5개 범주 72개 항목 제시
- 언어 기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급별로 항목과 내용 제시
- 텍스트: 4개 범주 144개 항목 제시
- 문화: 3개 범주 100개 항목 제시
- 평가: 등급별로 항목과 내용 제시

언어 지식의 하위인 ‘어휘 영역’에서는 총 10,635개의 어휘가 제시되어 있다. 이 모든 어휘를 교육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가르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만약, 최소 필요 교육 시간만을 염두에 둔 어휘

교육 항목을 표준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으로 선정하였다면, 그것은 획일화된 어휘 교육 내용을 설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결국 한국어 표준 교육 과정은 이용자들의 선택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적용의 융통성’을 표준 교육 과정 설계의 원리로 설정함으로써 다양한 교육 현장을 품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4. 개발 성과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개발 성과를 진단하기에는 수정·보완된 4단계 최종 보고서가 최근에 발간되었다는 점에서 성급한 판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1-2단계 연구가 폭넓게 인용된 점, 3-4단계 연구 과정에서 실시된 국내외 한국어교육 기관의 검증 의견,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미 있는 성과가 있다.

첫째, 한국어교육의 기초인 교육 내용을 공고히 하고 체계화하였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는 등급별 총괄 목표, 범주별·등급별 교육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특히, 등급 기술 영역은 주제, 기능 및 과제, 언어 지식(어휘, 문법, 발음), 언어 기술(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텍스트, 문화, 평가 범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처럼 각 범주별 교육 내용을 등급별로 종합하여 제시한 것은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연구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교육의 기본이 되는 교육 내용을 등급화·목록화하여 체계성을 마련한 점은 한국어교육의 교육적 토대를 공고히 한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둘째, 관련 연구 분야에 폭넓게 인용되면서 한국어교육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한국어 교육과정과 교재 개발에 참조할 수 있는 자료가 개별적으로 낱날이 흩어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국가 수준의 기준으로는 한국어능력시험의 기준을 표준적으로 적용하기는 하였지만, 공신력 있는 기준의 부재로 개별 연구자들도 연구에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한국어교육에 참고할 수 있는 전반적인 교육 내용이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제시되면서, 다른 연구에 활발히 활용하게 되었고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어교육의 학문적 발전을 이끄는 자양분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초·중·고등학교 한국어 교육과정, 사회 통합 프로그램 한국어 교육과정 등 다양한 한국어교육 기관에서 각 기관 유형별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을 인용한 사례가 늘어나면서, 각 기관별로 교육 대상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더라도 전체적인 한국어교육의 측면에서는 교육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장점을 가지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한국어교육 현장에 적용되면서 한국어교육의 전문성을 제고에 기여하였다.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현장에서 폭넓게 적용되었을 때 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각 기관별 교육과정의 운영 현황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것에는 이 연구에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간접적으로나마 현장의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한국어 교재에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점에서 한국어교육 현장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국립국어원에서 개발하는 한국어 교재는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국내 다문화 배경의 학습자 교육뿐만 아니라 세종학당의 해외 학습자들에게도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데에 기여하였으며, 한국어 교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5. 맺음말

지금까지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개발 배경과 과정,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이 갖는 의미, 설계 원리 그리고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개발의 성과를 살펴보았다. 2010년 처음으로 연구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2016년과 2017년 다변화된 교육 현장의 변화를 수용하고, 현장의 적용성을 더욱 높이고 연구 내용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연구 초기에는 과연 방대한 교육 내용에 관한 연구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한국어교육 학계의 수많은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그 틀을 잡아 갔고 한국어교육의 기본 원칙이나 참조 기준으로서 모습을 공고히 다져나가기 시작했다. 연구에 직접 참여한 연구진뿐만 아니라 자문 위원, 현장 검증 위원 등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협조가 있었기에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이름을 달고 4단계 최종 보고서가 마무리 될 수 있었다.

물론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이 다소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과정은 정제된 대상이 아니므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개정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본다. 그렇지만 그전까지는 학계를 비롯한 교육 현장 곳곳에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소개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연구’의 후속으로 교육과정 적용에 관한 공동 연수(워크숍), 컨설팅 등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적용 결과들이 다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순환되어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이 국내외 더 많은 교육 현장에 적용되고, 한국어교육 발전과 함께 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 문헌

- 국립국어원(2007), 《세종학당 교육과정 개발 연구》 (책임 연구원: 허용).
- 국립국어원(2009),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책임 연구원: 허용).
- 국립국어원(2010),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책임 연구원: 김중섭).
- 국립국어원(2011),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 (책임 연구원: 김중섭).
- 국립국어원(2016),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활용 점검 및 보완 연구》 (책임 연구원: 김중섭).
- 국립국어원(2017),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 (책임 연구원: 김중섭).
- 국립국어원(2017b), 《한국어교육 실습 기관 기초 조사 연구》 (책임 연구원: 이정란).
- 이정근(1976), “한국어 교육과정의 새 정립을 위한 조사연구 - 서울대 재외 국민교육 연구소를 중심으로”, 《국어교육》 27, 한국어교육학회, 297-320쪽.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내용*

발표자: 이정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I.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등급과 목표

1. 서론

한국어 학습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학습 목적도 단순한 관심의 수준을 벗어나 보다 구체화되고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교육에서는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교육과정이 부재하여 한국어 교육과정의 장기적인 발전에 한계점이 있어 왔고, 이로 인해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와 같은 표준화된 한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국가 차원의 요구로 표준 교육과정의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2010년과 2011년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연구를 통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한국어 교육 과정의 범주와 항목, 세부 내용이 개발되었다. 이는 이후 한국어교육의 현상과 관련 연구 영역에서 참조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으나, 한국어

* 이 글은 국립국어원의 연구 과제인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김중섭 외, 2017)’의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재구성한 것으로서, ‘새국어생활 2018년 제28권 제2호·여름(국립국어원, 2018)’에 실린 원고이다. ‘I.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등급과 목표’는 김중섭 교수(경희대학교), ‘II.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구성과 내용’은 김정숙 교수(고려대학교), 이정희 교수(경희대학교)가 작성하였다.

교육의 질적·양적 팽창으로 인해 교육과정의 다각적인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후속 연구를 통해 재점검의 계기가 마련되었고, 교육과정을 사용자 측면에서 구체화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현장별로 적용될 수 있는 표준화 교육과정이 개발되었다.

2017년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에서는 2016년 수정·보완 연구의 과업을 최종 점검하고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이 국내의 한국어 교수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형별 교육과정 및 지침, 다국어 요약본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글에서는 연구 개발 결과 중 등급과 목표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2. 표준 교육과정의 등급 체계

표준 교육과정의 등급 체계 구성을 위해서 먼저 해외의 주요 언어 교육 과정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대상의 문헌 자료로 유럽공통참조기준(CEFR)¹⁾, 국제한어교학통용과정²⁾, 미국외국어교육평가전문위원회(ACTFL, 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³⁾ 등을 살펴본다.

유럽공통참조기준(CEFR)은 기초적 언어 사용(Basic User/A1)부터 숙달된 언어 사용(Proficient User/C2)까지 세분화된 6개의 숙달도 척도로 구성

1) 유럽공통참조기준(CEFR)은 유럽 내 교육 제도의 차이나 언어 교수자 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에 따르면 서로 다른 언어와 국가라도 언어 성취도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2) 2008년에 만들어진 국제한어교학통용과정대강은 중국어를 제2외국어로 하는 외국인을 위한 중국어 교육과정으로, 중국어교육의 구성과 계획을 세우고 어학 능력의 평가 측정 및 교재 편찬의 참고 방향 및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유럽공통참조기준’과 ‘국제중국어능력기준’을 참조하여 설계되었다.

3) 미국외국어교육평가전문위원회(ACTFL)는 1967년에 설립되어 외국어교육 현장에서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외국어 전문 교육 연구 단체이다. 58개 언어의 교육과 평가를 담당하는 세계 유일의 전문 교육 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다. 미국외국어교육평가전문위원회는 미국의 학교, 기업, 국가 단위의 언어 프로그램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말하기 평가 분야에서 전문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되어 있다. 이 체계는 유럽의 언어 교육과정 설계 및 언어 교수, 학습, 평가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국제한어교학통용과정대강은 교육과정을 총 5단계(1~5등급)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으며 각 급별로 달성해야 할 목표를 언어 지식(음운, 한자 어휘, 문법, 기능, 화제, 단락), 언어 기능(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전략, 문화 의식(문화 지식, 문화 이해, 문화 간 이해, 국제화 시야) 범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미국외국어교육평가전문위원회(ACTFL)의 주요 등급은 Novice, Intermediate, Advanced, Superior의 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Superior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세 등급은 다시 세 개의 단계(HIGH, MID, LOW)로 세분화되어 있다. 한어수평고시(HSK)는 'HSK 1급-6급'의 필기시험과 'HSK 초급·중급·고급' 회화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어능력시험(JLPT)은 등급 체계가 총 4단계에서 5단계(N1~N5)로 세분화되었다. 등급에 따라 N1~N2는 언어 지식(문자·어휘·문법)·독해, 청해의 두 범주로 나뉘어져 있고 N3~N5는 언어 지식(문자·어휘), 언어 지식(문법)·독해, 청해의 세 범주로 분류되어 실시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10년과 2011년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연구에서는 표준 교육과정의 등급 설정을 초급 1~2급, 중급 3~4급, 고급 5~6급, 최상급 7급으로 설계하였다. 최상급으로 7급까지 교육과정을 설계한 것은 학문 목적 학습자들의 아카데미 토픽(Academic TOPIK)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최상급을 설정함으로써 고급 이하의 등급 수준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등급의 하향 조정은 각 등급의 숙달도 기준을 세분화하여, 다양한 변인의 학습자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림 1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2010, 2011)의 등급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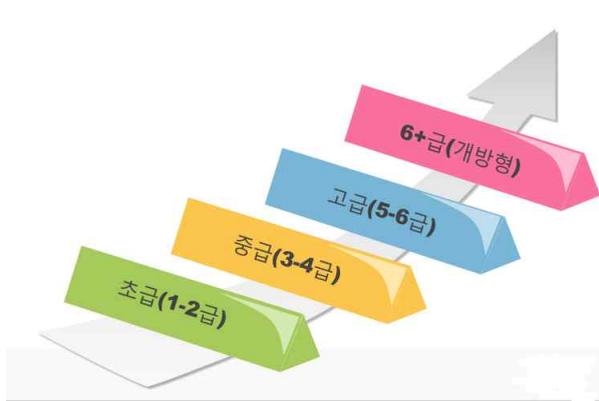
한국어능력시험	표준 교육과정
고급(5-6급)	최상급(7급)
중급(3-4급)	고급(5-6급)
초급(1-2급)	중급(3-4급)
	초급(1-2급)

하지만 이러한 기존의 7등급 체계는 대부분 6등급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어교육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교육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해외의 경우 7등급으로 이루어진 교육 과정을 그대로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교육 운영의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발견되었다. 국내 교육 기관에서도 기존 학습자의 특성상 7등급 체계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곳은 많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한국어능력시험 역시 6등급 체계로 이루어져 국가에서 개발한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과 국가 주도의 한국어 능력시험(TOPIK) 간의 등급 차이로 인해 연구자와 교수자, 학습자들에게 혼란이 야기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하여 7등급 체계에서 6등급 체계로 전환해 상세화, 명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한국어 교육과정의 범용화를 위해서는 등급의 적절성을 다시 검토하고 사용자의 교육 환경과 조건에 맞게 재설계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에 제안 과정, 착수 보고회, 연구진 회의, 자문 위원회 등을 거쳐 기존의 7등급을 ‘6등급 체계’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사용의 편리성과 적용의 실용성을 고려하여 기존 7등급 체계를 6등급 체계로 조정하게 되더라도, 여전히 6급 이상 수준의 목표와 내용에 대한 요구는 남아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급 단계 이상의

도달 목표를 한정하지 않고 개방형으로 두어 '6+등급'을 설정하여 6등급을 상회하는 목표 기술을 남겨 두었다. 6+등급은 개방형으로, 6급의 목표와 내용 기술을 웃도는 한국어교육의 모든 목표와 내용을 포함하는 등급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1~6급의 목표와 내용이 구체적인 것에 비해 6+등급은 개방형으로 설정하여, 구체적인 등급의 도달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림 2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2017)의 등급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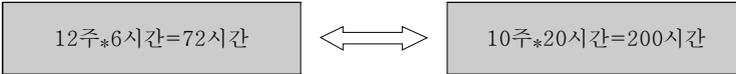
3. 표준 교육과정의 교육 시간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교육 시간은 교육과정 설계·운영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 한국어교육은 현장의 특성에 따라 교육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화된 교육 시간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국내외 지역별·기관별 사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한 교육 시간을 설정하는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으로 전략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설계·운영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기준으로서의 교육 시간에 관한 정보도 여전히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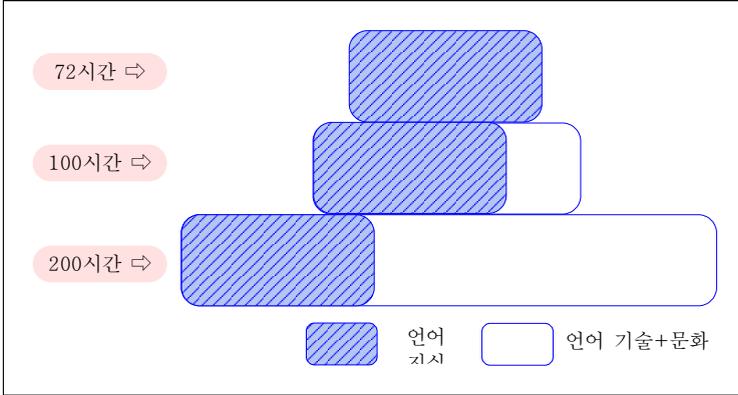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1단계 연구(2010)에서는 표준 교육과정의 교육 시간을 최대 시간과 최소 시간으로 설정하여 교육 여건과 환경, 교육 대상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에 제시된 표준 교육 시간은 각 등급 당 72시간~200시간이었는데, 이는 해외 세종학당, 한국문화원, 한글학교 등에서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후 72시간(12주*6시간)을 최소 시간으로 설정하고 국내 정규 기관 및 한국어능력 시험이 채택하고 있는 200시간(10주*20시간)을 최대 시간으로 설정하여 산출한 것이다.

그림 3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2010, 2011)의 표준 교육과정의 교육 시간



1단계 연구에서는 200시간, 144시간, 100시간, 72시간 등으로 교육 기관의 운영 여건에 따라 맞춤형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동일한 200시간, 144시간 모형이라 하더라도 학습 대상과 학습 목적에 따른 변이형을 함께 제시한 바 있다. 1단계 연구에서 제시한 예시 모형 72시간, 100시간, 200시간의 각 영역별 비중을 그림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으며 이 예시 모형을 기준으로 각 기관별 교육 시간 모형에서 내용 기술의 영역별 비중이 어떻게 배분될 수 있을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2017)의 각 시간별 영역 비중



최소 필요 교육 시간인 72시간과 최대 필요 교육 시간인 200시간은 귀납적 방식으로 이끌어 낸 교육 시간이지만, 72시간, 100시간, 200시간 등으로 다양하게 변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때 72시간을 배운 학습자와 200시간을 배운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을 동일하게 볼 수 있을지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한국어교육에 노출된 시간이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에 교육 시간의 차이에 따른 한국어 숙달도를 동일한 기준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해당 등급의 언어 지식(어휘, 문법, 발음)은 비슷하게 배운다고 보기 때문에 언어 지식적 측면에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의 언어 기술 활동과 연계된 교육 시간, 문화와 관련한 교육 시간은 차이가 있으며 교육 기관별 운영 환경에 따라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4. 표준 교육과정의 등급 범주 설정 및 활용

표준 교육과정의 등급 체계, 교육 시간과 더불어 등급의 범주는 교육 과정의 내용 기술과 긴밀한 관련을 갖는다. 4단계 연구에서는 기존의 1~3단계 연구에서 제시한 등급의 전체 내용을 검토한 후에 범주별 세부 내용을 검토하였고 기능, 주제, 문화 범주 설정의 타당성 및 각급 총괄 목표, 목표 기술, 내용 기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 기술하였다. 등급 기술의 영역은 주제, 기능 및 과제, 언어 지식, 언어 기술, 텍스트, 문화, 평가로 구분하였다.

또한, 4단계 연구에서는 3단계 연구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던 언어 지식 중 ‘어휘’와 ‘문법’을 보완하였다. 어휘는 언어 지식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다. ‘한국어교육 어휘 내용 개발(1단계-4단계)’에서 선정한 어휘 목록을 초·중·고급의 3단계 체계에서 6등급 체계로 세분화하여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과 동일한 등급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수정·보완 작업을 수행하였다. 문법 목록의 경우 먼저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1단계-4단계)’에서 선정한 초급과 중급의 문법·표현 목록을 바탕으로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2단계)’의 목록 중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1단계-4단계)’의 초급과 중급에서 선정되지 않고 남은 초급과 중급, 그리고 고급 단계의 문법 목록을 보충한 후 1급에서 6급으로 등급 체계를 세분화하여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타 영역과 동일한 등급 체계를 갖추도록 하였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는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먼저 학습자의 숙달도 등급을 파악한 후 총괄 목표를 확인한다. 그 후에는 등급의 총괄 목표에 맞는 주제 항목을 점검하고 선정한 주제 항목으로 구현 가능한 기능과 과제를 선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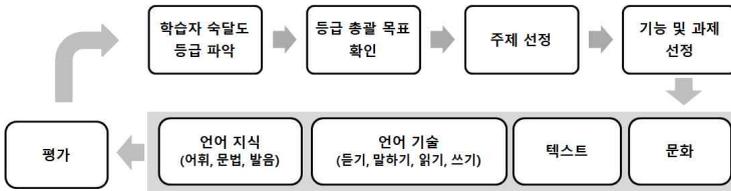
다음으로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목표로 기능과 과제를 구현할 수 있는

언어 기술 항목이 선정되고, 각각의 기술 항목의 내용이 되는 어휘, 문법, 발음의 언어 지식을 선정할 수 있다. 그 과정 가운데 기능과 과제에 적합한 텍스트나 주제와 연계되는 문화 항목까지 배열되면 교육과정의 일부가 완성된다. 언어 기술과 언어 지식 항목 가운데 어떤 것을 먼저 선정할 것인가는 기능과 과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며, 두 영역 간의 등급 간 균형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텍스트의 경우에는 언어 기술을 정교화하는 과정 가운데 선정 및 배열 작업이 수반될 것이다.

마지막 작업으로 교사는 평가의 방법과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평가는 단순히 학습자의 능력을 진단하는 기능에서 나아가 평가의 결과가 다시 교육과정 설계의 시작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적인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과정에 따라 현장의 교사나 연구자들이 교육과정 설계나 교재 개발 등의 작업을 수행할 때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연구의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을 활용한 교육과정 설계 절차



5. 등급별 총괄 목표의 수정 및 보완

총괄 목표는 각 등급의 한국어 학습이 완료되었을 때 학습자가 도달해야 하는 목표이며 각 등급의 세부 목표와 세부 내용을 종합하여 기술해야

한다. 그러므로 등급별 총괄 목표는 각 등급의 주제, 언어 지식, 언어 기술, 문화의 특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되 포괄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도록 기술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어 학습의 해당 단계가 끝날 때 학습자가 성취해야 할 각 등급의 핵심적인 목표로서 학습자들이 성취해야 할 각 등급의 목표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진술해야 할 것이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유럽공통참조기준(CEFR), 국제한어 교학통용과정, 한국어능력시험(TOPIK) 등 국내외 주요 언어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해당 교육과정의 총괄 목표는 다음과 같다.

표 1 표준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관련 문헌 자료 등급별 비교

등급	구분	목표
초급	한국어 능력시험	‘자기소개 하기, 물건 사기, 음식 주문하기’ 등 생존에 필요한 기초적인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자기 자신, 가족, 취미, 날씨’ 등 매우 사적이고 친숙한 화제에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 약 800개의 기초 어휘와 기본 문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간단한 문장을 생성할 수 있다. 간단한 생활문과 실용문을 이해하고, 구성할 수 있다.
	유럽공통참조기준	구체적인 욕구 충족을 지향하는 익숙한 일상적 표현들과 아주 간단한 문장들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소개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신상에 관하여(예를 들어 어디에 사는지,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이런 종류의 질문에 답할 수 있다. 대화 상대자가 천천히 분명하게 말하고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으면, 간단한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또한 아주 직접적으로 중요한 분야(예를 들어 신상, 가족, 물건 사기, 업무, 가까운 주변 지역에 관한 정보)와 관련된 문장과 자주 사용되는 표현들을 이해할 수 있다. 익숙하고 일반적인 문제에 대한 간단하고 직접적인 정보 교환이 주가 되는 경우, 반복적인 단순한 상황에서 의사소통할 수 있다. 간단한 수단으로 자신의 출신과 교육, 직접적인 주변 지역, 직접적인 욕구와 관련된 것을 기술할 수 있다.
	국제한어 교학통용과정	학습자는 개인 또는 일상생활의 기본 언어 자료를 이해할 수 있고 단어나 구의 다시 말하기, 외우기 및 받아쓰기를 비교적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후 나아가 중국어 학습에서 학습자의 흥미와 자신감을 고양 시키도록 한다. 또한 학습자는 교사의 지도하에 중국어로서의 간단한 학습 전략, 자원(resource) 전략 등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자로

등급	구분	목표
		하여금 중국 문화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고, 초보적인 다문화 의식과 국제적인 안목을 갖도록 한다.
중급	한국어 능력시험	한국어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출입국 관리 사무소, 여행사 등의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설명하기, 묘사하기, 거절하기 등의 언어 기능을 기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자신에게 친숙한 사적인 소재뿐만 아니라 직업, 사건, 국가, 생활, 문화 등의 친숙한 사회적 소재를 문단 단위로 표현하거나 이해할 수 있다. 문어와 구어의 기본적인 특성을 구분해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공공시설 이용과 사회적 관계 유지에 필요한 대부분의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간단한 서류 작성 및 보고 등 일반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뉴스, 신문 기사 중 비교적 평이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소재를 비교적 정확하고 유창하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 자주 사용되는 관용적 표현과 대표적인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문화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
	유럽공동참조기준	명확한 표준어를 사용하며 업무, 학교, 여가 시간 등과 같이 익숙한 것들이 주제가 될 때, 요점을 이해할 수 있다. 해당 언어 사용 지역을 여행하면서 마주치는 대부분의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다. 익숙한 주제와 개인적인 관심 분야에 대해 간단하고 조리 있게 표현할 수 있다. 경험과 사건에 대해 보고할 수 있고, 꿈과 희망, 목표를 기술할 수 있으며, 계획과 견해에 대해 짚막하게 근거를 제시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구체적이거나 추상적인 주제를 다루는 복합적인 텍스트의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의 전문 토론도 이해한다. 쌍방 간에 큰 노력 없이 원어민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할 수 있을 만큼 준비 없이도 유창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폭 넓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분명하고 상세하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시사 문제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다양한 가능성들의 장단점을 제시할 수 있다.
고급	한국어 능력시험	자주 사용되는 관용적 표현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문화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전문 분야에서의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친숙하지 않은 소재에 관해서도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다. 공식적·비공식적 맥락과 구어적·문어적 맥락에 따라 언어를 적절히 구분해 사용할 수 있다.
	유럽공동참조기준	구체적이거나 추상적인 주제를 다루는 복합적인 텍스트의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전문 토론도 이해한다. 쌍방 간에 큰 노력 없이 원어민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할 수 있을 만큼 준비 없이도 유창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폭 넓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분명하고 상세하게 의사 표현할 수 있다. 시사 문제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다양한 가능성들의 장단점을 제시할 수 있다.
	국제한어교학통용과정	사회적인 범위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다. 친숙한 주제에 대해 묘사, 설명, 비교를 하여 더 정확한 문장을 생산할 수 있다. 중국어 학습에서 자신감과 흥미를 보여 준다. 학습 전략, 의사소통 전략, 자원 전략, 다전공 전략의 지식을 일부 숙달한다. 입문 단계의 중국 문화 지식을 습득하고, 예비적 수준의 교차 문화적 인식과 국제적 관점을 습득한다.

등급	구분	목표
	한국어 능력시험	전문 분야에서의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비교적 정확하고 유창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친숙하지 않은 주제에 관해서도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다. 원어인 화자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는 못하나 기능 수행이나 의미 표현에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최상급	유럽공통 참조기준	수준 높은 비교적 긴 텍스트의 폭넓고 다양한 주제를 이해하고 내포된 의미도 파악할 수 있다. 준비 없이도 유창하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이때 길고 확연히 드러나게 어구를 찾는 일이 별로 없다. 사회생활, 직업 생활, 대학 교육과 직업 교육에서 언어를 효과적이고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 복합적인 사안에 대해 분명하고 체계적이며 상세하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이때 텍스트 연결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읽거나 듣는 것을 거의 모두 힘들이지 않고 이해할 수 있다. 문어나 구어로 된 다양한 자료에서 나온 정보를 요약할 수 있으며, 이때 그 근거와 설명을 조리 있게 재구성할 수 있다. 준비 없이도 아주 유창하고 정확하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복합적인 사안을 다룰 때에도 비교적 섬세한 의미 차이를 구별하여 표현할 수 있다.
	국제한어 교학통용 과정	폭넓은 주제를 이해하고 올바른 문장을 찾아낼 수 있으며, 문단 단위로 결속력 있는 담화를 구성해 낼 수 있다.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유창하고 즉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중국어 학습에 자신감과 깊은 흥미를 가지고 있다. 학습 전략, 의사소통 전략, 자원 전략, 다문화 전략과 관련된 지식에 통달하였다. 중국 문화 지식에 대한 지식을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고, 문화 간 인식이나 국제적 관점 등을 확보하고 있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이러한 국내외의 언어 교육과정의 등급 분류와 목표를 바탕으로 한국어교육에 적합한 총괄 목표를 설계하였다.

3단계 연구에서는 1단계 연구에서 제시한 총괄 목표 기술 방식을 재검토하여 기존의 7등급 체제를 6등급으로 전환하였으며 등급 간의 연계성과 계열성을 중심으로 수정 및 보완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해당 급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다른 연구에서의 관련 등급과의 대조 검토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등급 간의 연계성과 계열성을 중심으로 해당 등급의 특성을 단순하면서도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정 및 보완하여 총괄 목표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3단계 연구를 통해 수정 및 보완된

등급별 총괄 목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1, 2, 3단계 연구의 총괄 목표

등급	기존 연구	내용
1급	1, 2단계	인사하기, 소개하기 등 일상적인 화제로 의사소통할 수 있으며, 요일, 시간, 장소 등의 기본적인 화제로 구성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일상 생활에 관한 간단한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으며, 구, 절 단위 혹은 짧은 문장 단위의 매우 간단한 문장들을 이해하고 쓸 수 있다. 자신의 생활이 중심이 되는 주변 사물과 장소 등과 관련된 어휘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자모의 음가, 한국어의 음절 구조, 한국어 기본 문장의 억양을 원어인 화자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발음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가장 기본적인 한국의 일상생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3단계	일상생활에서 정형화된 표현(인사, 감사, 사과 등)으로 간단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소개할 수 있다. 개인 신상에 관한 간단한 정보를 묻고 답할 수 있다. 또한 가장 기본적인 한국의 일상생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2급	1, 2단계	슈퍼, 식당 등 일상적인 공공장소에서 자주 접하는 화제로 의사소통할 수 있으며, 우체국, 은행 등의 공공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들로 구성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뿐만 아니라 친교, 문제 해결 등의 특정 상황에 대한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으며, 일상적인 주제와 관련된 짧고 간단한 글을 읽고 쓸 수 있다. 슈퍼, 식당, 은행, 우체국 등의 공공장소에서 사용되는 어휘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복잡한 음운 변화를 이해하여 천천히 발화하면 비교적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한국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3단계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제로 간단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자주 가는 장소(마트, 식당 등)에서 필요한 정보를 묻고 답할 수 있다. 또한 기본적인 한국의 일상생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3급	1, 2단계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별 어려움 없이 의사소통에 임할 수 있으며, 직업, 사랑, 결혼 등의 비교적 친숙한 사회적 소재와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 최소한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일상적이고 친숙한 소재에 대한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으며, 개인적이고 친숙한 내용의 글을 읽고, 간단하게 설명하는 글을 쓸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어휘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빈도수가 높은 관용어를 이해할 수 있다. 복잡한 음운 변화를 이해할 수 있으며, 단어 경계를 넘어서 단위에서 음운 변동 규칙을 스스로 적용하여 개별 음운은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한국인의 일상생활에 반영된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나이, 성, 지위 등 특수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특징 등을 이해할 수 있다.
	3단계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주제(직업, 사랑, 교육 등)와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 최소한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간

등급	기준 연구	내용
		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의사소통 상황에 따라 문어와 구어를 구분하여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한국인의 일상생활에 반영된 나이 등과 관련된 사회 문화를 이해할 수 있으며 자국의 문화와 비교할 수 있다.
4급	1, 2단계	공적인 맥락과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직장 생활 등 기본적인 사회적 관계에 필요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업무나 공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으며, 직업, 사랑, 결혼 등의 친숙한 사회적 소재에 대한 글을 읽고 쓸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친숙하지 않은 어휘를 사용할 수 있으며, 빈도수가 높은 관용어, 사자성어, 속담 등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문어와 구어의 기본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음운 변동을 능숙하게 적용하여 원어인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발음과 억양을 구사할 수 있다. 공격적이고 격식적인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으며, 대중 문화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다.
	3단계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주제(직업, 사랑, 교육 등)와 업무에 대해 비교적 유창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다양한 분야의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대상과 상황에 따라 격식과 비격식을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한국인의 일상생활에 반영된 나이 등과 관련된 사회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징을 이해하고 자국의 문화와 비교할 수 있다.
5급	1, 2단계	정치, 경제, 사회 등 사회적 소재를 중심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의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 사자성어, 속담, 시사 용어,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자주 쓰이는 어휘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문법의 미묘한 의미 차이를 이해하고 비교적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다. 억양에 나타난 의미 차이를 파악하여 발화 상황에 맞게 어조를 바꾸어 말할 수 있다. 한국 문화 속에 반영된 한국인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으며 한국 문화와 자국의 문화를 비교하여 문화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다.
	3단계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추상적 주제(정치, 경제, 과학 기술 등) 및 자신의 직업이나 학문적 영역에 대해 의사소통할 수 있다. 자신의 직업이나 학문적 영역에 대해 대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으며 공식적인 맥락에 맞게 격식을 갖추어 말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사회 제도를 이해할 수 있으며 자국의 문화를 비교하여 문화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다.
6급	1, 2단계	사회적, 추상적 주제를 다루는 의사소통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전문 분야나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 소재들로 이루어진 글이나 발표, 토론, 대담 등을 이해할 수 있다. 예시, 비유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폭넓고 다양한 주제에 대한 글을 쓸 수 있으며, 어려운 사자성어, 속담, 사회적 주제와 관련된 대부분의 어휘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방언을 듣고 이해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문법을 맥락과 상황에 따라 적절히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성취 문화, 제도문화, 생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문화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등급	기존 연구	내용
	3단계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추상적 주제(정치, 경제, 과학 기술 등)를 다루는 의사소통에 참여하여 유창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 분명하고 상세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한국인이 즐겨 사용하는 담화, 텍스트 구조를 이용해 유창하고 정확하게 말을 하거나 글을 쓸 수 있다. 또한 한국 문화 속에 반영된 한국인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으며 자국의 문화를 비교하여 문화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다.
7급	1, 2단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폭넓은 주제에 대해 분명하고 상세하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으며, 의견 조율, 협상 등의 다소 복잡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발표, 토론, 업무 보고서, 사업 계획서 등 자신의 전문 분야와 관련된 학술 활동과 업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거의 오류 없이 대부분의 문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별 어려움 없이 어감 차이를 고려하여 맥락에 맞는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매우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어민에 가까운 발음과 억양을 구사할 수 있다. 한국의 경제, 문화, 과학,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논의와 성취를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다.
	3단계	7급 체제를 6급의 개방형인 6+등급으로 변경하였음.

1급과 2급인 초급 단계에서는 일상생활과 관련한 주제를 중심으로 하고, 3급과 4급인 중급 단계에서는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주제, 5급과 6급인 고급 단계에서는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추상적 주제를 중심으로 한다. ‘일상적인 것 → 친숙한 것 → 친숙하지 않은 것’으로 범위를 확장하는 체계를 가지며, 사회적이고 추상적인 주제도 중급에서는 친숙한 것을 중심으로 하나, 고급 단계에서는 친숙하지 않은 것으로 확장된다. 언어 사용 능력에서도 ‘간단한 의사소통(1·2급) → 최소한의 의사소통(3급) → 비교적 유창한 의사소통(4급) → 대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음(5급) → 유창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음(6급)’으로 확장된다. 이러한 총괄 목표는 각 범주에서의 등급별 목표와 긴밀한 연관 관계를 갖는다.

4단계 연구에서는 3단계 연구에서 제시된 총괄 목표의 내용을 등급별 계열 성과 연계성을 가지도록 등급별로 해당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먼저 과제의

측면에서는 초급의 경우 일상생활에서의 간단한 의사소통, 중급은 친숙한 사회적 주제를 다룬 의사소통, 고급에서는 덜 친숙한 사회적 주제를 다룬 의사소통으로 확대하였으며 언어 사용 맥락의 경우 초급 단계에서는 일상적인 영역, 중급 단계에서는 친숙한 사회적 영역, 고급에서는 덜 친숙한 사회적 영역으로 단계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총괄 목표 기술 순서는 ‘과제·기능 → 주제 → 언어 사용역과 격식 → 문화’의 순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반영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최종 총괄 목표는 아래와 같다.

표 3 4단계 최종 등급별 총괄 목표

등급		총괄 목표
초급	1급	정형화된 표현을 이용해 일상생활에서 매우 간단한 의사소통(자기 소개, 인사, 물건 사기 등)을 할 수 있다. 기초적 어휘와 간단한 문장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한국의 일상생활 문화를 이해하고 자국의 문화와 비교할 수 있다.
	2급	기초 어휘와 단순한 문장을 이용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마주치는 간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다루는 개인적·구체적 주제에 대해 간단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기본적인 한국의 일상생활 문화를 이해하고 자국의 문화와 비교할 수 있다.
중급	3급	일상생활에서 자주 마주치는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으며, 친숙한 사회적 맥락에서 요구되는 과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주제와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 간단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문어와 구어를 어느 정도 구분해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한국의 일상생활 문화와 대표적인 행동 문화, 성취 문화를 이해하고 자국의 문화와 비교할 수 있다.
	4급	친숙한 사회적 맥락에서 요구되는 과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으며,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기본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주제와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 비교적 유창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문어와 구어를 적절히 구분해 사용할 수 있으며, 대상과 상황에 따라 격식체와 비격식체를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행동 문화, 성취 문화를 이해하고 자국의 문화와 비교할 수 있다.
고급	5급	덜 친숙한 사회적 맥락에서 요구되는 과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며, 자신의 업무나 학업과 관련된 기본적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추상적 주제 및 자신의 직업

등급	총괄 목표
	이나 학문 영역에 대해 간단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공식적인 맥락에서 격식을 갖추어 의사소통할 수 있다. 한국의 다양한 행동 문화, 성취 문화 및 대표적인 관념 문화를 이해하며 자국의 문화와 비교하여 문화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다.
6급	덜 친숙한 사회적 맥락에서 요구되는 과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으며, 자신의 업무나 학업과 관련된 의사소통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추상적 주제 및 자신의 직업이나 학문 영역에 대해 비교적 유창하게 다룰 수 있다. 한국인이 즐겨 사용하는 담화·텍스트 구조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다. 한국의 다양한 행동 문화, 성취 문화, 관념 문화를 이해하며 자국의 문화와 비교하여 문화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다.

6. 결론

이 글에서는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등급과 목표에 대해 정리하였다. 2017년 연구는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을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연구를 우선 수정·보완하고 점검하였다. 등급 체계를 ‘6등급’ 체계로 수정하고 교육 시간을 72시간에서 200시간의 탄력적 적용으로 구체화하였고, 등급 범주는 어휘와 문법 세부 범주를 추가하여 주제, 기능, 언어 기술, 언어 지식, 문화, 평가로 항목을 구성하였으며, 등급별 총괄 목표를 보다 구체화하여 서술하였다.

한편, 이 글에서는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등급과 목표만을 서술하고 있으나, 실제 2017년 연구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먼저 앞서 언급한 등급과 목표를 바탕으로, 등급별 기술 내용을 주제, 기능, 언어 지식(어휘, 문법, 발음, 텍스트), 언어 기술(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화, 평가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또한, 교육과정의 실제 적용을 위한 유형별 교육과정을 해외 중등학교의 제2외국어 과정, 해외 대학의 전공 과정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중등학교 제2외국어 과정에서는 국내의 중등학교 한국어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유럽공통참조기준을 참고하는 한편,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진행하여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구체적인 방안을 서술하고 개발의 예까지 제시하였다. 대학 과정에서는 해외 각국 대학 한국어 교육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학 한국어 교원을 상대로 설문을 진행하여 개발 방안과 그 예시를 제시하였다.

현재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국내의 다양한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교육 기관 운영, 교재 개발, 연구, 조사 등 다양하게 적용 및 활용되고 있다. 앞으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이 더욱 다양한 학습자와 학습 환경에 실제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각적인 연구가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II.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구성과 내용

1. 들어가며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한국어 교육과정이 없는 것에 대한 요구로 연구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총 4단계에 걸쳐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먼저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1단계, 2단계 연구를 통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한국어 교육과정의 범주와 항목, 세부 내용을 마련하여 한국어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 영역에서 참조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리고 한국어교육 현장에 다각적인 변화가 나타남에 따라 표준 교육과정의 보완이 3단계 연구인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연구를 통해 사용자의 측면에서 이루어졌고 그 연장선상에서 4단계 연구가 이루어졌다. 4단계 연구인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에서는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변이형을 개발하고 교육과정의 내용을 세목화하였다. 이 글에서는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해보고자 한다.

2.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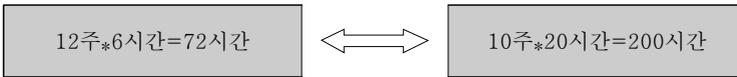
2.1. 표준 교육과정의 교육 시간

한국어교육 현장의 경우 학습자의 학습 목적, 기관의 운영 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획일화된 교육 시간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특히 국내외 지역별·기관별로 사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일률적으로 교육 시간을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지역과 기관에서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기준으로서의 교육 시간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표준 교육과정에서는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 시간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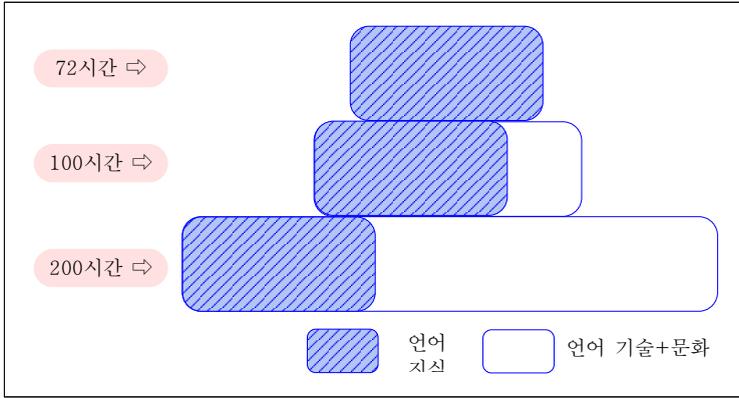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1단계 연구에서는 교육 시간을 최대 시간과 최소 시간으로 설정하여 각 지역과 기관의 교육 대상과 시간, 혹은 교육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소 72시간 (12주*6시간)에서 200시간(10주*20시간)으로 교육 시간을 설정하였다.

그림 1 표준 교육과정의 교육 시간



이 연구의 변이형으로 제시된 해외 중등학교, 대학 기관, 세종학당, 사회 통합 프로그램의 경우 각 기관의 여건에 따라 200시간, 144시간, 100시간, 72시간 등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다. 이렇게 탄력적으로 교육 시간을 운용하는 경우 무엇을 얼마나 가르쳐야 하는가의 문제가 남게 된다. 따라서 72시간, 100시간, 200시간의 각 영역별 비중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여 각 지역과 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체 교육 시간이 다를 경우 해당 등급의 언어 지식(어휘, 문법, 발음) 영역의 비중은 유사하며 언어 기술(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및 문화와 연계된 교육 시간은 다음과 같이 교육 기관별 운영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림 2 각 시간별 영역 비중



2.2. 표준 교육과정의 등급 범주 설정

표준 교육과정의 등급 체계, 교육 시간과 더불어 등급의 범주는 교육과정의 내용 기술과 긴밀한 관련을 갖는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는 주제, 기능 및 과제, 언어 지식(어휘, 문법), 언어 기술(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발음, 텍스트, 문화, 평가로 교육과정을 범주화하고 각 급의 총괄 목표와 내용 기술을 통해 교육과정 구성의 편리성을 도모하였다. 범주화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1 등급 범주 설정

범주	항목
주제	17개 범주 85개 항목 제시
기능 및 과제	5개 범주 52개 항목 제시
언어 지식	- 어휘: 10,635개 제시(1급 735개, 2급 1,100개, 3급 1,655개, 4급 2,200개, 5급 2,365개, 6급 2,580개) - 문법: 336개 제시(1급 45개, 2급 45개, 3급 67개, 4급 67개, 5급 56개, 6급 56개)
발음	5개 범주 72개 항목 제시
언어 기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급별로 항목과 내용 제시
텍스트	4개 범주 144개 항목 제시
문화	3개 범주 100개 항목 제시
평가	등급별로 항목과 내용 제시

3.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내용

3.1. 주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주제 범주는 모두 17개 범주 85개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다. 1단계 연구에서는 각 급별로 주제를 선정하여 모두 78개의 주제를 선정하였다. 그 후 2단계에서 88개의 구체적인 주제 항목을 설정하였다. 이후 3단계 연구에서 유럽 공통 참조, 한국어능력시험(TOPIK) 문제은행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김정숙 외, 2013), 영어과 교육 과정 개정안 개발 연구(2011), 한국어교육 어휘 내용 개발 1단계(강현화 외, 2012), 2단계(강현화 외, 2013), 3단계(강현화 외, 2014)의 주제 목록을 살펴본 후 최종 수정된 범주의 하위 항목에 해당하는 분류를 한국어교육의 특성과 상황에 맞추어 선정하여 최종 주제 범주의 목록을 확정하였다.

표 2 주제 목록

범주	항목
개인 신상	이름, 전화번호, 가족, 국적, 고향, 성격, 외모, 연애, 결혼, 직업, 종교 등
주거와 환경	장소, 숙소, 방, 가구·침구, 주거비, 생활 편의 시설, 지역, 지리, 동식물 등
일상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 등.
쇼핑	쇼핑 시설, 식품, 의복, 가정용품, 가격 등
식음료	음식, 음료, 배달, 외식 등
공공 서비스	우편, 전화, 은행, 병원, 약국, 경찰서 등
여가와 오락	휴일, 취미·관심, 라디오·텔레비전, 영화·공연, 전시회·박물관, 독서, 스포츠 등
일과 직업	취업, 직장생활, 업무 등
대인 관계	친구·동료·선후배 관계, 초대, 방문, 편지, 모임 등
건강	신체, 위생, 질병, 치료, 보험 등
기후	날씨, 계절 등
여행	관광지, 일정, 짐, 숙소 등
교통	위치, 거리, 길, 교통수단, 운송, 택배 등
교육	학교 교육, 교과목, 진로 등
사회	정치, 경제, 범죄, 제도, 여론, 국제 관계 등
예술	문학, 음악, 미술 등
전문 분야	언어학, 과학, 심리학, 철학 등

최종 주제 항목은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2단계의 등급 선정 제안을 기준으로 제시 범위를 설정하고 중점 등급(●)을 표시하여 사용의 편리성을 도모하였다. 빗금 표시된 등급은 해당 주제가 등장할 수 있는 숙달도를 표시한 것이며, 중점 등급(●)은 그중에서 집중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단계를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어 개인 신상의 범주에서 ‘이름’은 초급인 1급과 2급에 나타나는 주제이나, 1급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주제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숙달도별 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주제 등급화의 예

구분		급					
범주(17범주)	항목(85개)	1	2	3	4	5	6
개인 신상	이름	●					
	전화번호	●					
	가족	●					
	국적	●					
	고향	●					
	성격			●			
	외모			●			
	연애				●		
	결혼				●		
	직업				●		
	종교						●

3.2. 기능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1단계 연구에서는 기능 대신 각 등급 별 과제를 간단하게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2단계 연구에서 과제의 상위 단계를 기능으로 설정하고 한국어 교재와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총 90개의 기능을 설정하였다. 3단계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꾸준히 제기되어 온 기능 항목에 대한 관점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즉 교육과정에서 제시될 수 있는 ‘기능(Functions)’은 언어 형태를 기반으로 의사소통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간 한국어교육에서 혼재되어 온 사회적 기능(Social Function)을 배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존의 90개의 기능 항목을 수정·보완하였다. 먼저 한국어교육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능의 특징을 반영하여 정보 요청하기와 정보 전달하기, 설득하기와 권고하기, 태도 표현하기, 감정 표현하기, 사교적 활동하기 등 모두 5개의 대범주를 설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설정된 기능 범주와 그에 따른 세부 항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 기능 목록

범주	항목
정보 요청하기와 정보 전달하기	설명하기, 진술하기, 보고하기, 묘사하기, 서술하기, 기술하기, 확인하기, 비교하기, 대조하기, 수정하기, 질문하고 답하기
선택하기와 권고하기	제안하기, 권유하기, 요청하기, 경고하기, 충고하기/충고 구하기, 조언하기/조언 구하기, 허락하기/허락 구하기, 명령하기, 금지하기, 주의 주기/주의하기, 지시하기
태도 표현하기	동의하기, 반대하기, 부인하기, 추측하기, 문제 제기하기, 의도 표현하기, 바람·희망·기대 표현하기, 가능/불가능 표현하기, 능력 표현하기, 의무 표현하기, 사과 표현하기, 거절 표현하기
감정 표현하기	만족/불만족 표현하기, 걱정 표현하기, 고민 표현하기, 위로 표현하기, 불평·불만 표현하기, 후회 표현하기, 안도 표현하기, 놀람 표현하기, 선호 표현하기, 희로애락 표현하기, 심정 표현하기
사교적 활동하기	인사하기, 소개하기, 감사하기, 축하하기, 칭찬하기, 환영하기, 호칭하기

기능 범주 역시 주제 범주와 마찬가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급을 빗금으로 표시하여 제시하였으며 다소 넓은 범위의 등급 설정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사용의 어려움을 상쇄하기 위해 중점 등급(●)을 함께 제시하였다.

그림 4 기능 등급화의 예

구분		급					
대범주(6)	항목(63)	1	2	3	4	5	6
정보 요청하기와 정보 전달하기	설명하기	■	■	■	●	■	■
	진술하기	■	■	■	■	■	●
	보고하기	■	■	■	■	●	■
	묘사하기	■	■	■	●	■	■
	서술하기	■	■	●	■	■	■
	기술하기	■	■	■	■	■	●
	확인하기	■	■	●	■	■	■
	비교하기	■	■	■	●	■	■
	대조하기	■	■	●	■	■	■
	수정하기	■	■	■	●	■	■
	질문하고 답하기	■	●	■	■	■	■

3.3. 언어 지식

3.3.1. 어휘

어휘의 경우 ‘한국어교육 어휘 내용 개발(1-4단계)’의 어휘 목록을 그대로 수용하고 초·중·고급의 3단계 체계에서 6등급 체계로 어휘 등급을 세분화하여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등급 체계에 맞추고자 하였다. 이는 한국어 교수 현장에서의 활용을 고려한 것이다. 6등급 체계로 세분화된 어휘 목록은 어휘의 교수요목 설계, 교재 개발, 평가 등에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객관적 지표에 의한 등급 조정은 본격적인 등급 세분화 작업에 앞서 ‘한국어교육 어휘 내용 개발(1-4단계)’에서 어휘 목록 선정에 사용한 어휘 빈도, 중복도 등의 계량적 자료를 참고하여 1차적인 등급을 판정하였다. 또한 한국어교육 전문가 및 어휘 전문가, 한국어 교사에 의한 주관적 평정(공평하고 올바른 평가)을 통해 선정된 목록들로, 등급 세분화 작업에서도 객관적 지표로 동일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여기에 한국어 교재의 최초 출현 등급과 등급별 중복도를 추가하여 참조하였는데, 이는 한국어 교재가 현행 한국어교육과정의 6등급 체계를 가장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자료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어 교재 외에는 6등급 체계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참조 자료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도 배제할 수는 없었다. 다음은 검토된 객관적 지표와 관련된 정보들을 엑셀에 입력하여 검토하였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1급 735, 2급 1,100, 3급 1,655, 4급 2,200, 5급 2,365, 6급 2,580으로 합계 10,635개의 어휘를 선정하였다.

국제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는 ‘한국어교육 어휘 내용 개발(1-4단계)’에서 선정한 초급 단계의 어휘를 1급과 2급, 중급 단계의 어휘를 3급과 4급, 고급 단계의 어휘를 5급과 6급으로 등급을 나누어 6등급 체계로 수정·보완하였다. 이는 교수 현장에서 어휘 외의 다른 언어 지식,

언어 기능과의 체계를 맞추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연구 결과는 한국어교육과정 및 교수요목 개발, 교재 개발, 교수·학습 자료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3.3.2. 문법

문법은 어휘와 함께 언어 지식의 핵심 영역이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활용 점검 및 보완 연구’에서 문법 영역은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1단계-4단계)’의 문법·표현 목록에 따르고 있다. 어휘 영역과 마찬가지로 국가 주도 사업 간의 연계를 통해 표준 교육과정으로서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1단계-4단계)’에서는 초급과 중급의 문법·표현 목록만을 선정하여 고급 단계의 문법·표현 목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6+등급의 체계에 따르고 있는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등급 체계와 달라 실제적인 적용에서 활용도가 다소 떨어질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1단계-4단계)’의 초급과 중급에서 선정되지 않고 남은 초급과 중급, 그리고 고급 단계의 문법 목록을 보충한 후 1급에서 6급으로 등급 체계를 세분화하여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타 영역과 동일한 등급 체계를 갖추고자 하였다.

문법의 대표형 설정은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의 지침에 따랐다.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에서는 결합하는 어휘의 품사, 시제 등에 의해 변이형이 포함될 경우 모국어 화자의 사용 빈도, 형태상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형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그러한 지침에 따라 고급 단계의 문법·표현 목록을 정비하였다. 이외에 해당 항목의 객관적 사용 지표와 전문가 평정의 과정을 통해 1급 45개, 2급 45개, 3급 67개, 4급 67개, 5급 56개, 6급 56개로 총 336개의 문법 항목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문법 목록은 어휘와 마찬가지로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수요목 개발, 교재 개발, 교수·학습 자료 개발 등 목적에 따라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다.

3.3.3. 발음

발음의 경우 최종적으로 개별 음소, 음절, 음운 현상, 초분절음, 현실 발음의 5개의 대분류, 72개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발음의 내용은 일반적인 음운론적 지식의 흐름을 고려하여 ‘음소-운소-음절-음운 현상-현실 발음’의 순으로 제시하였다. 중분류의 선정과 배열은 <표준 국어 문법>의 체계를 따랐으며 보편적인 언어 현상에서 덜 보편적 현상의 순서로 즉, ‘대치-탈락-첨가-축약’의 순을 따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음운 현상’의 항목들은 ‘경음화-비음화-유음화-구개음화-‘ㅎ’ 탈락-‘ㄴ’ 첨가-격음화’의 순서로 제시하였고, ‘현실 발음’은 ‘경음화-조음 위치 동화-반모음화-원순 모음화-모음 변화-‘ㅎ’ 탈락-‘ㄱ’ 첨가-모음 축약’의 순서로 제시하였다.

또한 소분류에 해당하는 세부 내용 항목은 자각과 산출로 나누어 제시한 후 교육이 시작되어야 하는 등급부터 끝나는 등급까지 표시하였다. 그리고 해당 항목의 교육이 여러 등급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을 중점 등급으로 따로 표시하였다. 특히 발음 교육은 학습 초기부터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는 영역으로 교육의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을 따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최종 등급 설정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고 중점 등급(●)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음은 발음 등급화의 예시이다.

그림 5 발음 등급화의 예

대분류	중분류	예시	내용	등급						
				1	2	3	4	5	6	
모음	단모음: ㅏ, ㅓ, ㅑ, ㅕ, ㅗ, ㅛ, ㅜ, ㅠ, ㅡ, ㅣ	단모음을 듣고 구별한다.		●						
		단모음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발음한다.		●						
	이중모음: ㅘ, ㅙ, ㅚ, ㅛ, ㅜ, ㅠ, ㅞ, ㅟ, ㅠ, ㅡ, ㅢ	이중모음을 듣고 구별한다.		●						
		이중모음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발음한다.		●						
	자음 다음의 'ㄴ'은 'ㄴ'로 발음하며 그 외에는 'ㄴ'과 'ㄹ'로 발음할 수 있음. 예) 무늬[무니], 회의[회의/회이], 우리의[우리의/우리애]	'ㄴ'이 달리 발음되는 환경을 알고 구별하여 발음한다.							●	

3.4. 언어 기술

언어 기술은 등급의 적절성, 기술의 균형성, 적용의 실용성이라는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원리에 따라 목표와 내용을 기술하였다.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1, 2단계 연구에서는 문헌 자료를 분석하고 한국어 교육 기관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표준 교육과정을 설계하였다. 문헌 조사와 실태 조사에서 도출된 항목을 중심으로 각 급별 목표와 내용을 구성한 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등급별 목표 및 내용 기술에 대해 '전문가 델파이(설문 조사에 의한 전문가의 기술 예측 방법)'를 실시하였으며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리고 3단계 연구에서 각 급별 세부 내용이 문법, 어휘, 발음 등의 언어 지식을 비롯하여 주제, 기능과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갖는지 확인하였다. 그리고 4단계 연구에서는 종합적 기술을 보완하였다.

3.4.1. 듣기

듣기 영역의 목표 기술은 듣기 영역의 구어적 특성과 이해 영역으로서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제시하였으며 듣기 영역에서의 맥락성은 대화 상대자나 담화 상황에 대한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내용 기술에서 어휘나 발음 등 언어 지식의 목표 기술에 해당되는 항목들은 제외하고 듣기 기술과 관련된 항목들로 내용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각 등급별 특징을 살펴보면 1급에서는 매우 간단한 대화와 정형화된 표현을 이해하는 데 목표를 두고 2급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상황에서의 담화 이해를 목표로 한다. 1급과 2급은 모두 일상생활에 대한 주제를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상황과 장르에 차이가 있다. 3급과 4급은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주제에 대한 담화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3급에서는 간단한 담화, 4급에서는 다양한 담화 이해 능력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또한 3급의 ‘일상생활에 관한 담화의 유창한 이해’라는 목표는 4급에서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업무 영역’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5급과 6급은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추상적 주제나 직업이나 학문 영역에서의 담화 이해를 목표로 하고 있다. 5급에서는 ‘간단한 담화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이 목표라면 6급에서는 ‘다양한 담화를 거의 대부분’을 이해하는 데 목표를 둔다. 듣기의 등급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 듣기의 등급별 내용

등급	내용
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상생활에 대한 쉽고 기초적인 대화를 듣고 이해한다.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정형화된 표현(인사, 감사, 사과 등)을 듣고 이해한다. 대화 상대방의 자기소개를 듣고 주요 정보를 파악한다. 한국어 모어 화자가 천천히 정확하게 발음하는 발화를 이해한다.(1, 2급)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상생활에 대한 간단한 대화를 듣고 내용을 이해한다. 질문, 제안, 명령 등의 표현을 듣고 적절하게 반응한다.

등급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에서 자주 가는 장소(식당, 가게, 영화관 등)에서 오가는 대화를 듣고 이해한다. • 공공장소(병원, 은행, 기차역 등)에서의 담화를 듣고 주요 내용을 이해한다. • 한국어 모어 화자가 천천히 정확하게 발음하는 발화를 이해한다.(1, 2급)
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주제(직업, 사랑, 교육 등)에 대한 담화를 듣고 주요 내용을 이해한다. • 동의, 반대, 금지 등의 표현을 듣고 화자의 발화 의도를 파악한다. • 격식적 상황과 비격식적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담화를 듣고 그 특성을 파악한다. • 비교적 복잡한 구성의 일상 대화를 듣고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한다. • 한국어 모어 화자의 자연스러운 억양과 속도의 발화를 대체로 이해한다.(3, 4급)
4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주제(직업, 사랑, 교육 등)에 대한 담화를 듣고 세부 내용을 이해한다. • 요청, 보고, 지시 표현을 듣고 적절하게 반응한다. • 인물과 사건을 설명하는 담화를 듣고 주요 내용을 이해한다. • 친숙한 업무 상황(간단한 회의, 요약 보고(브리핑), 업무 지시 등)이나 격식성이 낮은 공식적인 자리(회식, 동호회, 친목 모임 등)에서 오가는 대화를 어려움 없이 이해한다. • 한국어 모어 화자의 자연스러운 억양과 속도의 발화를 대체로 이해한다.(3, 4급)
5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추상적 주제(정치, 경제, 과학 등)에 대한 간단한 담화를 듣고 주요 내용을 이해한다. • 협상, 보고, 상담 담화를 듣고 화자의 의도를 파악한다. • 일반적인 주제의 학문적 대화나 강연, 토론을 듣고 세부 내용을 이해한다. • 일반적인 내용의 방송 담화(뉴스, 다큐멘터리, 생활 정보 등)를 듣고 내용을 대체로 이해한다. • 발음, 억양, 속도 등에서 개인차가 있는 한국어 모어 화자의 발화를 대부분 이해한다.(5, 6급)
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추상적 주제(정치, 경제, 과학 등)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담화를 듣고 대부분 이해한다. • 설득, 권고, 주장 담화를 듣고 논리적인 흐름을 파악한다. • 전문적인 주제의 발표, 토론, 강연 등을 듣고 세부 내용을 이해한다. • 시사적인 문제를 다룬 방송 담화(보도, 대담, 토론 등)를 듣고 인과 관계를 분석하며 내용을 추론한다. • 발음, 억양, 속도 등에서 개인차가 있는 한국어 모어 화자의 발화를 대부분 이해한다.(5, 6급)

3.4.2. 말하기

말하기에서의 목표 기술은 말하기 영역의 구어적 특징과 표현 영역의 특징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급 간 위계를 정밀하고 뚜렷하게 보이게 위해 용어와 표현을 가다듬고, 상황 및 담화 정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각

등급별 특징을 살펴보면 1급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오기는 매우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2급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주제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3급에서는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주제가 처음으로 등장하며 이에 대한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삼은 반면에 4급에서는 ‘비교적 유창하게’ 이를 묻고 답할 수 있다는 데에 차별성을 두었다. 3급에서 ‘자신의 관심 분야를 뚫으로써 4급 이상부터 나오는 업무, 학문 영역 및 전문 영역과 구별시켰다. 4급의 경우, 업무 관련 한국어가 처음으로 언급되는데 ‘친숙한 업무 상황(간단한 회의, 요약 보고(브리핑), 업무 지시 등)’이라는 제한을 뚫으로써 5급에서 ‘유창하고 타당하게’ 할 수 있는 것과 구분하였다. 한편 5급에서는 학문 영역에 대한 언급이 처음으로 등장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유창하고 타당하게’ 말하는 것까지 목표로 삼았다. 마지막으로 최상위 등급인 6급에서는 전문 분야에 대해 유창하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상황에서 한국어의 대화 및 담화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발화와 발화 전략을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추상적 주제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목표를 뚫으로써 5급 목표인 ‘자신의 의견을 유창하게 말할 수 있다’와 차별화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한 말하기의 등급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5 말하기의 등급별 내용

등급	내용
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자신을 소개한다. • 주변의 일상적인 대상이나 사물에 대해 말한다. • 자신과 관련된 일상생활에 대해 짧게 묻고 답한다. •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정형화된 표현(인사, 감사, 사과 등)을 적절하게 말한다. •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발음을 구사한다.(1, 2급)

등급	내용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숙한 상황에서 일상적으로 많이 말하는 주제(하루 일과, 취미, 취향 등)에 대해 비교적 잘 말한다. • 일상생활에서 자주 가는 장소(식당, 가게, 영화관 등)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는다. • 공공장소(병원, 은행, 기차역 등)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대화를 한다. •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발음을 구사한다.(1, 2급)
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주제(직업, 사랑, 교육 등)나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 간단한 대화를 한다. • 일상적으로 많이 말하는 주제(하루 일과, 취미, 취향 등)에 대해 유창하게 말한다. •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에 대해 간단한 답화를 말한다. • 대화 상대나 대화 상황에 따라 높임말과 반말을 적절하게 사용한다. • 비원어민의 발음과 억양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말한다.(3, 4급)
4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주제(직업, 사랑, 교육 등)나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비교적 유창하게 말한다. • 간단한 보고나 요청, 지시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한다. • 주변의 인물이나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 친숙한 업무 상황(간단한 회의, 요약 보고(브리핑), 업무 지시 등)이나 격식성이 낮은 공식적인 자리(회식, 동호회, 친목 모임 등)에서 격식과 비격식 표현을 구분하여 자신의 의견을 비교적 유창하게 말한다. • 비원어민의 발음과 억양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말한다.(3, 4급)
5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추상적 주제(정치, 경제, 과학 등)나 자신의 업무, 학문 영역에 대해 유창하고 타당하게 설명하거나 주장한다. • 업무, 학문 관련 공식 상황에서 격식에 맞게 말한다. • 다양한 매체를 통한 여러 유형의 대화나 담화 상황(화상 회의, 전화 회의, 프레젠테이션 등)에서 적절하게 말한다. • 상황에 따라 한국인과 같은 주저 표현을 전략적으로 사용한다. • 대부분의 상황에서 한국인과 같은 발음과 억양, 적절한 발화 속도를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유창하게 말한다.(5, 6급)
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추상적 주제(정치, 경제, 과학 등)나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한 입장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말한다. •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이나 대담에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논리적으로 말한다. • 대부분의 상황에서 적절한 한국어 대화 및 담화 구조와 전략을 알고 이를 자연스럽게 유창하게 말한다. • 대부분의 상황에서 한국인과 같은 발음과 억양, 적절한 발화 속도를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유창하게 말한다.(5, 6급)

3.4.3. 읽기

읽기의 등급별 목표와 내용에는 문어적 특성과 이해 영역으로서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였으며 장르와 전개 구조에 대한 기술이 포함되도록 보완하였다. 특히 내용 기술에는 읽기 능력에 따라 다룰 수 있는 글의 장르에 대한 기술을 설명적, 설득적 텍스트부터 문학 텍스트에 이르는 순서로 제시하였다.

1급에서는 매우 간단한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총괄 목표에 수준을 맞추었다. 2급의 목표에서는 다룰 수 있는 주제가 ‘일상생활과 관련된 글’이기에 ‘쉽고 간단한 생활문’으로 두어 해당 급에서 다룰 수 있는 텍스트의 정도성이 부각되도록 하였다. 1급과 2급에서는 ‘주제’라는 용어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주제의 범위는 ‘일상생활에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3급에서는 ‘구성이 복잡한 생활문과 실용문, 구성이 단순한 설명문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로 4급에서는 ‘설명문, 논설문, 짧은 문학 작품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로 제시하여 등급에 따라 다룰 수 있는 장르에 차이를 두었다. 그리고 ‘구성’이라는 용어는 말하기, 듣기, 읽기의 기술 영역에서 ‘구조’로 사용된 것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구조’로 사용하였다. 5급과 6급에서는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추상적 소재’로 목표를 제시하였다. 문학 작품에 대한 목표는 4급에서는 ‘쉽고 짧은 문학 작품’, 5급에서는 ‘비교적 짧고 단순한 문학 작품’, 6급에서는 ‘비교적 쉬운 문학 작품’으로 구체화하였다. 읽기의 등급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6 읽기의 등급별 내용

등급	내용
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 자음과 모음, 받침 등을 식별하여 띄어쓰기 단위로 어느 정도 끊어 읽는다. • 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알고 짧은 문장을 바르게 읽는다. • 일상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간판, 안내 표지판 등을 읽고 내용을 이해한다. • 일상생활에 관한 짧은 글을 읽고 내용을 이해한다.

등급	내용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소재의 글을 읽고 이해한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안내문이나 게시문의 주요 정보를 읽고 이해한다. 간단한 생활문(메모, 일기 등)을 읽고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한다. 일상생활을 설명한 글을 읽고 이해한다.
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주제(직업, 사랑, 교육 등)에 관한 글을 읽고 핵심 내용을 이해한다. 복잡한 구조의 생활문(전자우편(이메일), 초청장 등)을 읽고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한다. 복잡한 구조의 실용문(전단지, 안내문 등)을 읽고 주요 정보를 파악한다. 단순한 구조의 설명문을 읽고 정보를 파악한다.
4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주제(직업, 사랑, 교육 등)에 관한 글을 읽고 핵심을 파악하며 세부 내용을 이해한다. 비교, 대조, 나열 등이 사용된 설명문을 읽고 글의 내용을 이해한다. 비교적 친숙한 소재를 다룬 논설문을 읽고 중심 내용과 뒷받침 내용을 이해한다. 소재가 쉬우며 길이가 짧은 문학 작품을 읽고 대강의 내용을 이해한다.
5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추상적 주제(정치, 경제, 과학 등)에 관한 글을 읽고 대강의 내용을 이해한다. 자신의 전문 분야에 관한 글을 읽고 핵심 내용을 이해한다. 다양한 소재의 글을 읽고 글의 논리적 구조에 따른 의미를 파악한다. 길이가 비교적 짧고 전개 구조가 단순한 문학 작품을 읽고 전체적인 내용과 작가의 의도를 파악한다.
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추상적 주제(정치, 경제, 과학 등)에 관련된 글을 읽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다. 자신의 전문 분야에 관한 글을 읽고 핵심을 파악하며 세부 내용을 이해한다. 다양한 소재에 관한 글을 읽고 글의 논리적 의미 관계 및 필자의 의도를 파악한다. 텍스트의 유형이나 형식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텍스트를 정확하게 이해한다. 복잡하지 않은 전개 구조와 비유나 함축 표현이 적은 문학 작품을 읽고 감상한다.

3.4.4. 쓰기

쓰기 영역의 목표 기술은 각 언어 기술에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기술하였다. 쓰기는 읽기 영역과 같은 특성을 지니는 문어적 특성을, 말하기와 같은 표현 영역인 만큼 표현 영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습자의 습득 과정의 숙달도 차이에 근거하여 기술하였다.

1급과 2급에서는 ‘일상생활’이라는 주제의 통일성을 제시하되, 텍스트 전체 길이를 포함한 문장의 복잡성, 인물, 사물, 장소로 소재가 확대되는

글의 특성에 주목하여 내용 항목을 제시하여 1급과 2급의 급 간 위계를 두고자 하였다. 3급과 4급 즉 중급에서는 주제를 통일하되 간단한 구조의 글을 쓰는 3급 단계에서 확대되어 4급에서는 친숙한 사회적 주제에 대한 글을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4급에서는 설명문, 논설문, 쉽고 짧은 감상문을 제시하여 급 간 차별성을 돕고 동시에 급 간의 긴밀성과 유기적 관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5급과 6급 즉 고급의 특성으로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추상적 주제를 제시하여 주제의 통일성을 제시하되, 5급에서는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추상적 주제와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 어느 정도 구조를 갖춘 글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6급에서는 사회적·추상적 주제나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 논리적 구조의 글도 쓸 수 있도록 5급의 내용에서 확장시켰으며 다양한 장르에 따른 글의 특성을 알고 이를 고려한 글을 쓸 수 있도록 하여 급 간의 위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쓰기의 등급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7 쓰기의 등급별 내용

등급	내용
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 자음과 모음을 결합해 글자를 쓴다. • 맞춤법에 맞게 짧은 문장을 바르게 쓴다. • 간단한 메모를 한다. • 일상생활에 관한 짧은 글을 간단한 구조로 쓴다.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일과를 비교적 정확하게 쓴다. • 경험한 일이나 앞으로의 계획에 관해 문장과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쓴다. • 친숙한 인물, 사물, 장소 등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글을 장르적 특성에 맞게 쓴다.
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과 관련된 생활문을 비교적 정확하게 쓴다. •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주제(직업, 사랑, 교육 등)에 관한 글을 간단한 구조로 쓴다. • 실용문(안내문, 전자 우편(이메일) 등)을 단락과 단락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쓴다. • 간단한 구조의 설명문에 핵심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쓴다.
4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주제(직업, 사랑, 교육 등)에 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거나 의견을 들어 주장하는 글을 쓴다. • 친숙한 소재를 다루는 논설문의 구조에 맞게 자신의 주장과 뒷받침 내용을 쓴다. • 짧고 간단한 구조의 수필을 일관된 내용으로 쓴다. • 예시, 비교/대조 등을 활용하여 글을 쓴다.

등급	내용
5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추상적 주제(정치, 경제, 과학 등)에 관해 논리적 구조를 반영한 글을 쓴다. • 자신의 전문 분야에 관하여 핵심 내용이 드러나도록 글을 쓴다. • 다양한 소재의 글을 요약하고 자신의 의견을 반영한 요약문을 쓴다. • 정의, 인용 등을 활용하여 글을 쓴다.
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추상적 주제(정치, 경제, 과학 등)에 관해 논리적이고 정확하게 의견을 전개하는 글을 쓴다. • 자신의 전문 분야에 관하여 핵심 내용과 세부 내용이 연결되도록 글을 쓴다. • 평론, 학술 보고서, 학술 논문 등의 전문적인 글의 특성을 이해하고 간단하지만 일관된 내용 구조를 가진 글을 쓴다. • 비유, 분류, 분석 등을 활용하여 글을 쓴다.

3.5. 텍스트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텍스트’의 내용은 관련 선행 연구⁴⁾에 따라 ‘텍스트 유형’을 한정하고, 교육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텍스트 항목과 항목별 활용 등급을 자세히 제시함으로써 현장 활용도의 극대화를 도모하였다. 각 텍스트 항목은 해당 등급에서 활용은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등급별 총괄 목표에 기반 하여 각 등급에서 주로 사용될 수 있는 주제와 기능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활용 등급을 확정하는 데에는 각 등급별 총괄 목표, 기능과 주제의 연관성이 반영되었으며 한국어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이 수렴된 것이다. 다만 텍스트의 경우는 유형별 활용 등급이 제안되고 있으나 중점 등급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는 텍스트는 텍스트의 언어적·구조적 특징뿐 아니라 텍스트에서 다루어지는 내용과 기능에 따라 난이도가 달라져 중점 등급을 제안할 수 없기 때문이다.

텍스트 분류는 정보 전달과 이해를 위한 텍스트, 사회적 상호 작용을

4) 한국어 읽기 교육과정 개발 연구(국립국어원, 2015)에서 한국어 읽기 교육 자료에 대한 자세한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위한 텍스트, 문학적 반응과 표현을 위한 텍스트, 비판적 분석과 평가를 위한 텍스트 등 모두 4개의 대분류로 나누어지며 이와 같은 대범주에 중범주 항목을 등급 표시와 함께 제시하였다.

3.6. 문화

문화의 경우 ‘문화 지식, 문화 실행, 문화 관점’의 교육 모형을 채택하여 최소한의 한국어교육에서의 요구 수준(숙달도)만을 제시하였다. 문화 항목 제시 시 언어 숙달도 요구 수준은 6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다른 범주와는 달리 숙달도가 낮은 순으로부터 ‘초급, 중급, 고급’의 3단계로만 표시하였는데 이는 그 등급에서만 학습이 가능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등급에서부터 학습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먼저 ‘문화 지식’의 경우 한국 문화에 대해 선언적 지식을 교수 학습하는 내용을 선정하고 주로 한국어 교사가 주도하는 교실 수업을 통해 전달될 수 있는 항목을 선정했다. 여기에는 교재의 문화란을 통해 주로 읽기 텍스트로 교육 내용이 포함되게 된다. ‘문화 실행’의 경우 한국 문화에 대해 절차적 지식을 교수 학습할 수 있는 항목을 선정했다. 주로 교실 밖 수업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체험, 행사, 견학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 관점’의 경우 한국 문화와 자국, 세계 문화를 상호 문화적 관점에서 학습할 수 있는 항목을 선정하였다. 주로 한국어 교사가 주도하는 교실 수업을 통해 지식의 전달이 이루어지며 문화 비교에 대한 말하기나 쓰기 등과 같은 기능 수업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7. 평가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뢰도, 타당도, 실제성, 상호 작용성, 실용성, 역류 효과와 같은 기본적인 평가의 요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믿을 수 있고, 내용적으로 타당하며, 교육과정에 긍정적인 역류 효과를 미치기 위한 평가 항목의 개발을 위해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 기술에 근거하여 평가 모형의 설계가 이루어졌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평가 범주에서는 한국어 평가의 목표 및 범주 설정의 방향을 논하고 어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별 평가 범주와 목표, 초·중·고 등급별 평가 내용을 기술하여 교육과정 구성의 마지막 단계인 평가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평가 역시 문화 범주와 마찬가지로 초급, 중급, 고급의 3단계로 구분하였으며 ‘평가 총괄 목표’, ‘주제’, ‘기능’, ‘언어 지식’, ‘텍스트 유형’ 등에서 각 단계별로 한국어 학습자들이 학습해야 할 세부 항목을 제시하였다.

4. 마무리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내용과 구성은 2010년, 2011년, 2016년, 2017년 총 네 차례의 체계화되고 정밀화되는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2010년에 수립한 총괄 목표 기술 역시 2016년에 정교화되었으며 이에 맞추어 등급의 특성, 등급 간 일관성, 등급 간 연계성, 기술의 명료성 등을 점검하여 사용자 측면에서 이해가 쉽도록 세밀화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거쳐 완성된 것이다. 이러한 수정과 보완의 방향은 국가 차원의 한국어 교육과정으로서 객관적이고 타당성을 갖추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완성도를 높게 되었다고 본다. 각 내용을 살펴보면 주제의 경우 사용자가 교수요목을 구성하거나 교재 개발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기술하였고 기능은 기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과제 및 활동 개발이 가능하도록 구체화하였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언어 기술은 목표를

중심으로 영역별 특성과 영역 간의 연계성을 충분히 포함하게 하였고 해당 기술별 내용을 중심으로 교재 개발 및 활동 개발, 평가 목표 설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발음, 어휘, 문법을 등급화하고 목록화하여 국내외 한국어 교육 기관의 다양한 변인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 문헌

- 강현화 외(2012), 《한국어교육 어휘 내용 개발(1단계)》, 국립국어원.
- 강현화 외(2013), 《한국어교육 어휘 내용 개발(2단계)》, 국립국어원.
- 강현화 외(2014), 《한국어교육 어휘 내용 개발(3단계)》, 국립국어원.
- 김정숙 외(2008), 《해외 한국어 보급 활성화에 관한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김중섭 외(2016),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활용 점검 및 보완 연구》, 국립국어원.
- 김중섭(2010),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국립국어원.
- 김중섭(2011),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2단계》, 국립국어원.
- 김호정 외(2012),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1단계)》, 국립국어원.
- 양명희 외(2013),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2단계)》, 국립국어원.
- 양명희 외(2014),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3단계)》, 국립국어원.
- 양명희 외(2015),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4단계)》, 국립국어원.
- 이정희 외(2015), 《한국어 읽기 교육과정 개발 연구》, 국립국어원.
- 한송화 외(2015), 《한국어교육 어휘 내용 개발(4단계)》, 국립국어원.
- van EK, J.A. & Trim, J.L.M.(2011), 《Vant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an EK, J.A.(1980), 《Threshold level English》, Oxford: Pergamon Press.
- Wilkins. D.A.(1976), 《National Syllabuses》, Oxford University Press.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활용*

발표자: 박진옥

대구가톨릭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교수

I. 해외 중등학교에서의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활용 방안

1. 서론

이 글에서는 국가 단위에서 개발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을 해외 중등학교에 적용하여 참조 기준으로서 교육과정의 활용 절차를 살펴 보고,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의 수월성을 높이고자 한다.

국가 단위의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연구(명칭: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는 2010년부터 시작되어 2011년에 2단계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는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기준을 제시해 주었다. 이후 5년간의 현장에서 활용하여 이를 바탕으로 2016년도에는 교육과정에 대한 수정·보완 연구가 이루어졌고, 2017년도 연구에서는 이를 보급하고 활용하기

* 이 글은 국립국어원의 연구 과제인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김중섭 외, 2017)’의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재구성한 것으로서, ‘새국어생활 2018년 제28권 제2호·여름(국립국어원, 2018)’에 실린 원고이다. ‘I. 해외 중등학교에서의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활용 방안’은 박진옥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이수미 교수(성균관대학교)·장미정 교수(고려대학교), ‘II. 해외 대학에서의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활용 방안’은 김지혜 교수(고려대학교)·박나리 교수(국립한국교통대학교)·강현자 교수(계명대학교)가 작성하였다.

위한 연구를 끝으로 표준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사업이 마무리되었다.

‘국제 통용 표준 한국어 교육과정’은 목적과 지역, 대상, 교육 환경 등에 따라 다양하게 실현되는 한국어 프로그램 개발에 표준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현장의 요구에 맞춰 다양하게 변용이 가능하도록 해 주었다. 이러한 표준과 변용이 가능했던 것은 국제 통용 표준 한국어 교육과정이 큰 틀에서 기준을 정해 주되, 세부적인 항목에서 현장성을 가미할 수 있는 참조 기준으로서의 교육과정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참조 기준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하는 주체는 한 기관의 프로그램 관리자가 될 수도 있고, 교재 개발자가 될 수도 있으며, 교사 개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참조 기준으로서 교육과정은 그 양이 방대하고 현장에 맞추어 구체화·상세화를 시도해야 하기에 그 활용 방법이 수월하지는 않다.

참조 기준으로서 교육과정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경험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이 글에서는 제2외국어 교육 과정 개발자의 입장에서 참조 기준으로서 교육과정을 활용하는 과정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먼저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해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할 것이며, 다음으로 국내외 제2외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를 검토해 제2외국어 교육으로서 한국어교육이 고려해야 할 사항과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할 것이다. 이후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을 참조하여 해외 중등학교의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과정의 목표와 단계를 설정하고, 내용 체계와 상세화의 과정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2. 중등학교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의 현황

2.1. 해외 중등학교 한국어교육 관련 선행 연구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과 관련된 제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황 조사와 관련 연구들을 통해 교육과정이 사용될 상황과 환경을 살펴보겠다.

교육부(2017a)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으로 해외 초중등학교에 개설된 한국어반은 27개 국가, 1,309개 학교, 115,333명의 학생 수로 보고된 바 있다. 이 중 학교 수는 일본 548개, 미국 155개에 이어 태국 82개, 대만 74개의 순이었으나 학생 수는 태국이 26,365명으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서 제공한 해외공관(한국교육원)의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 초중등학교에서 개설된 한국어반의 수는 2013년에 24개국에서 2014년 26개국, 2015년에는 28개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학생 수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초중등학교에서의 한국어반 개설은 한국어의 중요도를 그 나라의 교육제도 안에서 인정받음으로써 대학에서의 한국어과 개설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더불어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해외 초중등학교에서의 한국어교육은 양적인 팽창에 따른 질적인 성장을 촉구하여 지속적인 양적 증가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해외 초중등학교는 학교별로 정하는 외국어 시수 및 교사의 수급 문제를 포함한 특수성과 더불어 국가별로 외국어별 인지도 및 외국어교육의 역사 등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어교육을 위한 거시적인 측면에서 교육과정의 부재, 미시적인 측면에서 한국어 교사 및 교재의 부족이 가장 시급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되었다.

해외 중등학교에서 한국어교육이 실시되는 대표적인 국가는 태국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태국의 중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교육¹⁾에 대해서는 진정란(2012), 권현숙(2014)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진정란(2012:236~255)에 따르면 태국의 중등학교에서

교육하는 제2외국어는 태국 교육부의 기초교육위원회에서 지정하는데, 중학교 과정(일부 초등학교 과정 포함)에서는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지정하지 않고 방과 후 특별과정으로 편성하여 선택적으로 수강하도록 하는 곳이 많으며 수업 시수도 주당 2~6시간 정도로 적은 편이라고 하였다. 이 같은 교육은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학교에서 요구하는 교육 내용도 한국 소개나 한국 문화 체험 등으로 한국어 학습보다는 ‘한국 맛보기’ 정도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였다. 또한 태국 중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교육은 진입 초기 단계이므로 지나친 언어 교육의 강조보다는 학습자들과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 체험 활동과 실제적 실용 표현 중심의 언어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의 관심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권현숙(2014:33~35)에서도 태국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조사되었으며, 태국 중고등학교에서 교육되고 있는 한국 문화 내용을 살펴보면 한류와 케이팝(K-POP)과 가수, 한복, 드라마와 영화, 음식 문화, 한국의 의식주, 한국의 중고등학생 문화 등이 다루어지고 있었다.

한국어교육 연구 중 해외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해외 중등학교 학습자들은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배우는 언어 학습자라기보다는 한국에 대한 관심과 흥미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거나 학교에서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를 채택함으로써 한국어를 배우게 되는 것으로 한국 언어 학습자라기보다는 한국 문화 학습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언어 기능, 언어 지식에

1) 2017년 10월 한국 교육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태국 교육부 기초교육위원회는 중등학교 한국어교육 과정 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2016년 3월에 ‘태국중등학교 표준 한국어교육과정’을 개발하였고, 2017년 10월에는 태국에서 공식 중등학생용 한국어 교과서가 발간되었다고 한다. 이는 2008년 태국 교육부가 한국어를 중등학교 제2외국어로 채택한 이후 10년 만에 이룬 성과라고 하였다. 태국 정부는 이로써 태국 일선 학교에서 체계적인 한국어 수업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으며, 2018학년도부터 태국 대학 입시 과목에 한국어가 포함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다른 국가보다 태국에서의 중등학교 대상 한국어교육이 보다 공고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지속적인 동기, 흥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둘째, 해외 중등학교 학습자들의 한국어교육 시수는 많게는 3시간, 적게는 1시간 정도로 한국어를 학교에서 학습하게 된다. 또한 학교에 따라 한국어 선택 시기가 다른데 길게는 3년, 짧게는 1년 과정으로 이루어지므로 이들의 전체 교육 시수를 고려한 교육 내용 범위가 설정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는 현지인 교사와 한국인 교사의 팀 티칭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팀 티칭을 고려한 교육 내용 배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2.2. 국내외 중등학교의 제2외국어 교육과정

앞선 조사와 연구들을 통해서 해외 중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제반 조사는 교육과정 개발자가 큰 밑그림을 그리는 데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을 제시하며 교육과정의 현실성을 높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고려 사항이 정리가 되었다면 좀 더 실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갈 텐데, 그 첫 번째 단계가 교육과정의 출발 수준과 종료 수준에 대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 수준을 결정할 때도 단순히 개발자의 경험과 직관에 의존할 수 없는 만큼 국내외 여러 사례들을 통해 목표 수준 결정의 지침을 얻을 필요가 있다.

2.2.1. 국내 중등학교의 제2외국어 교육과정

국내 제2외국어 교육과정(교육부, 2015)을 살펴보면, 국내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는 다음과 같이 제2외국어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다. <표 1>을 보면 외국어 과목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모두 선택 과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학교에서는 생활 외국어로, 고등학교에서는 외국어 I·II로 심화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국내 제2외국어 교육과정 과목 편성

구분		과목명	
중학교	[공통 교육과정] 중학교 선택 과목	- 생활 독일어 - 생활 프랑스어 - 생활 스페인어 - 생활 중국어	- 생활 일본어 - 생활 러시아어 - 생활 아랍어 - 생활 베트남어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 일반·진로 선택	- 독일어 I - 프랑스어 I - 스페인어 I - 중국어 I - 일본어 I - 러시아어 I - 아랍어 I - 베트남어 I	독일어 II 프랑스어 II 스페인어 II 중국어 II 일본어 II 러시아어 II 아랍어 II 베트남어 II

이 중 교육부(2015:3)에서는 중학교 교육과정의 생활 외국어 과목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어 교육은 언어 기능의 연마라는 실용적 가치 이외에 인격의 성장이라는 교육적 가치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외국어 학습을 통해 얻어진 언어와 문화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외국인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에 보고자 하는 태도를 길러 주고, 지구촌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 의식을 일깨워 주는 것이 ‘생활 외국어’가 지향하고 있는 교육 목표이다. 감수성이 풍부한 청소년기에 접하는 ‘생활 외국어’를 통해 학습자는 서로 다른 것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됨으로써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을 기를 수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교육에서는 교육을 통해 인격 성장, 외국인과의 의사소통 능력 배양, 세계 시민 의식의 함양이 주요한 목표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육부(2015:4)에서는 생활 외국어의 교육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한다.
- 가. 기초적인 의사소통 기본 표현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나. 외국 문화의 이해를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고, 해당 문화에 대한 배려심과 존중의 자세를 확립한다.
 - 다. 다양한 매체와 자료를 통해 학습 해당국 관련 정보를 선별하여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아울러 교육부(2015)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제2외국어의 경우 독일어, 프랑스어 등 각 과목마다의 교육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각 과목의 교육 목표를 검토하였을 때 교육 목표의 주안점이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고, 외국어 학습을 통해 문화 간 소통 능력과 세계 시민 의식을 기르며, 외국어를 활용하여 정보를 습득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외국어 과목 역시 중학교 교육과정의 생활 외국어와 교육의 방향성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제2외국어 과목의 교육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제2외국어 과목 중 유럽 참조 기준이 반영되어 제시되고 있는 ‘생활 독일어’의 ‘내용 체계’를 살펴 보면 <표 2>와 같다.

표 2 국내 제2외국어 생활 독일어의 내용 체계

영역	핵심 요소	내용	기능
언어적 내용	발음 및 철자	· 독일어 표준 발음 · 독일어 정서법	· 올바르게 발음하기 · 올바르게 글쓰기
	어휘	· 일상생활의 기초적인 의사소통에 필요한 기본 어휘 · 고등학교 보통 교과 독일어 교육과정 [별표II]에 제시된 기본 어휘를 중심으로 250개 내외의 낱말을 사용한다.	· 문맥과 상황에 맞게 낱말 사용하기 · 어법에 맞게 문장 사용하기 · 상황과 의도에 맞게 의사소통 표현 사용하기
	문법	· 일상생활의 기초적인 의사소통 표현들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문법	

영역	핵심 요소	내용	기능
		· 생활 독일어 [의사소통 기본 표현] 참고	
	의사소통 표현	· 인물·사물, 감정·의견·건강, 날씨·의식주, 사회생활 등과 관련된 기초적인 의사소통에 필요한 표현 · 생활 독일어 [의사소통 기본 표현] 참고	
문화적 내용	문화	· 언어문화(관용적 표현, 속담과 격언 등) · 생활문화(의식주, 여가·취미, 기념·축제일 등) · 지역 사정(지리, 제도 등) · 사회·문화(인물, 문화유산, 예술·체육·학술 등)	· 문화를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의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생활 독일어의 경우, 언어적 내용과 문화적 내용을 축으로 하여 언어적 내용 안에 언어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발음, 어휘, 문법이 있으며 이외에 실생활 표현으로 의사소통 표현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문화적 내용 안에는 문화라는 핵심 요소 안에 언어문화, 생활문화, 지역 사정, 사회·문화 등 목표어에 대한 폭넓은 문화 지식을 다루고 있다.

또한 교육부(2015)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활 독일어, 독일어 I, 독일어 II의 내용 체계를 비교하면 <표 2>에서 밑줄 친 부분이 각각의 차별성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전반적으로 언어 내용의 수준은 생활 독일어와 독일어 I이 '기초적인 의사소통'에 필요한 표현을 학습하며 독일어 II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에 필요한 표현을 학습한다. 어휘의 수가 각각 250개, 500개, 800개 내외로 증가하며, 전체적으로 유럽 참조 기준의 A1(기초적 언어 사용) 수준²⁾에서 교육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 제2외국어 한국어 교육과정을 마련할 때 교육 목

2) 심봉섭 외(2010:80)에 의하면 고등학교 제2외국어 II 수준은 대체적으로 1년 100시간 정도의 수업 시간 동안 400~500개의 어휘를 가지고 의사소통하는 수준이므로 언어마다 차이는 있지만, 어휘의 수적인 면이나 학습 시간만으로 볼 때 이는 회화 수준의 전통적인 등급 구분인 초급-중급-고급에서 보통 가(假)초급 혹은 초급 이전의 기초나 초보라 불리는 수준에 해당된다고 한다.

표는 일상생활에 대한 회화 능력 및 목표어권에 대한 문화 이해 함양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 내용은 초급 수준을 다루지만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연속하여 학습하는 경우와 고등학교부터 제2외국어를 배우는 경우 등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의 수준을 세분화하고, 교육 항목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2.2.2. 해외 중등학교의 제2외국어 교육과정

해외 제2외국어 교육과정에 대해 심봉섭 외(2010)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는 외국어(영어 포함)를 2개 이상 학습하도록 권장하면서 초·중·고 졸업 시까지 자신이 선택한 외국어에 대해 유럽 공통 참조 기준의 일정 등급을 획득할 것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졸업 시까지 획득해야 하는 수준을 <표 3>과 같이 제시하고 있어, 고등학교를 마쳤을 때에는 제2외국어의 경우 B1의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표 3 프랑스 외국어 교육에서 각 교육과정별 획득해야 하는 언어 수준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 교육 연한 (16세)까지	고등학교
제1외국어	A1	A2	B1	B2
제2외국어	—	A1(선택)	—	B1
제3외국어	—	—	—	A2(선택)

또한 독일에서는 각 연방주 교육부장관 협의회의 결의를 통해 각 학교의 형태에 따른 외국어 능력의 목표를 표준화해서 설정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김나지움 10학년까지 제1외국어로 영어나 프랑스어를 선택하여 B1 수준에 도달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김나지움 졸업 시 도달해야 할 등급은 주마다 서로 다르다고 한다.

국가별 제2외국어 교과 편제를 연구한 한상현(2005:218)에서는 국가별 제2외국어 수업 주당 시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한상현(2005:218)에서는 국가별 제2외국어 교육의 평균 주당 시수와 제2외국어가 전체 교육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우리나라의 학제에 적용하여 <표 4>와 같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표 4 국가별 제2외국어 주당 평균 시수와 교육과정에서 제2외국어의 비중

나라 학년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초등학교 (1-6학년)	0시간 0%	0시간 0%	(2.1)시간 (8.1)%	0시간 0%	0시간 0%	0시간 0%
중학교 (7-9학년)	(0.7)시간 (2)%	(3)시간 (10.7)%	3.6-(4.0)시간 6.1-(12.1)%	5.2시간 16.4%	3시간 10%	0시간 0%
고등학교 (10-12학년)	1-(2)시간 2.8-(5.6)%	(6)시간 (17.2)%	4.9시간 13.8%	5.9시간 18.8%	2.8시간 9.2%	1.6시간 10.8%

위의 <표 4>를 보면 프랑스의 경우는 초등학교 때부터 제2외국어 교육을 시작하며, 다수의 국가가 중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를 3시간 내외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해외에서 제2외국어 교육과정은 주로 중학교부터 시행되며 교육 시간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 제2외국어 과목에 적용할 한국어 교육과정을 제시할 때 해외 교육과정의 시수(편제)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제2외국어로서만이 아닌 제3외국어로 활용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해외 중등학교의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과정

2장의 논의를 통해 해외 중등학교에서 사용될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살펴보았고, 교육과정 개발의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목표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 국내외 사례들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육과정 개발자는 지침과 가상의 지침을 설정함으로써 보다 현실성 있게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앞서 수립한 지침과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목표 등급 설정과 단계 세분화, 교육 목적과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내용 개발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3.1.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의 목표 수준 설정

국내 제2외국어 교육과정을 참고하면, 제2외국어 교육의 목표가 언어 부분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초적인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해외의 외국어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한국에서의 제2외국어 교육과정에 비해 그 중요성과 비중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육의 시작 시기도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중등학교에서 제2외국어 교육의 최종 목적은 대체로 ‘유럽 공통 참조 기준’의 B1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럽 공통 참조 기준’의 B1 수준은 단계적인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3단계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기준으로 3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실제 세부적인 성취 수준을 보면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3급에 비해서도 다소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럽의 경우는 지리적 특성, 언어의 계통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외국어 교육의 목표가 구현되기에 실현 가능성이 있으나, 한국어의 경우는 국제어로서의 위상 및 한국어 해외 보급률, 계통적 특성 등을 고려한다면

유럽의 외국어 교육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해외 중등학교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의 목표는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2급'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겠다.

표 5 외국어 교육과정의 목표 비교

구분	세 부 내 용
한국 제2외국어 교육과정의 목표	<p>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한다.</p> <p>가. 기초적인 의사소통 기본 표현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한다.</p> <p>나. 외국 문화의 이해를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고, 해당 문화에 대한 배려심과 존중의 자세를 확립한다.</p> <p>다. 다양한 매체와 자료를 통해 학습 해당국 관련 정보를 선별하여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p>
유럽 공통 참조 기준 B1의 총괄 척도	<p>명확한 표준어를 사용하며 업무, 학교, 여가 등과 같이 익숙한 것들이 주제가 될 때 요점을 이해할 수 있다.</p> <p>해당 언어 사용 지역을 여행하면서 마주치는 대부분의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다. 익숙한 주제와 개인적인 관심 분야에 대해 간단하고 조리 있게 표현할 수 있다. 경험과 사건에 대해 보고할 수 있고 꿈과 희망 목표를 기술할 수 있으며 계획과 견해에 대해 짧막하게 근거를 제시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p>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2급의 총괄 목표	<p>기초 어휘와 단순한 문장을 이용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마주치는 간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다루는 개인적·구체적 주제에 대해 간단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기본적인 한국의 일상 생활 문화를 이해하고 자국의 문화와 비교할 수 있다.</p>

위의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2급 수준에서의 핵심은 일상과 관련된 주제로 간단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상황(장소)도 일상적인 맥락으로 한정하고 있다.

3.2. 교육과정의 등급 체계와 단계별 교육 시간 설정

해외 중등학교용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에 대한 총괄 목표가 설정되었다면 이를 몇 개의 단계에 걸쳐 가르칠 것이냐, 각 단계는 몇 시간으로 운영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교육 여건과 환경, 대상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등급별 시간은 최소 72시간에서 최대 200시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해외 중등학교의 외국어 교육과정도 총 운영 학기, 학기당 총 운영 시간, 주당 수업 시간 등이 다양한 형태로 실현될 수 있기에³⁾ 등급별 소요 시간을 고려하여 시간을 유동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표 6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과정의 운영 시간⁴⁾

목표	등급별 소요 시간	학기	주당 수업 시수	목표(2급)까지 소요 학기
2급	72시간 (총 144시간)	18주	2시간	4학기(2년)
			4시간	2학기(1년)
2급	144시간 (총 288시간)	18주	2시간	8학기(4년)
			4시간	4학기(2년)

<표 6>은 72시간 모형과 144시간 모형으로 학기를 운영할 때 최종 등급인 2급에 도달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은 144시간과 288시간이 됨을 보여준다. <표 6>을 기준으로 본다면 특정 국가의 중등학교에서 총 4학기에 걸쳐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주당 수업 편성을 4시간으로 할 수 있다면 144시간 모형으로 4학기(2년)를 운영하면 되는 것이다.⁵⁾

3) 앞서 살펴본 내용을 참고하면 중학교의 경우 주당 교육 시간이 짧게는 2시간에서 5시간으로, 고등학교의 경우 최소 4시간에서 최대 14시간까지 편성된 경우를 볼 수 있다.
4) <표 6>에서 제시한 시간은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등급 당 최소 소요 시간 72시간과 그 두 배 교육 시간인 144시간을 예시로 제시하였다. 또한 학기 당 18주는 국내 정규 학교의 학기를 참조하여 설정하였다.

해외 중등학교용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과정도 학제, 기관, 교육 대상 등에 따라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2급을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상세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등급의 균등적 세분화 단계의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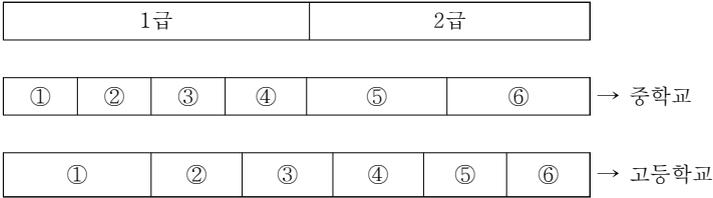
1급				2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4단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8단계

위의 예시는 2급으로 이루어진 목표를 운영 학기 단위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세분화한 모형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단계 설정은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를 전체 4학기로 운영을 하는가, 혹은 8학기로 운영하는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다.

위의 방식이 단순히 교육과정 운영 학기에 따라 균등하게 세분화한 것이라면 아래의 예시는 학습자의 특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단계를 세분화한 예시라고 하겠다.

5) 여기에서 고려할 것은 최종 목표를 2급으로 하되 교육 여건에 따라 등급별 소요 시간에 차이를 두었기에 같은 등급이라도 교육 시간에 따라 학습자의 세부적인 언어 능력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즉 동일한 2급의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교육과정에서 최대치로 본 200시간을 교육 받은 학습자와 최소치인 72시간을 교육 받은 학습자 간에는 수준의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다. 교육의 시간에 따라 해당 등급의 과제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해당 등급의 과제들 중 일반적이고 쉬운 과제에 한해서만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차이라고 하겠다.

그림 2 학습자 연령 및 인지 발달을 고려한 단계의 예시



중등학교 학습자의 경우 인지적 발달이 성인 학습자의 경우와 다르다. 대부분의 한국어교육의 경우 학습자가 성인 학습자를 기준으로 내용이 설정된 경우가 많은데, 학습자의 연령이 다소 낮은 경우 초급 수준의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더라도 일상적 경험의 범위가 좁은 만큼 다룰 수 있는 주제와 상황, 맥락도 한정적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제2외국어 교육 이후 실제 목표어 국가 사람들과의 대면 기회 등을 고려한다면 성인 학습자를 기준으로 2급의 목표와 내용을 설정할 때와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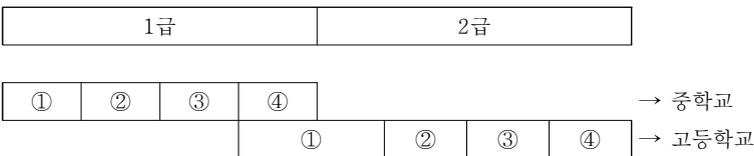
이러한 학습자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목표 등급을 2급으로 설정하더라도 학습자의 인지적 발달,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내용의 비중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 위의 <그림 2>의 첫 번째 모형을 살펴보면 중학교에서 6개 단계에 걸쳐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것으로 제2외국어 교육이 마무리가 된다면, 학습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2급을 목표로 하더라도 학기마다 다룰 내용의 비중을 달리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 6개 학기 중 첫 단계부터 네 번째 단계까지는 촘촘하고 세밀하게 수준을 설정하여 낯선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을 배려할 수 있을 것이고, 한국어 학습에 조금 익숙해진 5단계부터는 앞의 두 단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내용을 다루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 교육을 시작하고 전체 6단계를 운영한다고 하면,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경우 인지 발달 및 사회 경험이 확대된 것

으로 판단하여 난이도가 낮은 1단계의 내용은 상대적으로 많은 내용으로 설정하되 이후 어휘의 양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하여 2단계부터는 1단계에 비해 내용의 양을 줄여서 학기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2급 중반부터 어휘의 양과 기능의 복잡성을 고려한다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마지막 6단계의 경우 지향점은 2급으로 하되 중학교 과정에서는 다소 낮은 수준의 2급을,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보다 단단하고 밀도 높은 수준의 2급을 최종 목표 수준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선행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은 중학교에서의 제2외국어 과정은 선택적이라 할 수 있으나 해외의 경우에는 한국에 비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외 중등학교 과정의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모두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서 선택을 하고 두 과정이 연계되어 진행된다면 단계별 목표가 보다 유기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중학교 제2외국어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제2외국어 교육과정을 각각 4학기에 걸쳐 연계되는 교육과정이라면 다음 <그림 3> 과 같은 방식으로 단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연계를 고려한 단계의 예시



중학교 단계에서는 1급에 해당하는 내용을 4단계로 설정하여 세밀하고 점진적으로 학습하여 2년간 안정적인 1급 수준을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고등학교에도 마찬가지로 세밀하고 점진적으로 1개 등급(2급)의 내용을 4단계에 걸쳐 학습할 수 있을 텐데, 고등학교에서 1단계 수준은 중학교의

종료 수준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닌 중학교 4단계의 출발점에서 시작하여 2급의 25% 수준까지를 다룸으로써⁶⁾ 중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반복하며 수준을 심화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고등학교 단계로 들어설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 이후 2단계에서부터 세밀하고 점진적인 단계로 학습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2급에 도달할 수 있게 설계할 수 있다.

3.3. 교육 내용 범주의 비중과 내용 상세화 방안

3.3.1. 교육 내용 범주의 비중 설정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에 대한 목표 수준과 등급별 세부 단계에 대한 설정이 이루어졌다면 각 단계별 교육 내용에 대한 선정과 구체화 작업이 필요하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개발에 필요한 내용 범주로 주제, 기능/과제, 언어 지식(어휘, 문법, 발음), 언어 기술(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텍스트, 문화 등을 설정하고 있다. 이들 범주의 각 항목들은 교육의 목표에 맞춰 유기적인 관계로 재편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이라는 주제는 해당 맥락에서 요구되는 인사하기와 같은 의사소통 기능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사하기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어휘와 문법이 선정될 것이며, 어휘와 문법은 언어 기술과 통합되어 구체적인 교육 내용으로 실현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 등급에 활용 가능한 텍스트가 고려될 것이며, 학습자 수준과 배경을 고려한 문화적 맥락도 참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구체화할 때에는 교육의 목표와 교육 환경, 학습자의 요구와 인지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비중을 설정해야 한다. 예컨대 등급별 소요 시간이 72시간인 교육과정에서는 제도권 교육으로서의 평가 개발과 현직인 교원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언어 지식, 언어 기술,

6) 유동적 분지 모델의 관점에서 본다면 고등학교 1단계 수준은 1+ 등급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문화의 비중을 5:3:2로 설정한다면, 144시간 모형에서는 같은 등급 내에서 교육 시간 확보가 보다 충분히 이루어진 만큼 언어 지식을 확대하기보다는 언어 기술과 문화 비중을 상대적으로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 등급별 소요 시간이 72시간인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 범주의 비중 예시

$$\text{총 72시간 모형} = \boxed{\text{언어 지식}} + \boxed{\text{언어 기술}} + \boxed{\text{문화}}$$

3.3.2. 교육 내용의 상세화 절차

범주별 비중이 결정되었다면 내용 항목에 대한 선정 및 구체화 작업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항목은 등급별 기준으로 제시된 항목이므로 교수요목 설계를 위해서는 이를 학습 목적과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선별하고, 상세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하겠다.

교육 항목 개발은 먼저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등급별 주제 항목 중 중등학교 학습자에 적합하도록 상세화를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주제 선정에서는 무엇보다 학습자의 특성과 환경적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결정된 주제를 중심으로 필요한 기능을 다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항목에서 선정, 기능별 과제를 다시 중등학교 학습자에게 적합한 형태로 상세화하는 과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즉, 주제와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중등학교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한국어 학습에 관심과 흥미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의 관심과 흥미의 지속으로 한국어에 대한 언어 전문가로 성장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에서 ‘문화 학습’이 주제, 기능, 과제와 유기적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

중등학교 학습자라는 학습자 특성, 즉 인지 발달 단계를 반영하고 학습 시간 등의 환경적 특성, 즉 일주일에 한두 시간으로 대부분 한국어 학습이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중등학교 학습자가 한국어와 문화를 통합한 자연스러운 한국어 학습으로 지속적인 한국어 전문 언어 학습자로 성장하도록 학습자의 ‘지금’의 ‘관심’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인 교육 내용의 구현이 요구된다 하겠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2급을 예로 제시하면, 2급은 일상생활을 주제로 설정되어 있고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주제와 기능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기능은 구체적인 과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해외 중등학교 학습자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화된 형태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2급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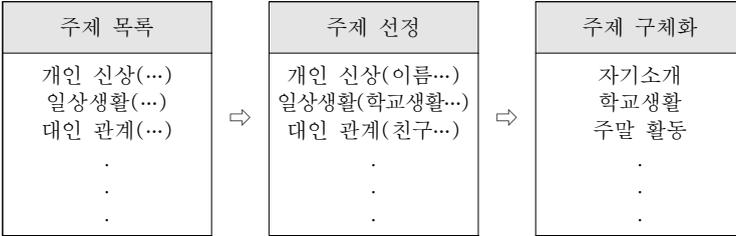
표 7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2급 주제

등급	주제
2급	개인 신상(이름, 전화번호, 가족, 국적, 고향, 성격, 외모), 주거와 환경(장소, 숙소, 방, 가구·침구, 주거비, 생활 편의 시설, 지역), 일상생활(가정생활, 학교 생활), 쇼핑(쇼핑 시설, 식품, 의복, 가정용품, 가격), 식음료(음식, 음료, 배달, 외식), 공공 서비스(우편, 은행, 병원, 약국, 경찰서), 여가와 오락(휴일, 취미·관심, 영화·공연, 전시회·박물관), 대인관계(친구·동료 관계, 초대, 방문, 편지, 모임), 건강(신체, 위생, 질병, 치료), 기후(날씨, 계절), 여행(관광지, 일정, 짐, 숙소), 교통(위치, 거리, 길, 교통수단)

2급의 주제 목록 중 ‘개인 신상’, ‘일상생활’과 같은 주제는 중등학교 학습자에게도 적합하며 초급 단계에 활용되기에도 적합하므로 이러한 주제들을 선정할 수 있을 것이나 선정된 주제들의 세부적인 주제인 고향 등은 중등 학습자의 특성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주제 목록 중 세부 항목을 검토하여 중등 학습자에게 적합한 주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구현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5 중등 교육과정 구현을 위한 주제 선정의 절차



기능 영역 또한 주제 영역과 같은 절차로 구현이 가능하다. 즉,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자에게 적합한 항목을 1차적으로 선정한 후 세부적인 기능을 선정하고 세부적인 기능은 과제와 연결되도록 할 수 있다. 먼저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2급의 기능은 <표 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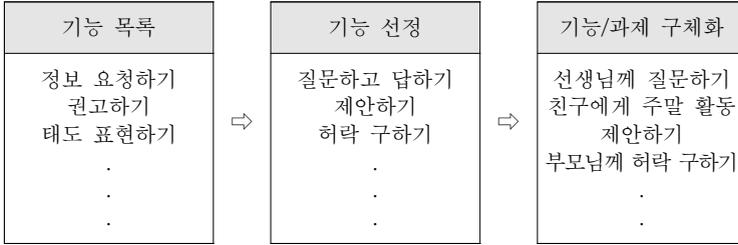
표 8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2급 기능

등급	기능
2급	정보 요청하기와 정보 전달하기(설명하기, 확인하기, 비교하기, 대조하기, 질문하고 답하기), 설득하기와 권고하기(제안하기, 요청하기, 허락하기/허락 구하기, 명령하기, 금지하기), 태도 표현하기(동의하기, 추측하기, 바람·희망·기대 표현하기, 가능/불가능 표현하기, 능력 표현하기, 의무 표현하기, 사과 표현하기, 거절 표현하기), 감정 표현하기(놀람 표현하기, 선호 표현하기, 희로애락 표현하기), 사교적 활동하기(인사하기, 소개하기, 감사하기, 축하하기, 환영하기, 호칭하기)

2급의 기능 목록 중 ‘질문하고 답하기’, ‘제안하기’와 같은 주제는 중등 학교 학습자에게도 적합하며 초급 단계에 활용되기에에도 적합하므로 이러한 기능들을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능 목록 중 세부 항목을

검토하여 중등 학습자에게 적합한 과제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기능과 과제를 구체화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6 중등 교육과정 구현을 위한 기능 및 과제 선정의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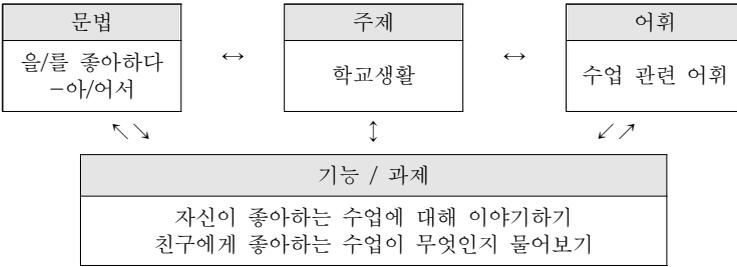
위와 같이 구체화된 주제와 그 주제 하에서 구현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그 기능을 구체화한 과제가 정해졌다고 하면,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언어 지식을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⁷⁾ 언어 지식은 문법과 어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두 영역이 선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주제에서 발생하는 기능적 표현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선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선정할 때에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문법과 어휘 목록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문법과 어휘를 선정하는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참조 기준으로서의 문법과 어휘라는 점이다. 표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목록으로서 타당성은 가지고 있으나 교수요목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개발자)의 관점에 따라 등급을 넘어서는 문법이 선택될 수도 있다.

의사소통 중심의 한국어교육에서는 문법과 어휘의 자체 난이도보다 주제 및 기능과의 연계성을 더욱 중시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7) 과제를 구체화한 후에 언어 지식(어휘, 문법)을 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교수요목 개발자에 의해 전후 단계가 조정될 수 있고, 또한 기능과 과제, 언어 지식에 대한 선정은 회귀적이고 순환적으로 점검되어야 한다.

교육과정 목록은 사용자의 선택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문법을 제시하는 방법에 있어 목록에 제시되어 있는 형태를 의도에 맞게 활용형이나 복합형으로 제시할 수도 있다.

그림 7 주제와 기능/과제, 문법, 어휘의 연계



<그림 8>은 위의 과정을 ‘학교생활’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하였을 때 기능 및 과제, 문법, 어휘와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학교생활’을 주제로 ‘좋아하는 수업에 대해 이야기하기’ 등의 과제를 수행 하게 하며 이때 필요한 문법과 어휘를 연계하여 교육 내용을 상세화할 수 있다.

3.3.3. 교육과정 내용 개발의 예

해의 중등학교 한국어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앞선 절차를 참고 하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교수요목을 설계할 수 있다.

표 9 교육과정 개발 과정 중 교수요목 설계 예시

등급	2급			2급
주제	일상생활	가정생활	⇒ 상 세 화	좋아하는 수업
		학교생활		
기능	감정 표현하기	놀람 표현하기		- 자신이 좋아하는 수업에 대해 이야기하기 - 친구에게 좋아하는 수업이 무엇인지 물어보기 - 자신이 어려워하는 수업에 대해 이야기하기 - 친구와 함께 공부하자고 제안하기
		선호 표현하기		
		희로애락 표현하기		
	실득하기와 권고하기	제안하기		
		요청하기		
		조언하기		
		허락하기/허락 구하기		
		명령하기		
	금지하기			

해외 중등학교 학습자는 한국인과 직접 대면하여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학교에서 함께 한국어를 배우는 친구와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언어 사용의 특성을 반영한다면 학교 맥락을 중심으로 주제와 기능들이 선정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능 중 선호 표현하기의 경우,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는 일반적으로 관심과 취미라는 주제에서 실현되는 경우가 많으나 중등학교 학습자를 위한 교육에서는 사용 맥락을 고려하여 ‘좋아하는 수업’이라는 주제에서 실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의 주제와 기능을 수행할 때 실현되는 발화나 텍스트에서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은 ‘명사+을/를 좋아하다’, ‘명사+이/가 재미있다(재미 없다)/어렵다(쉽다)’, ‘-아/어서’ 등이 될 것이다. 또한 좋아하는 수업이라는 주제에서는 학교 수업 관련 어휘 및 감정과 관련된 어휘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법과 어휘 목록을 참고하고 언어 수준에 맞는 문법과 어휘를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하나의 단원으로 교육 항목들을 <표 10>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표 10 단원 구성 예시

주제	기능 / 과제	문법	어휘
좋아하는 수업	자신이 좋아하는 수업에 대해 이야기하기 친구에게 좋아하는 수업이 무엇인지 물어보기	을/를 좋아하다 -아/어서	수업 관련 어휘 감정 관련 어휘
.	.	.	.

<표 10>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중등학교 학습자의 주요한 관심 중 하나는 지금 배우고 있는 수업에 대한 관심, 흥미이며 이러한 ‘나의 감정’이 ‘친구’와 비슷한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학습 내용이 될 것이다. 이는 내가 좋아하는 수업의 이유에 대한 설명을 통해 ‘나를 알고’ 동시에 ‘친구를 알아가는’ 과정으로 한국어 학습을 통한 자기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4. 결론

지금까지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해외 중등학교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 과정을 개발해 보았다. 한 기관의 교육과정은 제반 사항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교육의 출발과 종료 수준 설정, 학기별 단계 설정, 수업 운영 시간 설정, 교수요목 설계, 평가 등 길고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개발된다. 특히 한국어교육은 교육 목적에서부터 국가, 지역,

기관,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실현되기에 기관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교육 관리자가 이러한 과정에서 길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하겠다.

앞으로도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을 활용한 교육과정 개발과 다양한 연구와 논의가 이어진다면 이는 본질적으로 한국어교육의 질적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교육부(2015), 《제2외국어 교육과정》, 교육부.
- 권현숙(2014), “태국 중·고등학교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 연구”,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창조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박진옥 외(2018),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변이형 적용 연구: 해외 중등학교의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9-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5-52쪽.
- 심복섭 외(2010), 《제2외국어능력평가시험 도입방안 기초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이선근(2009), “미국 고등학교의 한국어교육 -한국어를 정규 외국어과목에 채택시키는 추진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는 논문집》, 65-72쪽.
- 임형재(2013), “태국 내 한국어교육의 변화와 교육 기반 연구-중등학교 한국어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44, 한민족문화학회, 75-98쪽.
- 정서영(2015), “스리랑카 중고등학교 한국어 교사 양성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12-3,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145-181쪽.
- 진정란(2012), “태국 중고등학교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언어와 문화》 8-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35-257쪽.
- 쩨티투르영·안경환(2017), “베트남 고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시도와 장점-호찌민시와 붕파우 소재 고등학교 학생들의 인지 경험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53,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471-500쪽.
- 한상현(2005), “제2외국어 교과 편제에 대한 교육과정 국제비교 연구”, 《교원교육》 21-1,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201-221쪽.
- Council of Europe(2001),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Learning, teaching, assessment》. 김한란 외 역(2010), 《언어 학습, 교수, 평가를 위한 유럽공통참조기준》, 한국문화사.

교육부(2017a), 2016년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개설반 현황,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48&boardSeq=71270&lev=0&searchType=null&statusYN=C&page=2&s=moe&m=040103&opType=N>, (검색일 2017.9.7.).

교육부(2017b), 태국 최초 공식 중등학생용 한국어 교과서 발간,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lev=0&statusYN=C&s=moe&m=0503&opType=N&boardSeq=72235>, (검색일 2018.1.5.).

II. 해외 대학에서의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활용 방안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를 활용하여 해외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과정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지에서 요구하는 바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 중국, 베트남, 영국, 프랑스 등 5개국 내 14개 대학 기관을 대상으로 숙달도 검증 조사를 한 2016년의 3단계 연구 결과에 이어⁸⁾ 최근의 여러 보고 자료와 각종 연구 결과물에서 소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외 대학의 한국어교육 현황을 조사하였다. 숙달도 검증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행정적인 부분인 수업 시수와 최종 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문헌 연구를 통해서도 해외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과정의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더불어 해외 대학 기관의 한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여 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 해외 대학 한국어 교육과정 현황

먼저 최근의 보고 자료와 연구 결과물을 살펴본 결과 해외 대학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국어 과정은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

8)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보완 연구(김중섭 외, 2016)>에서 미국, 중국 베트남,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의 대학 내 한국어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숙달도 검증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외 대학마다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최종 등급은 서로 다르나 석사 과정이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면 평균 4~5급 정도를 최종 등급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수업 시수와 관련하여 평균 12주, 한 학기에 학년별 차이를 두지 않고 상정한다면 90시간 정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었다.

- 한국어 혹은 한국학 관련 전공이 개설된 경우
- 한국어가 부전공으로 개설된 경우
- 한국어가 교양 과목으로 개설된 경우

1.1. 한국어 혹은 한국학 관련 전공이 개설된 경우

해외 대학의 한국어교육은 단일 전공으로 개설된 경우와 한국학 전공에서 필요한 도구적 성격으로 한국어 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국어에 한정하지 않고 한국학 관련 전공으로 범위를 넓혀 한국어 과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국어교육은 대개 1, 2학년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3, 4학년 때에는 통번역이나 강독, 한국학 관련 강의로 진행되는 곳이 많았다.

대륙별로는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어교육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중 중국의 경우 한국어학과가 개설된 대학이 100여 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들 대학에서는 1학년과 2학년 과정에서 발음, 어휘, 문법을 교육하면서 언어 지식의 내재화를 위해 다양한 언어 기술 활동을 하고 있었다(추애방, 2017). 일본의 경우 2015년 15개 대학에서 한국어 전공이 개설되어 있었는데 한국어 전공 과정의 한국어 강좌는 전체 이수 학점의 50~66.7%를 차지하며 1, 2학년에 집중 배치되어 있었고 교환 학생 프로그램으로 한국의 협정대학과 복수 학위제를 운영하는 곳도 있었다(박진완, 2015). 베트남의 경우 졸업 후 한국 관련 기관 혹은 기업에서의 업무나 한국어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13개 대학에서 한국어 및 한국학이 전공으로 개설되어 있으며(응웬티리, 2017) 하노이국립외대처럼 졸업 조건으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을 요구하는

기관도 있었다(전티란아잉, 2015). 대만은 3개 대학에서 개설된 한국어 전공에서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졸업 조건으로 한국어능력시험 4급 혹은 5급을 제시하고 있었다(왕청동, 2015). 태국은 2015년 현재 9개 대학에서 한국어 및 한국학 관련 전공이 개설되어 있는데 송클라대학교와 실파콘대학교의 경우 한국어 전공 교육과정에서 한국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50%에 육박함을 볼 수 있었다(홍혜련, 2015).

유럽 지역은 전공에서 명시적으로 한국어능력시험 5, 6급을 졸업 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으나 수업 시수로 볼 때 높은 숙달도를 예상할 수 있었다. 폴란드의 바르샤바대학교의 경우 1학년에는 주당 14시간씩, 2학년 때에는 16시간씩 한국어 수업을 받는다. 3학년 때에는 한국학 세미나를 수강하며, 석사 과정에 해당하는 4, 5학년 때에는 한국어 강독과 논문 준비 과정이 있다(정현숙, 2016). 영국 런던대학의 경우 한국어 강좌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학생들은 2학년 때 반드시 한국의 자매 대학에서 한국어 과정 4급 이상을 수료해야만 진급할 수 있다. 1학년 때 수강해야 하는 한국어 수업은 21주 동안 주당 10시간인 것으로 파악된다(연제훈, 2015). 프랑스에서는 13개 대학에서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외국 언어, 문학, 문화 학사' 과정에서는 한국어 수업으로 매 학기 전체 시수의 54%에 해당하는 104시간이 배정되어 있으며 단계별로 1학년은 초급, 2학년은 중급, 3학년은 고급 한국어를 배우게 된다(조태린, 2013).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ELTE 국립대학에 개설된 한국어 전공 과정에서도 6학기 동안 한국어 과목을 43학점(총 540시간) 이수해야 하고 모든 과목이 전공 필수이다(이은선, 2015). 한편 러시아에 '한국어' 혹은 '한국학' 전공이 개설된 학교는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학교와 모스크바국립대학교 두 곳인데 정해진 외국어 교육 정책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각 강좌의 시수나 교수법 등은 교수자가 결정한다는 특징이 있다(송아라, 2014).

미국에서 동아시아학과의 설치된 4년제 대학은 약 60여 개인데 이들

대부분의 대학에서 한국학이 전공 혹은 부전공으로 운영되고 있다(김지원, 2014). 남캘리포니아대학, 하버드대학, 프린스턴대학 등 북미 지역 대학 동아시아학과의 교육과정에서 교과목은 네 가지 유형으로, 일반 목적 한국어(KGP)와 일반 학문 목적 한국어(KGAP), 특수 학문 목적 한국어(KSAP), 특수 목적 한국어(KSP) 등이다. 이 중 일반 목적 한국어(KGP)는 모든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1, 2학년 때 집중된다(강주연, 2016).

한편 아프리카 지역인 이집트에서는 아인삼스대학교에서만 한국어 전공이 개설되어 있다. 학과의 교육 목표가 외국어 전문가와 번역 전문가 양성에 있으며 주로 문법과 번역에 중점을 두고 있고 말하기의 비중이 낮다(송경옥, 2017).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외 대학의 한국어 및 한국학 전공에서의 한국어교육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첫째, 한국어교육은 대개 1, 2학년 과정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3, 4학년 때에는 통번역이나 강독, 한국학 관련 강의로 진행된다.
- 둘째, 국가의 특성에 따라 중국처럼 대학 전체가 정해진 교육과정의 틀을 따르는 곳도 있지만 러시아처럼 교수 개인의 재량에 모든 것을 일임하는 경우도 있다.
- 셋째, 학생들은 국내에서 유학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 이상으로 높은 한국어 숙달도를 요구받는다.

따라서 한국어 전공 과정에서 한국어교육은 1, 2학년 때까지 일정 수준의 숙달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발판으로 통번역 기술이나 한국 혹은 한국어 관련 지식을 심화,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환 학생 등으로 한국에 일정 기간 체류하여 공부하고 귀국한 학습자들의 경우, 따로 이들 학습자를 위한 차별화된 한국어

강좌 개설을 통해 한국어교육의 연계성과 지속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1.2. 한국어가 부전공으로 개설된 경우

해외 대학의 부전공으로서의 한국어교육 현황은 전공 교육과정 관련 연구에서 부수적으로만 다루고 있어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여러 자료를 통해 상당수의 대학에서 전공 과정은 아니지만 다양한 형태의 한국어교육이 실시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부전공으로서의 한국어 과정’은 한국의 대학처럼 주전공 이외에 부가적으로 일정한 조건의 학점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과 한국과 다른 교육 여건임을 감안해 ‘정황상’ 부전공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국립동방대에서는 통번역학과를 비롯하여 역사학과, 정치학과, 경제학과, 일본어학과, 중국어학과 및 대학원 등 관련 학과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들 학과에서 요구하는 한국어 수준은 단순 교양 수준 이상인 것으로 파악된다(김지형, 2015). 또한 스리랑카의 경우 학부에 전공 이외에도 교양 과목으로 주당 2시간 정도의 한국어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는 별도로 ‘검정 과정’을 두어 모든 학과의 학생들이 2년 동안 주당 4시간씩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는 수업 시수로나 연속성으로나 다른 일반교양 과목과 차이를 보인다(Edirisuriya, 2016).

한국어가 부전공으로 개설된 경우는 대만과 태국, 아랍 에미리트의 한국어교육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대만의 경우 한국어 전공 과정이 개설된 대학은 3곳에 불과하지만 이들 학교에서 한국어를 부전공으로 선택하는 학생은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이다. 국립정치대학

교의 경우만 하더라도 전공 학생 171명에 부전공 학생은 250명에 달한다(왕청동, 2015). 태국의 경우 송클라대학교, 실파콘대학교, 나레수안대학교의 경우 한국어를 부전공으로 할 경우 18학점에서 22학점까지 이수해야 하는데 이는 전체 학점 143학점 중 약 15%에 해당한다(홍혜련, 2015). 아랍에미리트의 UAE대학은 교양 과목으로 개설되던 한국어가 부전공 과정으로 개설되었는데 한국어교육의 목표는 기본적인 문어 및 구어 능력을 갖추는 것이며 영어와 아랍어를 한국어로, 한국어를 영어와 아랍어로 짧은 글을 번역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은 총 18학점의 한국어를 수강한다(송경옥, 2017).

부전공 과정에서 한국어교육은 대학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수업 시수가 전공에 크게 못 미쳐 전체 학기에서 20학점 내외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한국어 전공이 없는 상태에서 부전공으로만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는 대학이 많으므로 보다 정비된 교육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1.3. 한국어가 교양 과목으로 개설된 경우

한국어가 교양 과목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전공에 비해 월등히 많다. 일본만 하더라도 전체 745개 대학 중 한국어 강좌가 있는 대학은 468개교(전체의 62.8%)에 달하며(박진완, 2015) 전공으로 개설되지 않은 대학에서도 교양 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양 외국어에 해당하는 한국어 수업은 다수의 대학에서 2년간에 걸쳐 주 2회(90분) 정도로 전체 135시간 정도에 그친다. 또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은 학습자와 전혀 무지한 학습자가 공존하는 것이 특징적이다(오고시 나오키, 2015). 대만 역시 전체 159개 대학 중 교양 과목으로 한국어를 개설한 대학이 모두 57곳에 이르며, 이는 전체의 약 36%에 해당된다(왕청동, 2015).

교양 과목으로서의 한국어 수업은 다른 전공의 선택 과목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벨기에 루벤대학교의 경우 한국학 과정은 일본학 전공자를 위한 선택 과목으로 한국어 I(4학점)과 한국어 II(4학점)가 개설되어 있으나 주당 1회 두 시간씩 13주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도이다(강란숙, 2015). 그러나 아직 한국학이 정착 초기 단계에 있는 지역의 대학에서는 전공보다는 교양 과목을 통해 한국어 수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아랍권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모로코, 이라크, 요르단, 알제리 등의 여러 대학에서 교양 한국어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1년에 2학기, 주당 2회씩 3~4시간으로 구성되는데 수강자가 많아져 교양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중급까지 개설되어 운영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권현숙, 201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양 과목으로서의 한국어교육은 주당 2시간에서 4시간으로 한 학기나 두 학기에 이루어지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 한국어 학습에 높은 동기를 가진 학습자들이 많은 경우도 있으므로 초급에 한정되어 있거나 특정 언어 지식이나 기능 중심의 한국어교육이 아닌 다양한 등급과 수업 내용에 대한 제안이 필요할 것이다.

2. 현지 설문 조사 및 인터뷰를 통한 요구 분석

이 연구의 목적은 학습자와 학습 환경, 교수자 등의 변인과 상관없이 범용 가능한 한국어교육 항목 개발의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선행연구와 2016년 연구의 숙달도 검증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 역사, 문화, 경제, 정치 등의 내용 학습 단계 전에 도달해야 하는 한국어 언어 기술 함양 중심의 교육과정만을 변이형 개발의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해외 대학 한국어 교육과정 변이형에서는 선행연구와 숙달도 검증 조사 결과,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학습자의 한국어 숙달도의 목표를 4급으로 설정하고, 1급에서 4급까지 다룰 수 있는 주제, 기능, 과제 등을 살펴

각 대학에서의 학습 환경에 따라 교육 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이형의 초안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에 대한 적합성 판단을 해외 5지역의 11개 기관의 한국어 교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의 방법으로 의뢰하였다.

2.1. 설문의 방법 및 내용

설문 조사는 베트남, 카자흐스탄, 파라과이, 인도네시아, 암만 5개국 11개 기관을⁹⁾ 대상으로 하였으며 내용은 ‘응답자 및 기관 정보’, ‘소속 기관의 한국어 교육과정’, ‘해외 대학의 한국어 교육과정’의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응답자 및 기관 정보’를 통해서는 해당 기관의 한국어 학습자의 수, 한국어 교원 수(한국인과 외국인 별개), 기관의 한국어 교육과정 개설 연도 등을 확인하였다. ‘소속 기관의 한국어 교육과정’ 부분에서는 설문 기관의 한국어교육 과정의 종류, 최종 목표, 수업 시수, 졸업 조건, 교과목의 특성, 졸업 후 진로, 기존 교육과정의 적합성 등을 알아보았다. ‘해외 대학의 한국어 교육과정’ 부분에서는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설정한 숙달도 4급이 목표로 적합한지, 기능, 과제 등은 적합한지 그리고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유용할 것인지를 알아보았다.

2.2. 설문 결과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각 대학의 한국어 담당 교수의 수는 평균 11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한국어 교수는 5명, 외국인 교수는 6명이었다. 교수들의 한국어교육 경력은 평균 8년 정도였고, 학습자의 수는 평균 295명 정도가 되었다. 그러나 베트남은 745명, 파라과이는 39명으로 지역에 따라

9) 구체적으로 밝히면 하노이국립외대, 하노이국립대, 호치민사범대, 호치민인문사회과학대, 원땃탄대(NTT), 호치민외국어정보대, 인도네시아 반히엔대, 요르단대학교, 인도네시아교육대, 카자흐국제관계및세계언어대, 파라과이ISE(국립교원대)가 설문 조사 대상 기관이었다.

차이가 컸다.

각 기관의 한국어 교육과정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공 과정이 57%, 교양 26%, 부전공 17%로 나타났으며 전공 과정의 경우 도달 목표를 5급으로 설정한 기관이 46%에 이르렀다. 부전공의 경우 2급부터 5급까지였으며 교양의 경우에는 1급부터 5급까지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전공 과정은 한국어 능력 5급으로 비슷한 수준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부전공이나 교양 과정은 상당히 차이가 크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결과였다.

교육 시수는 한 학기가 15주인 경우가 82%, 16주인 경우가 18%에 달했으며 한 주당 교육 시간은 각 대학과 과정에 따라 차이가 컸다. 한국어 능력시험을 기준으로 한 단계의 등급을 수료하는 데에는 평균 1학기(34%)에서 1학기 반(33%), 2학기(33%) 등으로 대부분 2학기 이내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졸업 조건에 한국어능력시험의 결과가 포함되는 경우, 전공 과정의 경우 5급을 요구하는 기관이 50%, 4급이 25%, 3급이 25%로 나타났다. 부전공과 교양 과정에서도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몇몇 기관에 불과했으며 기준도 상이했다. 설문에 참여한 기관의 한국어 담당 교수들은 대부분 소속 대학의 한국어 교육과정이 졸업 기준의 한국어 숙달도를 달성하기에 적합하다고 보았는데, 67%가 '보통이다', 33%가 '그렇다'고 답했다.

교육 내용과 관련하여 전체 교과목 중 필수로 지정된 교과목은 79%, 선택으로 지정된 교과목은 21%로 나타났다. 그중 언어 기술 관련 교과목은 61%, 내용 중심 교과목은 39%이다. 추가 개설이 필요한 과목으로는 문법, 듣기, 한국어능력시험, 통번역, 시사, 비즈니스, 관광 업무, 대중문화, 한국어교육학 등 비교적 실용적 교과목을 들었으며 폐지해야 할 과목으로는 전통예술 이해, 인지언어학, 문체론, 텍스트언어학 등을 꼽았다.

설문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변이형

초안에 대한 현지 적합성에 대해서는, 김중섭(2017)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 총괄 목표 4급이 적절하다(62%)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15%가 '보통이다', 23%가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을 하였다. 적절하지 않은 이유로는 수업 시간을 4학기 동안 360시간을 맞추기 어렵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언어 기술 영역에서는 듣기와 말하기는 적합성 5점 만점에 4.2점을 읽기는 3.6점을 쓰기는 3.5점을 부여하였다. 모두 보통 이상의 수준이기는 하나 구어와 문어 중 문어 영역에서 현재 설정된 목표가 다소 높다고 판단하였다.

주제 영역에 대한 적합성 질문에서는 전체 평균 4.82점의 높은 적합성 정도를 보였다. 다만 세부 내용을 확인했을 때 주제 중 가장 어려운 수준인 '교육' 부분의 적합성 정도가 가장 낮았으며, '여가와 오락', '기후' 같은 주제는 적합성 5점 만점을 보였다. 주제 관련 결과는 교육 항목 배열의 선후를 결정하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기능과 과제 영역에서는 기능과 각 기능마다 최소 3개에서 10개 이상의 연계 가능한 과제를 제시하고 적합성을 물었는데, 전체 평균 4.59점의 적합성 정도를 보였다. '정보 요청하기와 정보 전달하기'가 4.76점, '설득하기와 권고하기'가 4.66점, '태도 표현하기'가 4.5점, '감정 표현하기'가 4.44점으로 나타났다. 설명, 묘사, 서술, 확인 등 가장 보편적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정보 요청하기와 정보 전달하기'가 역시 가장 높은 적합 정도를 보였다. '감정 표현하기'의 경우에는 위로, 불평, 불만, 후회, 안도, 놀람 등 다양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세부 항목마다 적합성 정도의 차이가 커서 평균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설문의 마지막 내용이었던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현지 교재, 부교재 및 교육 자료를 제작할 때 유용하며,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교육 내용을 선택하는 데에도 유용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적용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데 있어 집중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결과라 하겠다.

3. 해외 대학의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방안

이 글에서는 한국어 과정이 ‘전공으로 개설되어 운영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변이형을 제안하기로 한다. 이는 부전공과 교양 과목만 운영된다고 해도 한국어 전공 과정의 틀 안에서 학습자 집단의 요구와 흥미, 관심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함으로써 범용적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부전공의 경우는 제안된 해외 대학 한국어 전공 교육과정의 중반부까지를 목표로 삼을 수 있을 것이고, 교양 과목의 경우는 초중반부까지를 목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 전공이 개설 및 운영되고 있는 해외 대학의 경우 졸업 조건이 지역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평균 4~5등급이며 한 학기당 평균 15주 약 90시간 이상의 수업 시수를 보인다. 또한 1, 2학년 때에는 언어 기능 자체에 집중하지만 3, 4학년에 들어서면서는 한국학이나 한국어교육학 등의 내용적인 학문 영역이 적극 도입된다. 다시 말해 전공 영역에서 한국어 집중 과정은 대개 2학년까지 운영되며, 전공 영역에서 목표 숙달도는 최저 4급임을 알 수 있다. 3, 4학년 과정에서는 한국어 자체가 아닌 한국 사회, 정치, 경제, 역사 등 다양한 전문 학문 분야를 다루게 되는데 이는 한국어 교수자의 영역을 넘어서며 대학 교육과정의 목표에 따라 교육과정의 편차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고학년의 전공 내용 영역은 변이형 제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다. 졸업 자격을 5급으로 제시한 대학의 경우도 3, 4학년에 마련되어 있는 한국어 과목을 통해 단계 이상의 등급 상향, 곧 4급에서 5급으로의 상향이 충분히 가능할 것

이다. 이를 바탕으로 해외 대학 한국어 교육과정 변이형을 아래와 같은 모델로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 과정	한국어 전공 과정에서의 한국어 집중 과정
대상 학년	1~2학년
도달 목표	4급
수업 시수	학기당 90시간 × 4학기, 총 360시간

이제 교육과정 현황 분석 결과와 함께 해외 대학용 교육과정 변이형 개발의 현지 적합성 판단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해외 대학의 한국어 교육과정의 변이형을 ① 한국어교육의 목표 수준 설정, ② 교육과정의 등급 체계와 단계별 교육 시간, ③ 교육 내용의 범주와 내용 상세화로 나누어 제안하고 이어 ④ 변이형의 예를 제시하고자 한다.

3.1. 한국어교육의 목표 수준 설정

한국어교육 목적을 일반 목적과 특수 목적으로 크게 나누었을 때 차별화가 시작되는 지점은 5급부터라 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4급을 해외 대학 교육과정 변이형의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 4급의 총괄 목표는 다음과 같다.

친숙한 사회적 맥락에서 요구되는 과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으며,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기본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주제와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 비교적 유창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문어와 구어를 적절히 구분해 사용할 수 있으며, 대상과 상황에 따라 격식과 비격식을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행동 문화, 성취 문화를 이해하고 자국의 문화와 비교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적합성 판정 설문조사 결과도 대체로 타당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¹⁰⁾ 총괄 목표의 기술을 위와 같이 직업 관련 기본 업무, 주제, 문어와 구어 및 격식과 비격식의 구분, 문화의 4가지로 나누어 기술한 것에 대해서도 대부분 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3.2. 교육과정의 등급 체계와 단계별 교육 시간

최종 숙달도 목표를 4급으로 하는 해외 대학 한국어 교육과정의 변이형은 1, 2학년 총 4학기 360시간의 교육 시간을 제안하되 아래와 같은 등급 체계와 단계별 교육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1급	2급	3급	4급
1학기(90시간)	2학기(90시간)	3학기(90시간)	4학기(90시간)

여기서 만일 1급부터 1학년을 시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이에 대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가 중고등학교에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태국이 그 예이다(홍혜련, 2015).¹¹⁾ 이때 대학 1학년 학습자들은 중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웠지만 고등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경우, 중학교에서는 한국어를 배우지 않았지만 고등학교에서 배운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모두 한국어를 배운 경우로 구분될 수 있다.¹²⁾ 따라서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과정은 중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웠으나 고등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경우를 최저점으로 삼아 다음과 같은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10) 해외 대학 기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 4급을 최종 목표로 설정하는 데 대해 62%가 '적절하다', 15%가 '그렇다'로 대답함으로써 적합성이 확인되었다. '그렇지 않다(23%)'고 생각하는 이유로 '수업 시간을 4학기 360시간으로 맞추는 것이 어렵다'는 답변은 4급의 총괄 목표 자체를 문제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11) 2015년 현재, 태국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여 가르치는 초중등학교는 51개교에 달한다(홍혜련, 2015:64).

12) 해외 중등학교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변이형의 경우, 2급을 목표 도달 등급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때 2급은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중학교에서는 2급의 50%까지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2급의 75%까지를 목표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2급		3급		4급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3.3. 교육 내용 범주와 내용 상세화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개발에 필요한 내용 범주로서 ‘주제, 기능 및 과제, 언어 지식(어휘, 문법, 발음), 언어 기술(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화’ 등을 설정하고 있다. 이 모든 범주는 유기적으로 구성되며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목적과 요구, 흥미와 관심, 곧 학습자 변인에 적합하게 선택 및 배열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해외 대학의 한국어교육 관련 선행 연구와 ‘해외 대학용 교육과정 변이형 개발의 현지 적합성 판단을 위한 설문 조사’의 요구 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주제와 기능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¹³⁾

주제	여가와 오락, 기후 → 쇼핑, 대인 관계, 공공 서비스 → 개인 신상 → 주거와 환경, 일상생활 → 식음료, 건강, 여행, 교통 → 교육
기능	정보 요청하기와 정보 전달하기 → 설득하기와 권고하기 → 태도 표현하기 → 감정 표현하기

먼저 ‘여가와 오락’ 가운데 하위 항목인 ‘대중문화’는 대부분의 선행 연구 및 이번 설문 조사에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주제로 나타났다. 중급 단계의 주제 항목으로서 한국인의 비즈니스 문화나 직장 예절이 필요하다고 공통적으로 지적된 것도 특징적이었다. ‘정보 요청하기와 정보 전달하기’는 대학 한국어 교육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기능으로써 가장 높은 적합성을 보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해외 대학 한국어 교육과정 변이형의 거

13) ‘, ’로 나열된 영역은 동일한 적합성 점수로 집계된 경우이다.

시적인 학년별 교육 내용의 방향성을 제안해 보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대학에서의 한국어교육은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문법 교과를 통한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한국어 지식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1, 2학년의 경우 ‘한국어학개론’과 같은 문법 교과를 한국어 기능 교과와 함께 가르치는 방안이 있다. 거의 모든 대학이 한국어능력시험을 졸업 기준으로 정해 두고 있으므로, 한국어능력시험 관련 과목의 개설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어학개론’을 한국어능력시험 관련 과목과 연계시켜 한국어능력시험 관련 과목의 선 이수 과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면 학습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어 학습자들의 주요 관심 주제인 한국의 대중문화 및 한국 문화 능력 함양에 대한 보다 현지화된 과목 개설이 필요하다.¹⁴⁾ 저학년에서의 대중문화를 시작으로 고학년으로 갈수록 이문화(異文化) 능력 배양과 같은 보다 난도 높은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3, 4학년의 경우, 전문 학문 영역뿐만 아니라 취업과 직결되는 한국어 기능 과목도 개설할 필요가 있다. ‘비즈니스 한국어’, ‘여행 한국어’, ‘비서 한국어’ 등 취업에 필요하거나 취업 시 요구되는 실용 한국어 과목이 제안될 수 있다. 한국어 교사를 희망하는 학습자들의 수적 증가를 본다면 한국어 교수법 과목 개설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통번역 희망 학생을 위한 한국 이해 과목 개설 및 확대도 가능할 것이다.

한편 1, 2학년 과정에서 다루는 ‘주제’는 전문적인 영역을 다루는 3, 4학년 과정과 달리, 다소 가볍고 일상적인 주제를 거시적인 범주로 다루되, 학습자 변인을 고려한 맞춤형의 미시적인 주제를 상정할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어려운 정치, 사상, 철학 등은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설문 응답 내용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기능과 과제’ 면에서는 학문이 목적인 학습자들에게

14)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케이팝(K-pop)과 한국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을 포함한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 때문이라는 지적은 강민규·윤여탁(2012), 김훈태(2013), 이일수·주진오(2015), 김효신(2016), 김선아(2017), 김중섭·최은정(2017)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정보 요청하기와 전달하기’ 및 ‘설득하기와 권고하기’에 대한 대학 과정 학습자와 교수자의 요구 수준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1, 2학년 단계부터 이러한 기능과 과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3.4. 교육과정 내용 개발의 예

이 부분에서는 해외 대학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변이형으로 ‘3급’을 예로 들어 제시하고자 한다. 1급과 2급의 경우 일반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과의 뚜렷한 차이점을 찾기 어려우며, 최종 목표인 4급의 경우는 현지 사정에 따라 도달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이에 대한 평가 역시 기관 별로 이질적일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해외 대학 학습자 요구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에 관계없이 한국어 학습 목적이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1위)’, ‘한국 및 한국 회사에의 취업 및 통번역, 여행 가이드 등의 취업(2위)’, ‘유학 등 한국 대학원 진학(3위)’이라는 공통점을 보여 준다. 여기서는 ‘한국 대중문화 및 취업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대단히 높은 대학교 1, 2학년 과정의 학습자’를 가정하고 3급의 주제 및 기능/과제를 선별하고 구안하고자 한다. 먼저 3급의 총괄 목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마주치는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으며, 친숙한 사회적 맥락에서 요구되는 과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주제와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 간단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문어와 구어를 어느 정도 구분해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한국의 일상생활 문화와 대표적인 행동 문화, 성취 문화를 이해하고 자국의 문화와 비교할 수 있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3급의 ‘주제’ 중 설문 조사 결과 적합성 판정 점수가 높았던 것은, ‘기후, 여가와 오락, 대인 관계, 쇼핑, 개인

신상, 일상생활(학교생활), 주거와 환경, 공공 서비스'이다. 그중에서도 '학교생활'은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3급 주제로 중고등학교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실제적인 주제이며 학습자 요구 분석에서도 1위 필요군 주제로 분류된 필수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주제이다. '여가와 오락'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대중문화'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높은 관심을 보여 주는 공통된 주제이며 세부 주제 '영화, 공연'이나 '라디오와 텔레비전' 역시 3급의 주제로 분류되어도 무리가 없다. '쇼핑'은 주제 등급화에서 1급부터 4급에 걸쳐 있되 중점 등급은 2급이지만 설문 조사에서 교수자들에게 큰 지지를 얻고 있어 3급에서 다룰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대인 관계'의 경우 '편지'를 제외한 다른 모든 항목, 곧 '친구 동료 선후배 관계, 초대, 방문, 모임'의 중점 등급이 3급으로 판정되어 3급 기술에 매우 적합한 주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 대학 교육과정 변이형 3급의 주제로 이 연구에서는 아래의 하위 주제 항목을 제안한다.¹⁵⁾

여가와 오락, 대인 관계, 쇼핑, 개인 신상, 일상생활(학교생활)

한편 '기능'의 경우, 의도된 의미를 전달하고 이해하는 능력으로써 의사소통 중심 교육과정에서 맥락과 상황을 설정하고 언어 자료와 활동을 상세화하는 동인이 된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3급 기능 중 이 교육과정 내용 개발의 예에서는 이 가운데 해외 대학 변이형 기능의 예로 '정보 요청하기와 정보 전달하기'를 선정하기로 한다. 그 이유는 학습자 요구 조사에서도 '정보 요청하기와 정보 전달하기'가 세부 하위 기능에

15) 적합도 판정에서 '여가와 오락'과 함께 5점 만점을 받은 '기후' 그리고 '주거와 환경(4.78)', '공공 서비스(4.98)'의 경우는 일반 목적 한국어 학습자 집단에서 더 적극적으로 다루어질 주제라 판단되어 포함시키지 않았다.

관계없이 필요 1, 2위군 안에 들어간다는 공통점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학문 목적 학습자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는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가장 높은 적합성 정도를 나타내어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3급에 해당하는 ‘정보 요청하기와 정보 전달하기’는 다음과 같은 세부 기능으로 제시되어 있다.

설명하기, 묘사하기, 서술하기, 기술하기, 확인하기,
비교하기, 대조하기, 수정하기, 질문하고 답하기

위 기능과 관련하여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3급 세부 과제 선택 지침 및 이 제안에서 상정한 ‘한국 대중문화 및 취업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대단히 높은 대학생 1, 2학년의 학습자’ 변인을 고려하여 ‘과제’를 구안하면 아래와 같다. 앞서 3급 주제로 선별하였던 ‘학교생활, 여가와 오락, 대인 관계, 쇼핑, 개인 신상’에 따라 범주별로 제시한다.

주제	과제
학교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의 다양한 편의 시설과 사용법 알아보고 소개하기 · 교내 다양한 장학금 제도와 신청 방법 알아보고 설명하기 · 학교 근처 맛집을 소개하고 상황별 최고의 맛집 추천해 주기 · 다양한 교내 동아리 알아보고 설명하기 · 인기 있는 교양 명강의 알아보고 소개하기 · 학교 시설 개선 방안에 대해 설문 조사하고 발표하기 · 전공 중에서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 설명하기 · 한국 교환 학생으로 가는 방법 알아보고 설명하기 · 교내 학생 상담이나 진로 상담을 받는 방법 설명하기 · 한국인 교수님께 추천서를 부탁드리는 메일이나 편지 쓰기 · 학교의 역사를 조사한 후 시대별로 기술하기 · 대학생 기부 방법 알아보고 설명하기 · 학교 기숙사 소개하고 기숙사 특성과 규칙 기술하기 · ‘기숙사 생활 잘하는 법’에 대해 설문 조사하고 결과 발표하기 · 학교 교환 학생 제도 소개하기 · 교환 학생 다녀온 선배 인터뷰한 후 교환 학생으로 선발되는 전략 소개하기 · 효과적인 한국 유학 준비 방법 알아보고 설명하기 ·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와 아르바이트 구직 방법 소개하기

주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축제와 학교 학술제 소개하기 · 자취생을 위한 3분 요리 조리법 기술하기 · 한국 대학생들이 현재 많이 사용하는 신조어 조사하여 특징 설명하기 · 한국어교육 관련 무료 사이트(예, 누리 세종학당, 국립국어원 누리집)와 이용 방법 소개하기 · 학과 홍보 전단지 만들기 · 학과 교과 과정을 누리집에서 검색한 후, 학년별 교과목을 짝과 함께 확인하기 · 학점 잘 받는 법을 선배에게 물어서 소개하기 · 학과 졸업생 진로에 대해 알아보고 설명하기 · 대학생 때의 소망 목록(버킷리스트) 진술하기 · 지각 또는 결석한다는 메일이나 편지, 문자 메시지를 한국인 교수님께 보내기 · 우리 학교 특징 묘사하기 · 기숙사 건물과 전공 학과가 위치한 건물 특징 묘사하기 · '공강 시간 의미 있게 또는 재미있게 보내는 방법' 설문 조사한 후 발표하기
여가와 오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아하는 한국 영화 소개하기 · 한국 대중문화를 잘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 소개하기 · 한국과 자국의 대표적인 멜로드라마에 나오는 인물 비교대조하기 · 비슷한 주제를 다룬 한국 영화와 자국 영화 비교·대조하기 · 비슷한 주제를 다룬 한국의 대중가요와 자국의 대중가요의 가사 비교·대조하기 · 좋아하는 한국 연예인에게 팬레터(fan letter) 써서 보내기 ·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공통된 특징 묘사하기 · 한국의 국민 배우와 자국의 국민 배우 비교·대조하기 · 한국의 국민 가수와 자국의 국민 가수 비교·대조하기
대인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받는 선후배 되는 법'을 설문 조사한 후 발표하기 · '좋은 친구의 요건'을 설문 조사한 후 발표하기 · '좋은 기숙사 룸메이트(roommate) 되는 법' 인터뷰한 후 발표하기 · 남성과 여성의 서로 다른 대화 방식 인터뷰한 후 발표하기 · '타인과의 바람직한 의사소통이란?'이란 주제로 토론하기 · 한국인 교수님께 감사드리는 카드나 메일 쓰기 · 한국 대학생의 연애관을 조사한 후 자국 대학생과 비교·대조하기
쇼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근처의 좋은 가게 소개하기 · 좋은 중고 제품 싸게 사는 방법 설명하기 · 한국에서 반드시 사야 할 쇼핑 목록 조사하여 발표하기 · '인기 있는 부모님 생신 선물 품목'과 '생신 선물 잘 사는 법' 설문 조사 후 발표하기 · '이성 친구 선물 잘 사는 법' 인터뷰한 후 발표하기 · 우리 학교 기념품 품목 제안하고 이유 설명하기 · 최근에 산 물건 묘사하기
개인 신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화 학생 인터뷰 장면에서 자기 소개하기 · 아르바이트 사장님 앞에서 자기 소개하기 · 자신을 사물에 빗대어 비유하고 이유 설명하기 · 자신의 관심 분야 서술하기 · 좋아하는 한국 연예인 팬클럽 회원 신청서에서 자기 소개하기 · 내게 제일 큰 영향을 미친 사람 소개하기 · 자신의 멘토를 인터뷰한 후 멘토에 대해 설명하기

지금까지 기술한 주제, 기능 및 과제를 결합하여 항목을 예시해 보
이면 아래와 같다.

등급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교환 학생 제도를 알아보고 설명할 수 있다. · 학교 교환 학생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소개할 수 있다.
3	학습 시간	2차시(1차시/50분)
	주제 항목	학교생활
	기능	정보 요청하기, 정보 전달하기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교환 학생 제도를 알아보고 관련 정보를 설명하기 · 교환 학생 다녀온 선배를 인터뷰한 후 교환 학생으로 선발되기 위한 전략 소개하기 · 교환 학생으로 선발되기 위한 전략과 계획을 짜고 글로 써 보기

주제와 기능 및 과제가 정해졌다면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등급별 문법과 어휘 항목을 참고하여 문법과 어휘 항목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이때 주제, 기능, 과제와 함께 해당 대학 기관의 한국어교육 목표와 학습자들의 요구라는 변인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에 예시한 문법과 어휘 항목은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3급과 4급을 참조하였으며 학습자의 요구와 수준 및 기관의 교육 목표에 따라 유연성 있는 선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구분	어휘	문법
내용	교환 학생 선발 시기, 교환 학생 면접, 교환 학생 기간, 교환 학생 지원 자격, 지원 가능 전공, 학교 지원 내용(장학금 또는 생활비 등), 학점 이수 규정 관련 어휘	학교의 교환 학생 제도에 대한 정보 요청과 정보 전달에 필요한 문법
예	교육과정, 국가, 등록, 등록금, 면접, 보험, 생활비, 신청서, 장학금, 재학, 평가, 휴학(이하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3급), 강의, 교류, 귀국, 연명, 요구, 원서, 자격증, 최종, 책임지다, 추가, 취업, 학비, 합격자, 허가, 허용(이하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4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던데요(학교 누리집에 나와 있는 교환 학생 제도에 대한 정보 전달하기) -기 위해서(교환 학생 자격이나 교환 학생 지원 목표에 대한 정보 요청하기와 정보 전달하기) -에 대한/에 대하여(교환 학생 제도에 대해 정보 요청하기와 정보 전달하기) -면 좋겠다(교환 학생 다녀온 선배를 인터뷰한 후 교환 학생으로 선발되는 전략 소개하기) -이야겠/어야겠/여야겠(교환 학생이 되기 위한 전략과 계획을 짜고 글로 써 보기)(이하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3급) -더라고/더라고요(학교 누리집에 나와 있는 교환 학생 제도에 대한 정보 전달하기) -에 따르면, -에 의하면(학교 누리집에 나와 있는 교환 학생 제도에 대한 정보 전달하기) -대(요), -래(요)(학교 누리집에 나와 있는 교환 학생 제도에 대한 정보 전달하기) (이하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4급)

4. 결론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한국어교육의 목표 및 내용의 위계와 범주를 제시하는 가장 표준적인 지침을 담고 있는 것으로, 여러 가능한 개별적이고도 특수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의 척도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해외 대학이라는 특수한 교육 환경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활용 방안에 대해 살펴보며 실증적이고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해외 대학들의 한국어 교육 환경은 그 수만큼이나 다양하여 이것이 절대적 기준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많은 개별적이고도 특수한 교육 현장에서 응용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 강란숙(2015), “해외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어교육과정 사례로 본 유럽 한국학의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 연구”, 《한국어교육》 26-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35쪽.
- 강민규, 윤여탁(2012), “한국어교육에서 대중문화의 위상”, 《국어교육연구》 29,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35~56쪽.
- 강주연(2016), “북미 대학 한국학 전공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방안”,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창조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현숙(2016), “아랍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선아(2017), “홍콩 내 주요대학의 한국어문화교육 현황과 사례”, 《이화어문논집》 42, 이화어문학회, 5~32쪽.
- 김중섭 외(2016),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활용 점검 및 보완 연구”, 국립국어원.
- 김중섭 외(2017),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 국립국어원.
- 김중섭, 최은정(2017), “한국 대중문화 노출이 취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말하기에 미치는 영향”, 《한글》 318, 한글학회, 199~219쪽.
- 김지원(2014), “미국의 한국학 교육 현황의 역사성”, 《서양 역사와 문화 연구》 32, 한국서양문화사학회, 171~196쪽.
- 김지형(2015), “한국학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의 방향성-권역별 국외 대학의 특성을 중심으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65~275쪽.
- 김효신(2016), “문화 간 의사소통 문제와 한국문화 교육”, 《한국사상과 문화》 85, 한국사상문화학회, 505~532쪽.
- 김훈태(2013), “해외 한국어 교육현장에서의 한국 대중문화를 활용한 한국어 수업 사례 연구-드라마와 가요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4-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31~155쪽.
- 박진완(2015), “일본내 한국어전공의 교육과정 비교 연구”,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360~372쪽.

- 송경옥(2017), “카타르대학교의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연구”,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송아라(2014), “러시아에서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능력시험의 현황 및 전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연제훈(2015), “런던대학 한국어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의 쟁점”,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01~111쪽.
- 오고시 나오키(2015), “일본 대학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과정”,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325쪽~330쪽.
- 왕정동(2015), “대만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 및 전망”, 《한국어교육》 26-4,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33~163쪽.
- 응웬티리(2017), “베트남 대학의 한국(어)학과 교육과정 연구”,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은선(2015), “학습자 요구 분석을 통한 해외 대학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연구-헝가리 ELTE대학교 한국학과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일수, 주진오(2015), “드라마 활용을 통한 한국어교육콘텐츠 개선방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4, 한국콘텐츠학회, 45~55쪽.
- 정현숙(2016), “동유럽에서의 한국학 교육 현황”, 《구보학보》 14, 구보학회, 251~283쪽.
- 조태린(2013), “국의 한국학 관련 커리큘럼 분석-프랑스 주요 대학”, 《동방학지》 163,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39~259쪽.
- 쩨티란아잉(2015), “베트남 대학의 한국어 교육과정-하노이국립외대”,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351~359쪽.
- 추애방(2017), “중국 대학 학부 과정 한국어 전공자를 위한 중합한국어의 교육 내용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홍혜련(2015), “태국의 한국어교육현황과 발전방안”, 《국제한국어교육》 1-2, 국제한국어교육문화재단, 63~85쪽.
- Edirisuriya(2016), “스리랑카 대학의 한국어 교육과정 현황 분석과 개선 방향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좌담회

좌장: 김종섭 교수(경희대학교)

패널: 강현화 교수(연세대학교)

김선정 교수(계명대학교)

김재욱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김정숙 교수(고려대학교)

안경화 교수(서울대학교)

이해영 교수(이화여자대학교)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의의와 성과

강현화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국제 통용’의 의미

모든 것에 활용할 수 있는 범용적 교육과정은 ‘가상의 것’일 수 있다. 비교적 균질적인 집단(내국인, 청소년, 학습 목적) 국어교육의 교육과정에 반해, 한국어교육의 교육과정은 다양한 학습자(언어권, 연령, 상이한 학습 목적)를 위한 단일 교육과정 수립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습자를 아우르는 공통의 교육과정의 수립은 중요하다. 원형적 교육과정이 존재해야 대상에게 적용하는 적용적 교육과정의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KFL, KSL, KHL 학습자 집단 모두를 아우르는 중립적이고 범용적인 교육과정의 수립은 필수적인데, 국가 주도로 다양한 전문가 집단이 참여해 이룩한 성과라는 점에서 과급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국가 주도의 교육과정은 국립국어원의 <국제통용 표준 교육과정>, <한국어능력시험>, <어휘내용개발연구>, <문법교육내용연구> 등이 있었다. <국제통용 표준 교육과정>을 제외하고는 특정한 목적(평가)을 위한 등급 설정이나, 특정한 영역(어휘, 문법)의 목록에 국한된 연구

들이다. 교육과정 전체를 설계하고 세부 영역별로 구체적인 지침과 목록을 제공하고 있는 연구는 <국제통용 표준 교육과정>이 유일하다. 따라서 해당 연구는 학계의 학술적 연구는 물론 관련 국가 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2.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구체적 성과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첫째는 범용적 특성으로 적용의 토대가 된다는 점이다.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은 특정 교육과정을 고려하지 않고, 전 세계에 통용되는 범용적 어휘 교수요목 마련을 목표로 한 연구이므로, 전 세계의 다양한 목표와 학습 환경을 가진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교육과정への 적용을 위한 원형적 목록이다. 이런 이유로 해당 연구는 상황 변인(학습자 언어권, 학습자 환경)을 편중되지 않고 빈도와(교재 간) 중복도와 같은 변인 독립적 요소에만 무게를 두어 내용을 선정하였다.

어휘의 예를 든다면 ‘공부하다’와 같은 ‘-하다’ 접사가 붙은 대부분의 파생어를 따로 목록으로 삼지 않고 단어족(word family)의 개념으로 접근하였으며, 국내 교재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고유명사도 제외되었다.

둘째는 교수 현장 및 교재 개발에의 활용성이 높다는 점이다. 개정된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에서는 초-중-고의 숙달도를 세분해서 1급-6급의 단계화된 목록을 제시하고 있어, 교육과정への 활용이 효과적이다.

셋째는 한국어 학습의 목표를 명시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의 어휘 및 문법 항목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학술 연구에서의 빈도 중심의 <교육용 기본 어휘 연구>를 넘어서, 언어 학습의 관점에서 '숙달도별 목표 어휘'를 대상으로 했다. 따라서 해당 숙달도에서의 '사용하는 어휘'가 아니라 '사용해야 할 어휘(목표 어휘)'에 초점을 두어 교육적 목표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교육에의 활용이 가능하다.

넷째는 항목 선정의 타당성이 있다는 점이다. 선행 연구들은 주로 말뭉치의 빈도에 편중된 결과이거나 혹은 교사들이 주관적 경험에 의존한 결과들이다. 전자는 목표 언어의 사용 비중에는 근접하지만 실제 교육과정에서의 활용이 어려울 수 있고, 후자는 교사들 간에도 주관적 기준의 차이가 존재해서 객관적인 목록을 얻기 어려울 수 있으며, 기존 교재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생긴다는 점에서 둘 다 한계를 가진다. 이에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연구는 데이터에 근거하되, 현장 교수의 경험적 자료들을 반영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최종 목록 선정에 앞서 교사나 학습자의 목록 친숙도를 최종 확인 점검했으나, 이를 보조적으로만 활용하고 기본 토대는 모어 화자의 말뭉치 빈도나 교수 현장의 자료 빈도와 중복도에 기댈으로써 객관적 목록을 확보하고자 했다.

다섯째, 학술적 이론 연구를 기반으로 한 결과물이라는 점이다. 각각의 영역에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국내외의 다양한 학술적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수용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에 의한 한국어 교육적 적용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언어 교육적 연구 성과의 결집이라는 의미도 가진다.

여섯째, 구축된 자료가 실용이라는 점이다.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의 언어 자료 목록은 실제 교육 현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목록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간에 이루어졌던 학술적 관점에서의

‘교육용 기본어휘’의 말뭉치는 대부분 문어 중심의 데이터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실제적 의사소통의 자료를 바탕으로 삼은 한국어 교육에의 활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의 연구는 실제 교육과정의 자료들(교재, 토픽)에서의 사용 어휘를 분석해서 이를 토대로 삼음으로써 문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3. 향후 과제

완성된 결과물의 즉각적인 활용을 원하는 경우, 결과물의 적용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회의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이 가진 문제라기보다는 본 사업의 결과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태생부터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은 원형적 교육과정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설사 세부 교육과정에 대한 예시가 제시되더라도 그 역시 해당 집단 내의 원형적 교육과정이 된다. 예를 들어 <세종학당 교육과정> 역시 개별 세종학당 모두에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범용적 기초 자료를 가지고 특정 지역이나 특정 대상, 특정 언어권에 적용하는 것은 다음 단계로 거쳐야 하는 필수적 단계이다. 다만 현장에서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부 교육과정의 다양한 예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그 활용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향후 이러한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안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의의와 성과

김선정

계명대학교 한국문화정보학과 교수

먼저 오랜 작업 끝에 국가 차원의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을 완성하게 된 것을 한국어교육학계의 일원으로 더 없이 기쁘게 생각하며,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국립국어원에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2017년에 이루어진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적용 연구’는 기존에 이루어진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함과 아울러 현장 적용을 위한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국내외 한국어교육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제고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내외 한국어교육 현장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초중등학교에서 한국어를 교과목으로 채택한 국가만 보더라도 2009년에는 14개국(522개교)이던 것이 2017년에는 28개국(1,423개교)으로 확대되었고,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수도 약 12만 5천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한국어 교육과정으로 국내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한국어 교육 현장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이 ‘참조적’인 모형으로서 ‘범용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는 각국의 교육제도와 교육환경에 적합하게 창조적으로 변용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41개국이라는 다양한 국가의 언어를 한 그릇에 담고 있는 유럽공통참조기준(CEFR)이 국가마다 다른 교육 환경 속에서도 교육과정의 ‘참조기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완성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또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이번 연구는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내외 주요 교육 현장의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유형별 교육과정을 설계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각 등급별 성취 수준에 부합하는 세부 내용을 구성하고 유형별 변이형을 제시하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외 중등학교와 대학에서 활용될 수 있는 한국어 교육과정을 실례로 적용 방안을 구체화 시켜 교육과정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 교사도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정규 초중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교육은 무엇보다도 해당국의 외국어 교육과정에 부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현지의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중등학교 한국어 과정의 목표 수준을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2급 수준으로 설정하고, 해외 대학의 목표 수준을 ‘전공으로 개설되어 운영되는 경우’에 4급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운영 학기 수나 학기당 총 수업 시간, 주당 수업 시간 등을 고려하고 등급별 소요 시간을 고려하여 제시한 줄로 압니다. 그러나 2급, 4급이라는 목표를 ‘국제 통용 표준 한국어 교육과정’에서 설정하기보다는 현지의 교육제도와 교육 환경에 맞게 현지에서 설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해외 한국어 교육 환경은 우리가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합니다. 2018년 현재

48개교에서 11,223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CEFR를 참조하여 ‘국민 교육 표준에 따른 외국어 수준’을 개발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고등학교(10-11학년)에서의 한국어 도달 목표를 B1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태국의 경우 112개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고, 대학입학시험(PAT)에도 한국어가 채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가 개발되었지만 한국어 도달 목표는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중등학교 한국어 교육과정의 목표를 2급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어떻게 중등학교 학습자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교육 내용의 상세화 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상세화된 교육 내용을 보면, 현재는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의 도달점이 똑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목적에 따라 요구되는 언어 기능별 숙달도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과 외국어교육에서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의 기능이 동일한 수준에서 발달하지 않는다는 경험적 사실로 볼 때 언어 기능의 숙달도를 달리 설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습목적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언어 기능을 요구하는 것은 ‘국제 통용 표준 한국어 교육과정’의 유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핀란드에서 CEFR을 적용할 때 학습 목적에 따라 도달 수준을 언어 기능별로 달리 설정한 예도 있습니다.

‘국제 통용 표준 한국어 교육과정’이 앞으로 국내외의 다양한 한국어 학습 환경에서 교육과정과 교수요목을 설계하거나 교재를 개발하고, 평가 도구를 개발할 때 어느 곳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기본 원칙과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어교사를 대상으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적용 방안을 교육한다면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 과정’이

‘참조기준’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교사용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의의와 성과

김재욱

한국의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한국어 교육 현장은 현재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습자가 증가하고 학습 목적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학습자 대상과 학습 목적들을 포괄할 수 있는 표준 한국어 교육과정이 없기 때문에 나라별, 기관별로 독자적으로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표준적인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국립국어원에서 2010년부터 8년여에 걸쳐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왔는데 그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1단계 연구(2010)’,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 연구(2011)’에서 이론적 체계와 교육과정 틀을 마련하여 다양한 한국어 교육 기관 교육과정의 적용을 시도하였고,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활용 점검 및 보완 연구(2016)’,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2017)’에서 앞선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국어 교육 연구 및 현장에서의 요구를 반영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한국어 교육 표준 교육과정을 개발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의 의의와 성과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1. 그간의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다양한 외국어 교육과정 분석(유럽 공통참조기준, ACTFL, HSK, JLPT, TOPIK 등)을 통한 이론적 연구와 실제 한국어 교육기관(대학의 한국어 교육기관, 세종학당,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해외 중등학교, 해외 대학 등)에의 적용 검토와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의 요구 변화를 반영하면서 한국어 교육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 원칙과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2. 기존 1단계, 2단계 연구에서 한국어 학습의 목적, 학습자의 수준 변화를 고려하여 한국어 교육과정의 최상급 도달 목표로 7단계를 설정하였으나 대부분의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6등급 체계로 진행되고 있어 7등급의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과 TOPIK의 6등급 체계, 7등급 체계 분류 이론의 괴리로 인해 연구자, 교수자, 학습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6급 이상의 개방형(6+급)으로 등급을 제시한 것도 이러한 한국어 교육 상황을 반영하여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이번 연구 결과는 한국어 교육의 현실과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세종학당 교재, 태국 중등학교용 한국어 교과서 등과 한국어능력 시험(TOPIK)에서도 이러한 연구 결과가 반영되어 교재 개발과 한국어 능력 평가에서도 활용되고 있고, 많은 연구들¹⁾에서도 이 연구 성과물을 한국어 교육 연구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은 이미 한국어 교육

연구와 실제 적용에서의 표준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이번 연구 결과에서 제시한 국내외 기관의 교육 시간에 따른 각 등급별 교육시간의 탄력적 운영 제시는 현재의 한국어 교육 기관의 수업 시간과 TOPIK에서의 등급간 교육 시간을 기반으로 하여 언어 기술 및 문화와 연계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세종학당 교육과정(세종학당 표준 교육과정 적용 모형 중장기 연구(2015))에서도 유사한 수업 모형을 제시하고 있어 이미 이 연구 결과가 각 한국어 교육 기관의 교육 과정에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 한국어 교육 기관과 TOPIK에서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의 단계를 설정하고 그 하위 등급으로 1~6급을 설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 연구에 초, 중, 고급 단계의 목표를 주제를 중심으로 '일상적인 것(초급) → 친숙한 것(중급) → 친숙하지 않은 것(고급)'으로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단계 내에서의 각 등급별 언어 사용 능력을 '간단한 의사소통(1·2급) → 최소한의 의사소통(3급) → 비교적 유창한 의사소통(4급) → 대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음(5급) → 유창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6급)'으로 확장하도록 제시한 것으로 초,중,고급 단계 목표 설정과 해당 단계 내에서의 등급 간 목표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초, 중, 고급 단계의 목표가 보다 명확해졌다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발된 연구 성과가 표준 한국어 교육과정 기준으로 자리매김

1) 제목만으로 검색한 결과 총 193편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술 논문 27편, 학위 논문 139편, 학술발표자료 4편, 연구보고서 13편, 단행본 10권(2018. 9. 6. 네이버 학술논문 검색 결과, 중복 포함). 실제 연구에 활용한 논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됨.

하기 위해서는 이를 활용한 연구의 확산과 다양한 실제 교육과정에서의 적용 연구가 필요하리라 보입니다. ‘유럽공통참조기준’을 사례로 볼 수 있는데 이 기준을 바탕으로 독일 등 유럽 각국의 외국어 교육 현장에서 자신들의 국가 현실에 맞게 적용하여 활용하고 있는 점을 눈여겨보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연구 성과가 국내 한국어 교육의 연구와 적용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국내외 수많은 한국어 교육 기관의 교육과정 표준화, 한국어 교재 개발 및 한국어 평가의 표준화에 객관적인 준거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과제

김정숙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4년의 연구를 거쳐 개발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교육 환경이나 교육 대상 등에 따라 변형해 활용할 수 있는 참조 기준으로, 향후 한국어 교육과정의 수립 및 교수·학습 설계, 교수요목 설계, 교재 개발, 평가 등에서 크게 활용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본 연구를 기획한 국립국어원과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한국어교육학 연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현재의 개발 성과 자체로도 의미가 크지만, 표준 교육과정이 보다 안정화되고 발전되며 그 활용 범위가 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두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다양한 교육 현장에의 적용 연구를 바탕으로 한 수정 및 보완 과정이 필요하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큰 틀은 유럽 공통 참조 기준을 비롯한 관련 외국어 교육과정 이론 및 성과와 한국어교육 분야에서의 연구와 경험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그 결과 6등급 체계와 등급별 목표

수준을 설정하고 각 등급의 기술 영역으로 주제, 기능, 언어기술, 언어지식, 텍스트, 문화, 평가 일곱 개의 영역을 설정하였으며 각 영역의 하위 교육 내용을 명시하였다. 또한 각 등급에 필요한 교육 시간으로 72시간~200시간을 제시하고 시간별로 영역별 교육의 비중을 달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매우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것이지만 이것이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어떠한 타당성과 적합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검증은 시도된 바가 없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인 한국어 교육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으로서의 완결성을 확보하고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보다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교육과정을 다양한 교육 현장에 적용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실험 연구가 필요하며, 그 결과를 반영해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6등급 체계와 등급별 목표 수준의 설정이 적절한지, 그리고 각 등급의 교육 목표에 72~200시간으로 도달 가능한지, 교육 여건과 학습자 변인에 따라 어떻게 결과가 달라지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교육과정을 수정 보완하고 정교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2. 해외 한국어 교육과정/교재 개발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의 기회가 필요하다.

최근 국외 중등학교에서의 한국어 교과목 채택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한국어 교육과정 및 을 교육개발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대학에서도 한국어 교육 환경의 변화나 교육과정 개선에 대한 요구가 생겨나고 있어 국외 한국어교육 연구자들 사이에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외 한국어 교육과정에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특히 중등학교에는 국가별로 표준 외국어 교육과정이 있고, 대학에도 그에 준하는 지침이 있다. 따라서 국외에서 한국어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에는 해당 국가의 외국어 교육과정 지침을 준수하며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외 한국어 교육 전문가 대상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활용 워크숍’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의 개최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국외 한국어 교육과정/교재 개발자에게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내용과 활용 방안을 소개하고, 국가별·지역별 특성에 맞는 활용법을 함께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각 기관의 교육과정 개발과 개선, 나아가 한국어 교육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국립국어원이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국외 연구자가 많이 참여하는 국제학술대회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이 국내외에서 폭넓게 활용되어 한국어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라며 토론을 마친다.

국제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활용 사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안경화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교수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 KIIP)은 2012년 개발되어 2018년 현재 정비 및 보완을 위한 기초연구(과제책임자 이화여대 이미혜 교수)가 수행 중이다. 현재 36개 거점 총2,521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요구분석과 국립국어원·법무부 협의를 통한 상황분석을 마치고 국제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을 활용한 교육과정 개발과 샘플단원 집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국제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큰 틀을 유지하되,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특성에 맞게 개발하기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팀이 검토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요구분석(총2,521명, 이미혜 책임연구원 수행), 상황분석(법무부 및 행정안전부) 및 국외유사프로그램(생활자로서의 외국인을 위한 일본어 교육 표준 교육과정 분석, 조항록 공동연구원 수행) 등의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몇몇 교육내용을 특화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한국 생활 정보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문화 목록으로 초급에서 긴급재난문자, 공과금, 직급과 직함의 수록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주요 학습대상이 노동자임을 고려하여 ‘일과 작업’ 관련 내용의 강화를 고려하고 있다.

둘째, 교육시간(급별 100시간)을 고려한 교육내용의 선정에 대해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00시간(10주*20시간)을 기반으로 개발된 국제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유형별 운영 지침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교육시간이 적을 경우 해당 등급의 언어지식(어휘, 문법, 발음)은 거의 유사하게 운영하고 언어기술(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에 거주하며 생활하는 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중도입학자녀) 등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학습자들에게는 한국어 노출 기회가 많으므로 교실에서의 언어기술 시수를 축소 운영하는 국제통용의 활용 지침은 전반적으로 타당한 방향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절대시수의 부족, 또는 가용 시수를 고려한다면 언어지식과 언어기술의 교육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가 하는가는 현장의 교육과정 개발과정에서 쉽지 않은 문제이다. 예를 들어 국제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초급과 중급 문법 항목 수는 각각 1급 45개, 2급 45개, 3급 67개, 4급 67개인데,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경우는 급별로 34개 내외이므로 문법 선정의 문제가 생긴다.

셋째, 이론적인 체계성과 현장의 실용성 간의 선택이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주제의 경우 ‘말이나 글의 중심 화제’의 의미로 엄격하게 교육 항목을 선정하는 것이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지 고민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초급의 대표적인 교육내용인 ‘인사/소개’, ‘약속’, ‘전화’ 등의 경우는 주제라기보다는 기능으로 보는 것이 맞으며 이들 대신 ‘개인 신상, 만남’ 등이 주제에 해당하는 적합한 용어이다. 그러나 주제가 교재의 단원 제목이 되거나 기능, 문법, 어휘 등과 연계되어 해당 단원 내지 차시의 교육목표를 분명하게 드러내야 함을 고려한다면 엄격한 주제성 용어를 선정하기보다는 기존의 용어도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

는 생각이 든다. 주제임이 분명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면 교육범주는 ‘주제’가 아닌 ‘주제/장면’으로 하는 것도 고려해 볼직하다.

넷째,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학습 대상은 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중도입국자녀 등 다양하며 이들의 하위 변인을 고려한 교육내용을 교육 과정에 반영하는 문제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구진에게는 큰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국제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제인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사회통합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기관 교재에서 제기되는 문제의 하나는 초급, 중급, 고급 사이, 즉 등급 간 난이도 격차가 등급 내의 격차보다 매우 크다고 학습자들이 체감하는 점이다. 초급, 중급, 고급으로 단계가 높아지면서 일상생활과 관련한 주제에서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주제,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추상적 주제로 나아가는 구성인데 이 과정에서 점진적 연계성과 계열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의의와 과제

이해영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국외 한국어 보급에 있어 중요한 참조 기준이다. 국내외 각 교육 현장에서 이를 기준 삼아 각자에 맞게 변형, 적용함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고른 교육의 질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한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개발에 짧게나마 참여하였던 연구자로서, 이를 사용하게 될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자로서, 또한 교재 개발자의 입장에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 과정의 개발의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단견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1.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의의와 장점

국립국어원의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개발은 그 동안 개별 교육 기관의 교육과정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편성에 객관적 틀과 지침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2010년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개발이 시작되기 전까지 각 한국어 교육 기관은 자신이 수립한 학습의 목표가 기관 밖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표준적이

고 객관적인 목표인지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 받지 못했다. 한국어 능력 시험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개인적으로 한국어 실력을 측정하는 것만이 객관적 수준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따라서 교육 기관들은 시험의 결과를 목표 수준 조정에 활용하면서 객관성 확보에 접근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개발의 출발에 있어 가장 주안을 둔 부분은 ‘표준’의 개념 설명이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것은 획일화가 아니며, 다양한 한국어 교육 환경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연함과 높은 적용성이다. 따라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의 ‘표준’은 다양한 교육 환경에 맞춰 변형되고 적용될 수 있는 한국어 교육의 대표적인 참조 기준으로서 기본 원칙이자 객관적 준거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각 범주별로 등급별 기술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장점은 각 범주별로 단순히 ‘Can-do’ 형식의 목표 수준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 등급에 해당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내용을 다루어야 할지까지를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제, 기능, 언어 지식, 언어 기술, 문화, 평가 등에 따라 상세화된 등급 체계는 다양한 현장의 요구에 맞는 교재 개발에 있어서 활용 가능한 객관적 준거와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이 개발 단계부터 세웠던 ‘참조 기준의 제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것이라 하겠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유연함과 적용성 또는 활용도는 초기 개발 단계에서부터 표준 교육과정을 변형하여 실제로 적용하기 위

한 모델 제시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가령, 2011년 연구 보고서에서 변이형이라는 이름으로 세종학당과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대상의 표준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제시한 것이나 2017년 유형별 표준 교육과정으로 해외 중·고등학교(청소년) 과정과 해외 대학 과정을 제시한 것은 좋은 예이다.

무엇보다도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현장에서 이미 객관적 기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한국어 능력시험과 이를 기반으로 편성된 각급 한국어 교육기관들의 등급 기준을 포괄적 수용하여, 초기의 7등급 체제를 6등급 체제로 수정하였다. 이로써 일반화와 표준성을 갖춘 참조 기준으로서 일반에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2.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개발 이후, 과제와 전망

이제 일반에 공개되는 참조 기준으로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이 그 위상에 맞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국립국어원과 전문가들은 향후 과제와 전망에 대하여 깊은 논의와 빠른 실행을 요구 받게 되었다.

다른 언어의 참조 기준이 이용자 편의성을 어떻게 도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의 중요한 제안을 하게 된다. 두 가지는 서로 맞물리는 연계성이 있지만 구분하자면, 첫 번째는 실제 사용자의 편리한 사용을 위한 용이한 접근성의 확보이고, 두 번째는 연구 결과의 통합을 통한 실용적인 매뉴얼로의 변환이다.

2.1. 사용자의 편의성 도모와 활용도 제고

먼저 사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활용도를 높인 예로 JF Standard를 살펴볼 수 있다. JF Standard는 일본국제교류기금(Japan Foundation)이 ‘상호이해를 위한 일본어’라는 이념 아래, 2005년부터 개발해 온 JF 일본어 교육 스탠다드이다. JF Standard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Can-do’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JF Standard 개발에 참조가 되었던 CEFR과도 비교하며 사용자가 연습으로 자신의 필요에 따라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학습 내용을 구성하는 모의 연습을 제공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기술적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매우 실용적인 매뉴얼이 pdf로 제공되고 있고,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등 외국인 사용자를 위한 외국어 번역본도 제공되어 있다. 교육 기관의 학습 목표 설정에 참조 기준으로 JF Standard를 사용하려는 외국인 교사들을 위한 정보 제공의 실용적 차원으로 보인다.

또한 홈페이지는 JF Standard의 활용 사례의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가령, 홈페이지는 JF Standard를 활용한 논문이나 발표 자료 등이 코스 디자인, 수업 설계, 평가, 포트폴리오, 이문화 이해, 교재 작성 등으로 구분하여 제공되고 있다. 교육과정 설계자, 교재 개발자, 교사는 이러한 실제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교육과정 개발에 JF Standard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자신의 교육 기관에 맞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실용적이고 현장 적용성이 높다. 또한 등급에 맞는 언어 사용과 교수 장면을 동영상 자료로 제공하여 초보 교사들을 위한 길잡이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도 JF Standard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하겠다.

무엇보다도 홈페이지 정보들은 일본국제교류기금이 개발, 보급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싶다. 앞으로 국립국어원의 한국어교수학습센터에서 또는 독립된 사이트로 운영되어 손쉬운 활용 방법 안내와 적용 사례, 이용자 스스로의 적용 모의 연습 기회 등이 제공되어 잘 만들어진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활용도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2.2. 연구 보고서의 내용 통합을 통한 실용적인 매뉴얼로의 변환

실용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4권의 연구 보고서가 아닌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최종 매뉴얼’이 제공되어야 한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개발은 네 번의 연구로 진행된 연구 보고서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다보니 초기의 계획 단계의 내용이 마지막 단계에서 변화된 것들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등급의 조정이다. 이러한 경위를 상세히 알지 못하는 비전문적 사용자는 초기 연구 결과 보고서에 상세히 제공된 등급별 학습 항목이 수정되기 전의 체계임을 알 수 없고 결국 “의도하지 않은” 7등급 체계로 교육과정을 수정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사용자에게 4권을 모두 읽고 변화의 흐름까지 숙지하여 현장에 적용하라고 안내할 수도 없다.

기왕 실용적인 최종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라면 조정된 내용 간의 충돌은 물론 소소한 궁금증 또한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가령, ‘한눈에 보는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을 보면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등급 체계를 설명하면서 ‘6+’를 적시하였지만 간단한 설명서는 물론 2017년 보고서에서조차 ‘6’과의 차이를 보여줄 만한 내

용은 생략되어 있다. 홈페이지 등에 실용적인 최종 매뉴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정리하여, 등급 설정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면 언급도 보류되어야 할 것이고, 등급 설정을 적시하고자 할 경우 설명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 결과 보고서에서는 참조 기준으로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교육 시간의 차이로 인한 시간별 영역 비중을 달리할 수 있음을 도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용적 매뉴얼에는 시간 차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들어가거나 빠지는지 예시를 통하여 상세히 제공되어 활용도와 실용성이 높아지기를 바란다. 역시 전문적이지 않은 사용자를 배려한 섬세한 변화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물론 앞서 말했듯이 홈페이지에서 사용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자기 사례 보고도 비전문적 사용자를 위한 유용한 보조적 자료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대부분의 문제들은 4개의 연구 결과 보고서로만 제공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자체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다른 언어의 참조 기준들과 마찬가지로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일반에 공개되고 홍보되는 자료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극복되고 이론적 내용보다는 실용적 지침과 사례가 구체적으로 제공되는 문자 그대로 매뉴얼로 변환, 제공되기를 바란다.

요약본

□ 1급

<p>[총괄 목표] 정형화된 표현을 이용해 일상생활에서 매우 간단한 의사소통(자기소개, 인사, 물건 사기 등)을 할 수 있다. 기초적 어휘와 간단한 문장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한국의 일상생활 문화를 이해하고 자국의 문화와 비교할 수 있다.</p>	
주 제	<p>개인 신상(이름, 전화번호, 가족, 국적, 고향), 주거와 환경(장소, 숙소, 방, 생활 편의 시설), 일상생활(가정생활, 학교생활), 쇼핑(쇼핑 시설, 식품, 가격), 식음료(음식, 음료, 외식), 공공 서비스(우편, 은행, 병원, 약국), 여가와 오락(휴일, 취미·관심, 영화·공연, 전시회·박물관), 대인관계(친구·동료 관계, 초대, 방문, 편지), 건강(신체, 질병), 기후(날씨, 계절), 여행(관광지), 교통(길, 교통수단)</p>
기 능	<p>정보 요청하기와 정보 전달하기(설명하기, 질문하고 답하기), 설득하기와 권고하기(제안하기, 요청하기, 허락하기/허락구하기, 명령하기, 금지하기), 태도 표현하기(동의하기, 바람·희망·기대 표현하기, 사과 표현하기, 거절 표현하기), 감정 표현하기(희로애락 표현하기), 사교적 활동하기(인사하기, 소개하기, 감사하기, 축하하기, 환영하기, 호칭하기)</p>

언어 기술		
목표	듣기	일상생활에서 오가는 매우 간단한 대화와 빈번하게 사용되는 정형화된 표현을 이해할 수 있다.
	말하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소개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오가는 매우 간단한 대화와 빈번하게 쓰이는 정형화된 표현을 생산할 수 있다.
	읽기	기본적인 음운 규칙에 맞게 정확하게 읽을 수 있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매우 간단한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쓰기	기본적인 맞춤법에 맞게 글자를 정확하게 쓸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 관한 간단한 글을 쓸 수 있다.
내용	듣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에 대한 쉽고 기초적인 대화를 듣고 이해한다. •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정형화된 표현(인사, 감사, 사과 등)을 듣고 이해한다. • 대화 상대방의 자기소개를 듣고 주요 정보를 파악한다. • 한국어 모어 화자가 천천히 정확하게 발음하는 발화를 이해한다.(1, 2급)
	말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자신을 소개한다. • 주변의 일상적인 대상이나 사물에 대해 말한다. • 자신과 관련된 일상생활에 대해 짧게 묻고 답한다. •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정형화된 표현(인사, 감사, 사과 등)을 적절하게 말한다. •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발음을 구사한다.(1, 2급)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 자음과 모음, 받침 등을 식별하여 띄어쓰기 단위로 어느 정도 끊어 읽는다. • 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알고 짧은 문장을 바르게 읽는다. • 일상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간판, 안내 표지판 등을 읽고 내용을 이해한다. • 일상생활에 관한 짧은 글을 읽고 내용을 이해한다.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 자음과 모음을 결합해 글자를 쓴다. • 맞춤법에 맞게 짧은 문장을 바르게 쓴다. • 간단한 메모를 한다. • 일상생활에 관한 짧은 글을 간단한 구조로 쓴다.

□ 2급

<p>[총괄 목표] 기초 어휘와 단순한 문장을 이용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마주치는 간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다루는 개인적·구체적 주제에 대해 간단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기본적인 한국의 일상생활 문화를 이해하고 자국의 문화와 비교할 수 있다.</p>	
주 제	<p>개인 신상(이름, 전화번호, 가족, 국적, 고향, 성격, 외모), 주거와 환경(장소, 숙소, 방, 가구·침구, 주거비, 생활 편의 시설, 지역), 일상생활(가정생활, 학교생활), 쇼핑(쇼핑 시설, 식품, 의복, 가정용품, 가격), 식음료(음식, 음료, 배달, 외식), 공공 서비스(우편, 은행, 병원, 약국, 경찰서), 여가와 오락(휴일, 취미·관심, 영화·공연, 전시회·박물관, 대인관계(친구·동료 관계, 초대, 방문, 편지, 모임), 건강(신체, 위생, 질병, 치료), 기후(날씨, 계절), 여행(관광지, 일정, 짐, 숙소), 교통(위치, 거리, 길, 교통수단)</p>
기 능	<p>정보 요청하기와 정보 전달하기(설명하기, 확인하기, 비교하기, 대조하기, 질문하고 답하기), 설득하기와 권고하기(제안하기, 요청하기, 허락하기/허락구하기, 명령하기, 금지하기), 태도 표현하기(동의하기, 추측하기, 바람·희망·기대 표현하기, 가능/불가능 표현하기, 능력 표현하기, 의무 표현하기, 사과 표현하기, 거절 표현하기), 감정 표현하기(놀람 표현하기, 선호 표현하기, 희로애락 표현하기), 사교적 활동하기(인사하기, 소개하기, 감사하기, 축하하기, 환영하기, 호칭하기)</p>

언어 기술

언어 기술		
목 표	듣 기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주제의 대화를 이해할 수 있으며 자주 가는 장소에서 흔히 접하는 담화의 주요 정보를 이해할 수 있다.
	말 하 기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주제의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일상 생활에서 자주 가는 장소에서 묻고 답할 수 있다.
	읽 기	일상생활과 관련된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며 쉽고 간단한 생활문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쓰 기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일이나 친숙한 인물에 관한 글을 쓸 수 있다.
내 용	듣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에 대한 간단한 대화를 듣고 내용을 이해한다. • 질문, 제안, 명령 등의 표현을 듣고 적절하게 반응한다. • 일상생활에서 자주 가는 장소(식당, 가게, 영화관 등)에서 오가는 대화를 듣고 이해한다. • 공공장소(병원, 은행, 기차역 등)에서의 담화를 듣고 주요 내용을 이해한다. • 한국어 모어 화자가 천천히 정확하게 발음하는 발화를 이해한다. (1, 2급)
	말 하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숙한 상황에서 일상적으로 많이 말하는 주제(하루 일과, 취미, 취향 등)에 대해 비교적 잘 말한다. • 일상생활에서 자주 가는 장소(식당, 가게, 영화관 등)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는다. • 공공장소(병원, 은행, 기차역 등)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대화를 한다. •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발음을 구사한다. (1, 2급)
	읽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소재의 글을 읽고 이해한다. • 일상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안내문이나 게시문의 주요 정보를 읽고 이해한다. • 간단한 생활문(메모, 일기 등)을 읽고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한다. • 일상생활을 설명한 글을 읽고 이해한다.
	쓰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일과를 비교적 정확하게 쓴다. • 경험한 일이나 앞으로의 계획에 관해 문장과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쓴다. • 친숙한 인물, 사물, 장소 등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글을 장르적 특성에 맞게 쓴다.

□ 3급

<p>[총괄 목표] 일상생활에서 자주 마주치는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으며, 친숙한 사회적 맥락에서 요구되는 과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주제와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 간단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문어와 구어를 어느 정도 구분해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한국의 일상생활 문화와 대표적인 행동 문화, 성취 문화를 이해하고 자국의 문화와 비교할 수 있다.</p>	
주 제	<p>개인 신상(성격, 외모, 연애, 결혼, 직업), 주거와 환경(숙소, 방, 가구·침구, 주거비, 생활 편의 시설, 지역, 지리, 동식물), 일상생활(가정생활, 학교생활), 쇼핑(쇼핑 시설, 식품, 의복, 가정용품), 식음료(음식, 배달, 외식), 공공 서비스(우편, 전화, 은행, 병원, 경찰서), 여가와 오락(휴일, 취미·관심, 라디오·텔레비전, 영화·공연, 전시회·박물관), 일과 직업(취업, 직장생활), 대인관계(친구·동료·선후배 관계, 초대, 방문, 편지, 모임), 건강(신체, 위생, 질병, 치료, 보험), 기후(날씨, 계절), 여행(관광지, 일정, 짐, 숙소), 교통(교통수단), 교육(진로)</p>
기 능	<p>정보 요청하기와 정보 전달하기(설명하기, 묘사하기, 서술하기, 기술하기, 확인하기, 비교하기, 대조하기, 수정하기, 질문하고 답하기), 설득하기와 권고하기(제안하기, 권유하기, 요청하기, 충고하기/충고구하기, 조언하기/조언구하기, 허락하기/허락구하기, 명령하기, 금지하기, 주의주기/주의하기, 지시하기), 태도 표현하기(동의하기, 반대하기, 부인하기, 추측하기, 의도 표현하기, 바람·희망·기대 표현하기, 가능/불가능 표현하기, 능력 표현하기, 의무 표현하기, 사과 표현하기, 거절 표현하기), 감정 표현하기(만족/불만족 표현하기, 걱정 표현하기, 고민 표현하기, 위로 표현하기, 불평·불만 표현하기, 후회 표현하기, 놀람 표현하기, 선호 표현하기, 희로애락 표현하기), 사교적 활동하기(인사하기, 소개하기, 감사하기, 축하하기, 칭찬하기, 환영하기, 호칭하기)</p>

		언어 기술	
목표	듣기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주제에 대한 간단한 담화를 이해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자주 오가는 대부분의 대화를 이해할 수 있다.	
	말하기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주제와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으며 대화 상황을 어느 정도 구분하여 말할 수 있다.	
	읽기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주제로 된 글을 읽고 대체로 이해할 수 있으며 구조가 복잡한 생활문과 실용문, 구조가 단순한 설명문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쓰기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주제로 된 글을 간단한 구조로 쓸 수 있다.	
내용	듣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주제(직업, 사랑, 교육 등)에 대한 담화를 듣고 주요 내용을 이해한다. • 동의, 반대, 금지 등의 표현을 듣고 화자의 발화 의도를 파악한다. • 격식적 상황과 비격식적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담화를 듣고 그 특성을 파악한다. • 비교적 복잡한 구조의 일상 대화를 듣고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한다. • 한국어 모어 화자의 자연스러운 억양과 속도의 발화를 대체로 이해한다. (3, 4급) 	
	말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주제(직업, 사랑, 교육 등)나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 간단한 대화를 한다. • 일상적으로 많이 말하는 주제(하루 일과, 취미, 취향 등)에 대해 유창하게 말한다. •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에 대해 간단한 담화를 말한다. • 대화 상대나 대화 상황에 따라 높임말과 반말을 적절하게 사용한다. • 비원어민의 발음과 억양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인도 쉽게 이해할 수 정도로 말한다.(3, 4급)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주제(직업, 사랑, 교육 등)에 관한 글을 읽고 핵심 내용을 이해한다. • 복잡한 구조의 생활문(전자우편(이메일), 초청장 등)을 읽고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한다. • 복잡한 구조의 실용문(진단지, 안내문 등)을 읽고 주요 정보를 파악한다. • 단순한 구조의 설명문을 읽고 정보를 파악한다.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과 관련된 생활문을 비교적 정확하게 쓴다. •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주제(직업, 사랑, 교육 등)에 관한 글을 간단한 구조로 쓴다. • 실용문(안내문, 전자 우편(이메일) 등)을 단락과 단락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쓴다. • 간단한 구조의 설명문에 핵심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쓴다. 	

□ 4급

<p>[총괄 목표] 친숙한 사회적 맥락에서 요구되는 과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으며,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기본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주제와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 비교적 유창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문어와 구어를 적절히 구분해 사용할 수 있으며, 대상과 상황에 따라 격식과 비격식을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행동 문화, 성취 문화를 이해하고 자국의 문화와 비교할 수 있다.</p>	
주 제	<p>개인 신상(성격, 외모, 연애, 결혼, 직업), 주거와 환경(숙소, 방, 가구·침구, 주거비, 지역, 지리, 동식물), 일상생활(가정생활, 학교생활), 쇼핑(쇼핑 시설, 식품, 의복, 가정용품), 식음료(음식), 공공서비스(은행, 경찰서), 여가와 오락(휴일, 취미·관심, 라디오·텔레비전, 영화·공연, 전시회·박물관, 독서, 스포츠), 일과 직업(취업, 직장생활, 업무), 대인관계(친구·동료·선후배 관계, 초대, 방문, 편지, 모임), 건강(신체, 위생, 질병, 치료, 보험), 기후(날씨, 계절), 여행(관광지, 일정, 짐, 숙소), 교통(교통수단, 운송, 택배), 교육(학교 교육, 교과목, 진로)</p>
기 능	<p>정보 요청하기와 정보 전달하기(설명하기, 진술하기, 보고하기, 묘사하기, 서술하기, 기술하기, 확인하기, 비교하기, 대조하기, 수정하기, 질문하고 답하기), 설득하기와 권고하기(제안하기, 권유하기, 요청하기, 경고하기, 충고하기/충고구하기, 조언하기/조언구하기, 허락하기/허락구하기, 명령하기, 금지하기, 주의주기/주의하기, 지시하기), 태도 표현하기(동의하기, 반대하기, 부인하기, 추측하기, 의도 표현하기, 바람·희망·기대 표현하기, 가능/불가능 표현하기, 능력 표현하기, 의무 표현하기, 사과 표현하기, 거절 표현하기), 감정 표현하기(만족/불만족 표현하기, 걱정 표현하기, 고민 표현하기, 위로 표현하기, 불평·불만 표현하기, 후회 표현하기, 안도 표현하기, 놀람 표현하기, 선호 표현하기, 회로애락 표현하기), 사교적 활동하기(인사하기, 소개하기, 감사하기, 축하하기, 칭찬하기, 환영하기, 호칭하기)</p>

언어 기술		
목표	듣기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주제에 대한 대부분의 담화를 이해할 수 있으며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기본적인 업무 상황에서의 대화를 이해할 수 있다.
	말하기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주제와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 비교적 유창하게 묻고 답할 수 있으며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업무 상황에서 요구되는 비교적 간단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읽기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주제로 된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며 설명문, 논설문, 쉽고 짧은 문학 작품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쓰기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주제로 된 글을 정확하게 쓸 수 있으며 설명문, 논설문, 쉽고 짧은 감상문을 쓸 수 있다.
내용	듣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주제(직업, 사랑, 교육 등)에 대한 담화를 듣고 세부내용을 이해한다. • 요청, 보고, 지시 표현을 듣고 적절하게 반응한다. • 인물과 사건을 설명하는 담화를 듣고 주요 내용을 이해한다. • 친숙한 업무 상황(간단한 회의, 브리핑, 업무 지시 등)이나 격식성이 낮은 공식적인 자리(회식, 동호회, 친목 모임 등)에서 오가는 대화를 어려움 없이 이해한다. • 한국어 모어 화자의 자연스러운 억양과 속도의 발화를 대체로 이해한다.(3, 4급)
	말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주제(직업, 사랑, 교육 등)나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비교적 유창하게 말한다. • 간단한 보고나 요청, 지시를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한다. • 주변의 인물이나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 친숙한 업무 상황(간단한 회의, 브리핑, 업무 지시 등)이나 격식성이 낮은 공식적인 자리(회식, 동호회, 친목 모임 등)에서 격식과 비격식 표현을 구분하여 자신의 의견을 비교적 유창하게 말한다. • 비원어민의 발음과 억양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인도 쉽게 이해할 수 정도로 말한다.(3, 4급)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주제(직업, 사랑, 교육 등)에 관한 글을 읽고 핵심을 파악하며 세부 내용을 이해한다. • 비교, 대조, 나열 등이 사용된 설명문을 읽고 글의 내용을 이해한다. • 비교적 친숙한 소재를 다룬 논설문을 읽고 중심 내용과 뒷받침 내용을 이해한다. • 소재가 쉬우며 길이가 짧은 문학 작품을 읽고 대강의 내용을 이해한다.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주제(직업, 사랑, 교육 등)에 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거나 의견을 들어 주장하는 글을 쓴다. • 친숙한 소재를 다루는 논설문의 구조에 맞게 자신의 주장과 뒷받침 내용을 쓴다. • 짧고 간단한 구조의 수필을 일관된 내용으로 쓴다. • 예시, 비교/대조 등을 활용하여 글을 쓴다.

□ 5급

<p>[총괄 목표] 덜 친숙한 사회적 맥락에서 요구되는 과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며, 자신의 업무나 학업과 관련된 기본적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추상적 주제 및 자신의 직업이나 학문 영역에 대해 간단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공식적인 맥락에서 격식을 갖추어 의사소통할 수 있다. 한국의 다양한 행동 문화, 성취 문화 및 대표적인 관념 문화를 이해하며 자국의 문화와 비교하여 문화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다.</p>	
<p>주 제</p>	<p>개인 신상(직업, 종교), 주거와 환경(숙소, 방, 가구·침구, 주거비, 지역, 지리, 동식물), 여가와 오락(라디오·텔레비전, 독서, 스포츠), 일과 직업(취업, 직장 생활, 업무), 건강(위생, 질병, 치료, 보험), 기후(날씨, 계절), 여행(관광지, 일정, 짐, 숙소), 교육(학교 교육, 교과목, 진로), 사회(정치, 경제, 범죄, 제도, 여론, 국제 관계), 예술(문학, 음악, 미술), 전문분야(언어학, 과학, 심리학, 철학)</p>
<p>기 능</p>	<p>정보 요청하기와 정보 전달하기(설명하기, 진술하기, 보고하기, 묘사하기, 서술하기, 기술하기, 확인하기, 비교하기, 대조하기, 수정하기, 질문하고 답하기), 설득하기와 권고하기(제안하기, 권유하기, 요청하기, 경고하기, 충고하기/충고구하기, 조언하기/조언구하기, 허락하기/허락구하기, 명령하기, 금지하기, 주의주기/주의하기, 지시하기), 태도 표현하기(동의하기, 반대하기, 부인하기, 추측하기, 문제 제기하기, 의도 표현하기, 바람·희망·기대 표현하기, 가능/불가능 표현하기, 능력 표현하기, 의무 표현하기, 사과 표현하기, 거절 표현하기), 감정 표현하기(만족/불만족 표현하기, 걱정 표현하기, 고민 표현하기, 위로 표현하기, 불평·불만 표현하기, 후회 표현하기, 안도 표현하기, 놀람 표현하기, 선호 표현하기, 희로애락 표현하기, 심정 표현하기), 사교적 활동하기(인사하기, 소개하기, 감사하기, 축하하기, 칭찬하기, 환영하기, 호칭하기)</p>

언어 기술		
목표	듣기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추상적 주제 및 자신의 직업이나 학문 영역에서의 간단한 담화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말하기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추상적 주제 및 자신의 직업이나 학문 영역에 대해 어려움 없이 설명하고 자신의 의견을 유창하게 말할 수 있다.
	읽기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추상적 주제나 자신의 전문 분야에 관한 글을 읽고 대체로 이해할 수 있으며 비교적 짧고 단순한 문학 작품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쓰기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추상적 주제나 자신의 전문 분야에 관한 글을 구조에 맞게 쓸 수 있다.
내용	듣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추상적 주제(정치, 경제, 과학 등)에 대한 간단한 담화를 듣고 주요 내용을 이해한다. • 협상, 보고, 상담 담화를 듣고 화자의 의도를 파악한다. • 일반적인 주제의 학문적 대화나 강연, 토론을 듣고 세부 내용을 이해한다. • 일반적인 내용의 방송 담화(뉴스, 다큐멘터리, 생활 정보 등)를 듣고 내용을 대체로 이해한다. • 발음, 억양, 속도 등에서 개인차가 있는 한국어 모어 화자의 발화를 대부분 이해한다.(5, 6급)
	말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추상적 주제(정치, 경제, 과학 등)이나 자신의 업무, 학문 영역에 대해 유창하고 타당하게 설명하거나 주장한다. • 업무, 학문 관련 공식 상황에서 격식에 맞게 말한다. • 다양한 매체를 통한 여러 유형의 대화나 담화상황(화상 회의, 전화 회의, 프레젠테이션 등)에서 적절하게 말한다. • 상황에 따라 한국인과 같은 주저 표현을 전략적으로 사용한다. • 대부분의 상황에서 한국인과 같은 발음과 억양, 적절한 발화 속도를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유창하게 말한다.(5, 6급)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추상적 주제(정치, 경제, 과학 등)에 관한 글을 읽고 대강의 내용을 이해한다. • 자신의 전문 분야에 관한 글을 읽고 핵심 내용을 이해한다. • 다양한 소재의 글을 읽고 글의 논리적 구조에 따른 의미를 파악한다. • 길이가 비교적 짧고 전개 구조가 단순한 문학 작품을 읽고 전체적인 내용과 작가의 의도를 파악한다.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추상적 주제(정치, 경제, 과학 등)에 관해 논리적 구조를 반영한 글을 쓴다. • 자신의 전문 분야에 관하여 핵심 내용이 드러나도록 글을 쓴다. • 다양한 소재의 글을 요약하고 자신의 의견을 반영한 요약문을 쓴다. • 정의, 인용 등을 활용하여 글을 쓴다.

□ 6급

<p>[총괄 목표] 덜 친숙한 사회적 맥락에서 요구되는 과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으며, 자신의 업무나 학업과 관련된 의사소통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추상적 주제 및 자신의 직업이나 학문 영역에 대해 비교적 유창하게 다룰 수 있다. 한국인이 즐겨 사용하는 담화·텍스트 구조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다. 한국의 다양한 행동 문화, 성취 문화, 관념 문화를 이해하며 자국의 문화와 비교하여 문화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다.</p>	
주 제	<p>개인 신상(종교), 주거와 환경(지리), 여가와 오락(독서, 스포츠), 일과 직업(취업, 업무), 건강(위생, 질병, 치료, 보험), 사회(정치, 경제, 범죄, 제도, 여론, 국제 관계), 예술(문학, 음악, 미술), 전 문분야(언어학, 과학, 심리학, 철학)</p>
기 능	<p>정보 요청하기와 정보 전달하기(설명하기, 진술하기, 보고하기, 묘사하기, 서술하기, 기술하기, 확인하기, 비교하기, 대조하기, 수정하기, 질문하고 답하기), 설득하기와 권고하기(제안하기, 권유하기, 요청하기, 경고하기, 충고하기/충고구하기, 조언하기/조언구하기, 허락하기/허락구하기, 명령하기, 금지하기, 주의주기/주의하기, 지시하기), 태도 표현하기(동의하기, 반대하기, 부인하기, 추측하기, 문제 제기하기, 의도 표현하기, 바람·희망·기대 표현하기, 가능/불가능 표현하기, 능력 표현하기, 의무 표현하기, 사과 표현하기, 거절 표현하기), 감정 표현하기(만족/불만족 표현하기, 걱정 표현하기, 고민 표현하기, 위로 표현하기, 불평·불만 표현하기, 후회 표현하기, 안도 표현하기, 놀람 표현하기, 선호 표현하기, 회로에탁 표현하기, 심정 표현하기), 사교적 활동하기(인사하기, 소개하기, 감사하기, 축하하기, 칭찬하기, 환영하기, 호칭하기)</p>

언어 기술

		언어 기술	
		목표	내용
목표	듣기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추상적 주제 및 자신의 직업이나 학문 영역에서의 다양한 담화를 거의 대부분 이해할 수 있다.	
	말하기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추상적 주제 및 자신의 직업이나 학문 영역에 대한 의견을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 상세하고 유창하게 말할 수 있다.	
	읽기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추상적 주제나 자신의 전문 분야에 관한 글을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며 비교적 쉬운 문학 작품을 읽고 감상할 수 있다.	
	쓰기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추상적 주제나 자신의 전문 분야에 관한 글을 논리적인 구조로 쓸 수 있으며 다양한 장르의 특성을 고려한 글을 쓸 수 있다.	
내용	듣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추상적 주제(정치, 경제, 과학 등)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담화를 듣고 대부분 이해한다. • 설득, 권고, 주장 담화를 듣고 논리적인 흐름을 파악한다. • 전문적인 주제의 발표, 토론, 강연 등을 듣고 세부 내용을 이해한다. • 시사적인 문제를 다룬 방송 담화(보도, 대담, 토론 등)를 듣고 인과관계를 분석하며 내용을 추론한다. • 발음, 억양, 속도 등에서 개인차가 있는 한국어 모어 화자의 발화를 대부분 이해한다.(5, 6급) 	
	말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추상적 주제(정치, 경제, 과학 등)나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한 입장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말한다. •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이나 대담에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논리적으로 말한다. • 대부분의 상황에서 적절한 한국어 대화 및 담화 구조와 전략을 알고 이를 자연스럽게 유창하게 말한다. • 대부분의 상황에서 한국인과 같은 발음과 억양, 적절한 발화 속도를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유창하게 말한다.(5, 6급)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추상적 주제(정치, 경제, 과학 등)에 관련된 글을 읽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다. • 자신의 전문 분야에 관한 글을 읽고 핵심을 파악하며 세부 내용을 이해한다. • 다양한 소재에 관한 글을 읽고 글의 논리적 의미 관계 및 필자의 의도를 파악한다. • 텍스트의 유형이나 형식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텍스트를 정확하게 이해한다. • 복잡하지 않은 전개 구조와 비유나 함축 표현이 적은 문학 작품을 읽고 감상한다.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추상적 주제(정치, 경제, 과학 등)에 관해 논리적이고 정확하게 의견을 전개하는 글을 쓴다. • 자신의 전문 분야에 관하여 핵심 내용과 세부 내용이 연결 되도록 글을 쓴다. • 평론, 학술 보고서, 학술 논문 등의 전문적인 글의 특성을 이해하고 간단하지만 일관된 내용 구조를 가진 글을 쓴다. • 비유, 분류, 분석 등을 활용하여 글을 쓴다. 	